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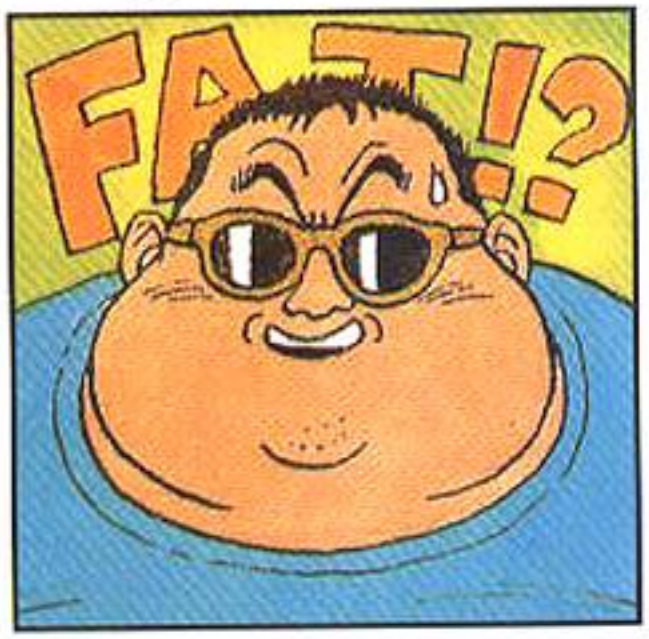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32 셀의 완전체 완성!!

공개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미지사이즈, 파일이름, 스탬프
수정등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자료를 상업
적으로 이용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요즘,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는 대개 이렇게 이야기한다, "살 많이 쪘네!?" 라고 하는 것이다. 확실히 살이 쪘다. 174cm인데 73킬로그램이다. 그다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손발이나 가슴 등은, 예전에 말랐던 채로 있기 때문에 엄청 보기 흉하다. 역시 조금은 운동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위의 그림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다이어트도…. 아앗! 또 과식해 버렸다.

nned by raprnb

이전
의 수
적목
다.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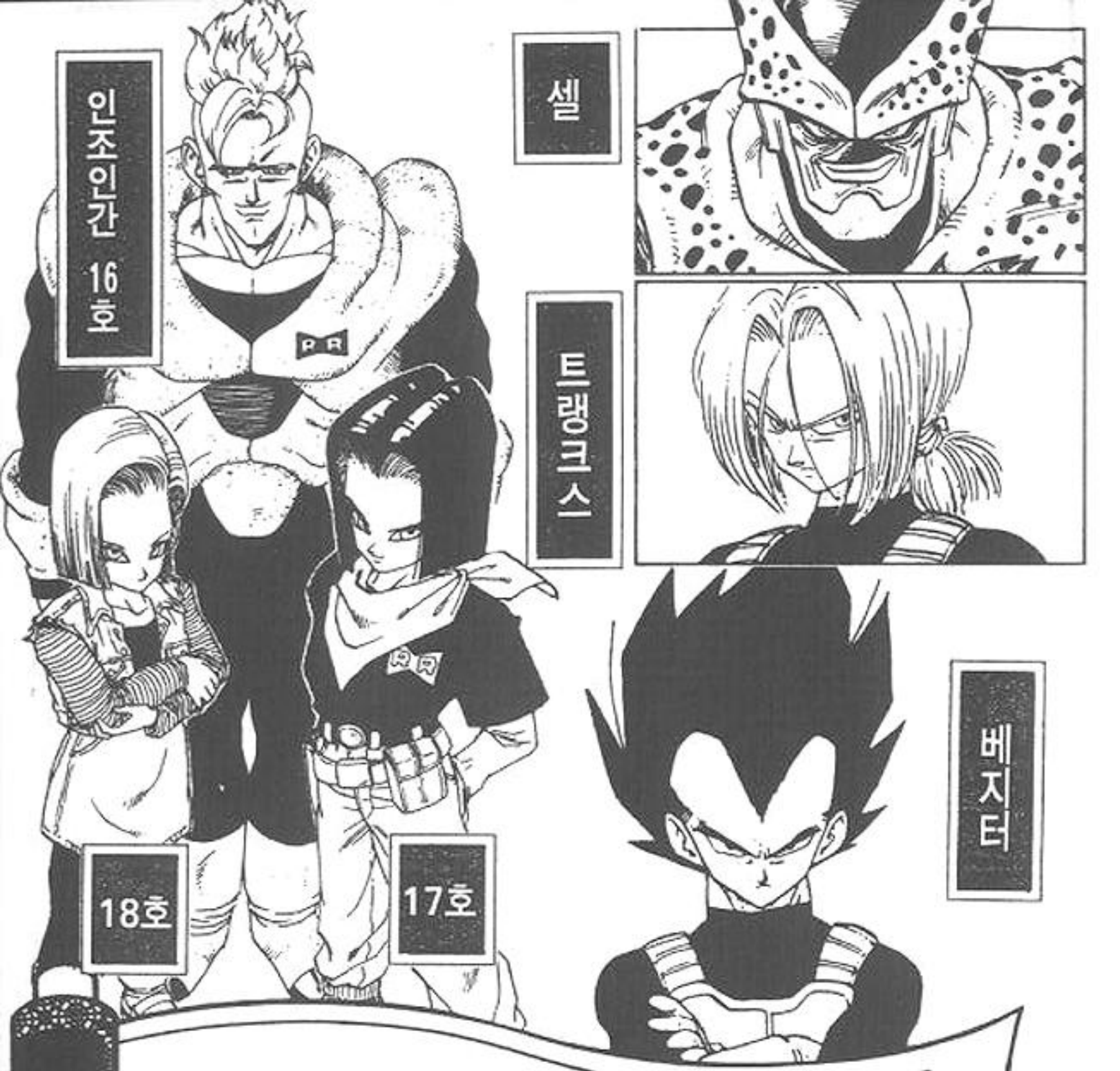
드래곤 볼

제32편 셀의 완전체 완성!!

AKIRA TORIYAMA

sca

등장인물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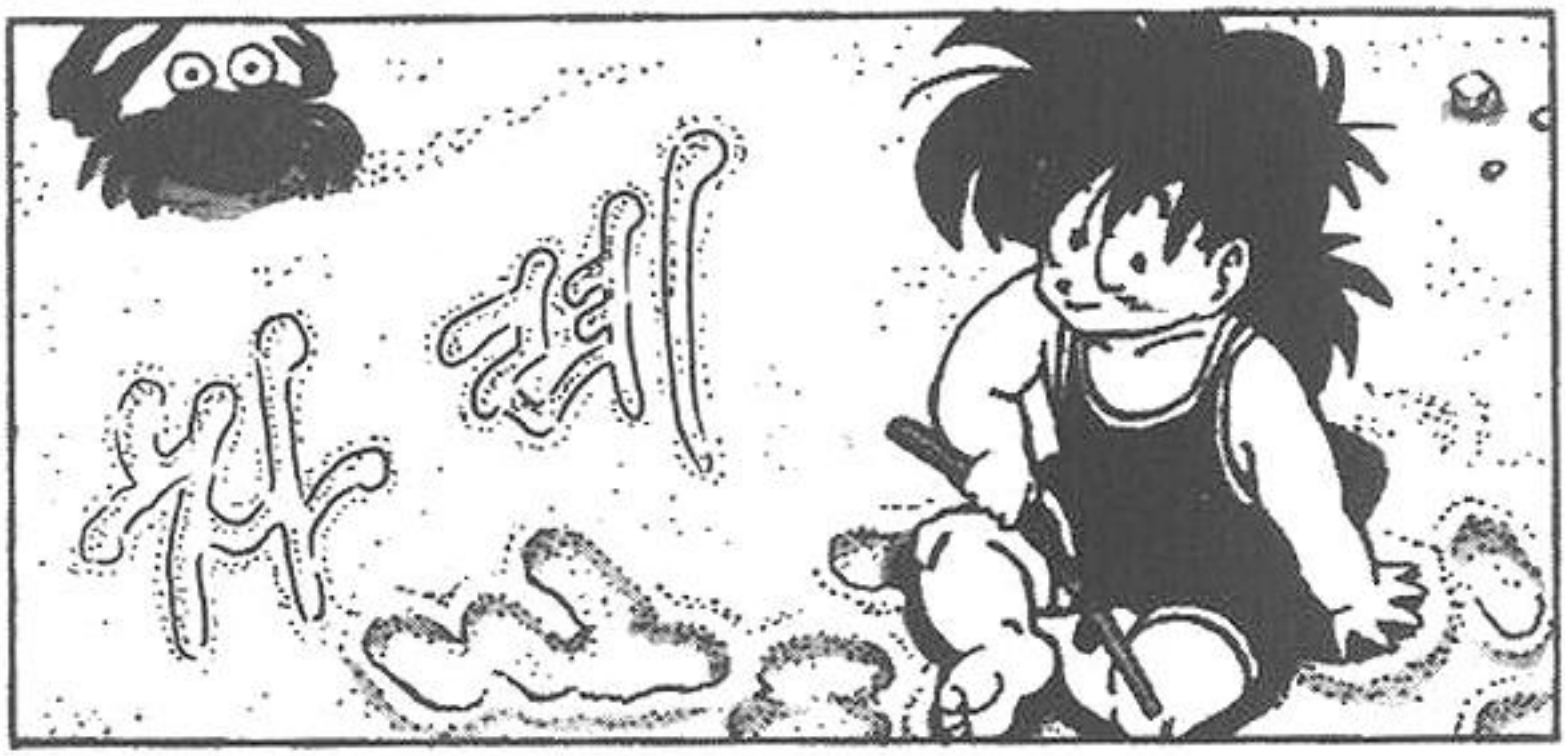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우승을 거둔다. 그 후 잃어버린 드래곤 볼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 쟁탈전에서 최강전사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여 승리를 거둔 오공. 하지만 3년 후, 인조인간과의 전투 도중 심장병에 걸려 쓰러져버린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인조인간 3명과, 최강의 육체 "완전체"를 목표로 하는 괴물 셀이 등장. 손오공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DRAGON BALL 32

셀의 완전체 완성!!



제374화 오공과 셀의 첫 대면 …… 7
제375화 베지터, 트랭크스 발진!! …… 22
제376화 베지터의 자신만만! …… 36
제377화 손오공과 손오반 …… 50
제378화 초베지터 …… 64
제379화 셀의 완전체 실패!? …… 78
제380화 도망쳐라!! 18호 …… 92
제381화 베지터의 호기심이 셀을 구하다 …… 106
제382화 완전체 완성!! …… 120
제383화 전세 역전!! …… 134
제384화 베지터, 집념의 비책 …… 148
제385화 트랭크스 시동 …… 162
표지 페이지 대특집 XXXI …… 177

제374화
오공과 셀의 첫 대면

자,
지금이다!
빨리
도망
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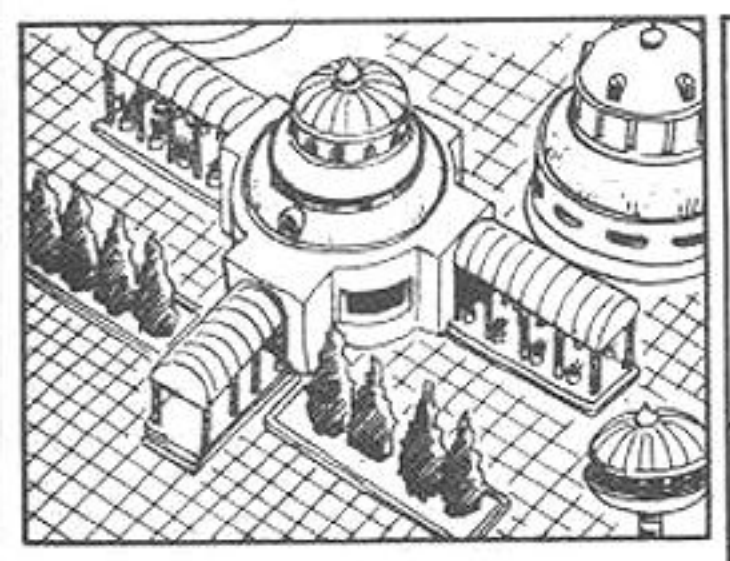
쿠
쿠
쿠
쿠

핫
!!
핫
!!

쿠
쿠
쿠
쿠

큭!!

퍼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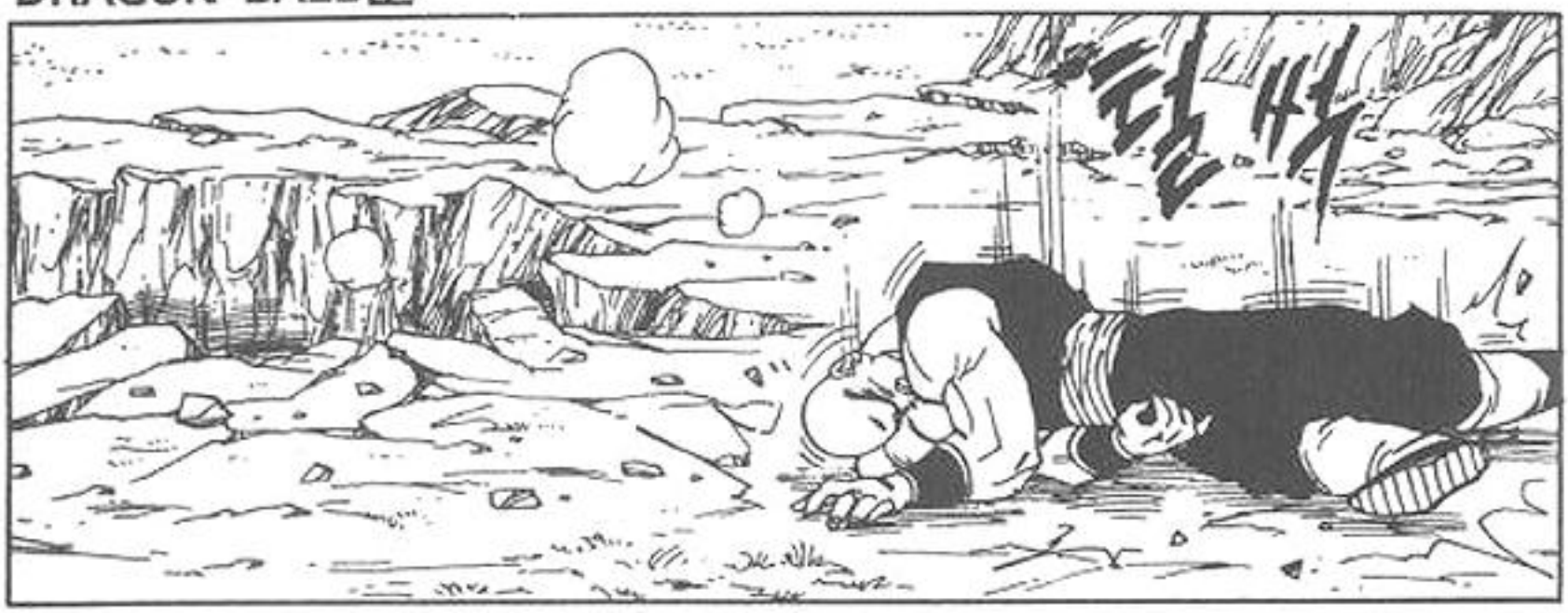
핫!!
핫!!
쿠쿵쿠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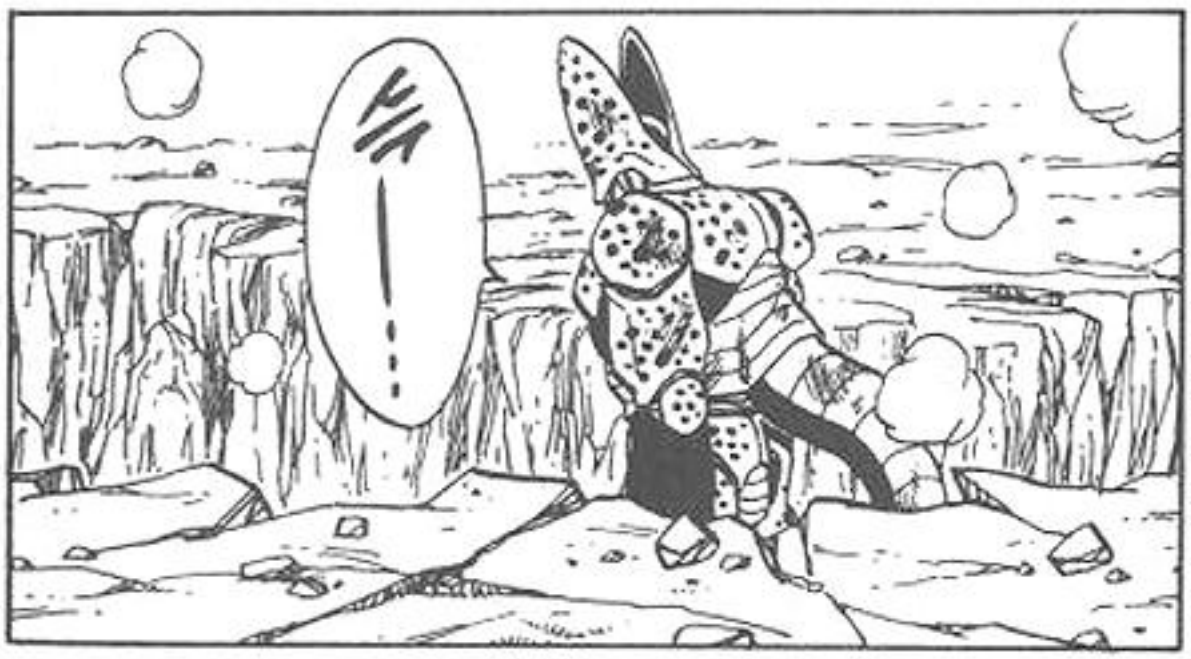
더 이상 기공포는 쓰지 말라구 -!!
천진반! 그만! 제발 그만둬-!

핫!!!

허억….
헉….
헉….

파
타
밧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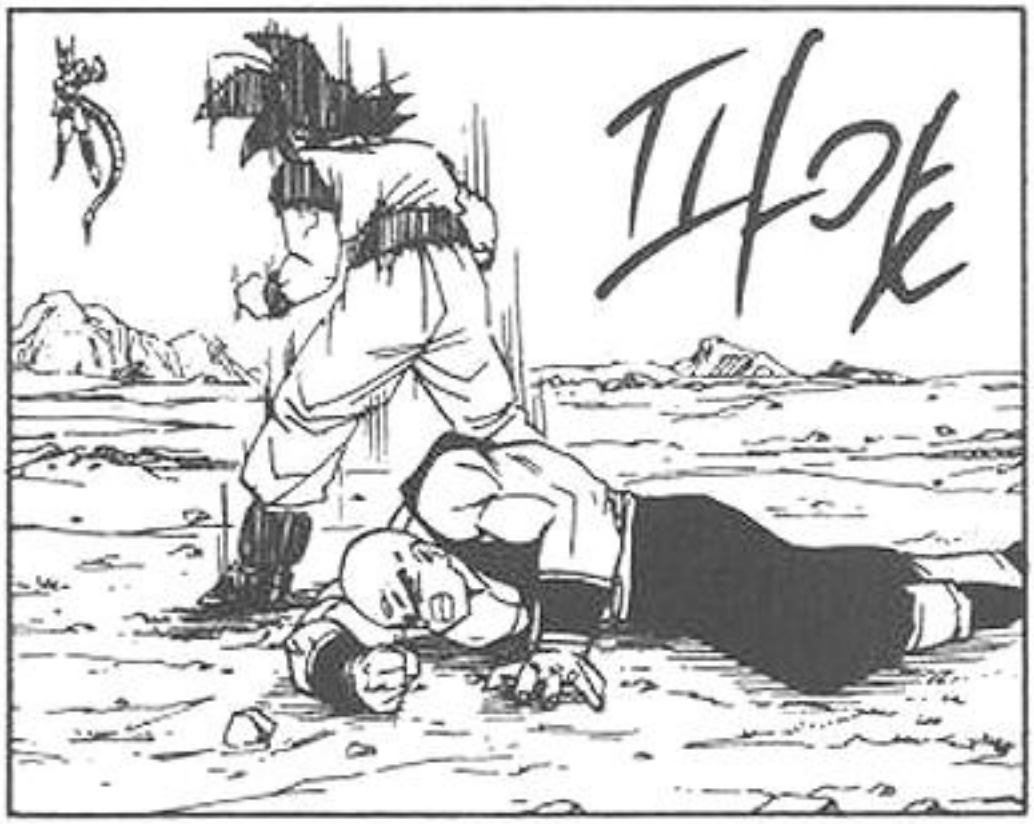
놓쳤잖아 …!
제길…

다음번엔 …!

ㅅㅅ!!!

너, 이놈…!
겨우 천진반 따위한테
방해를 받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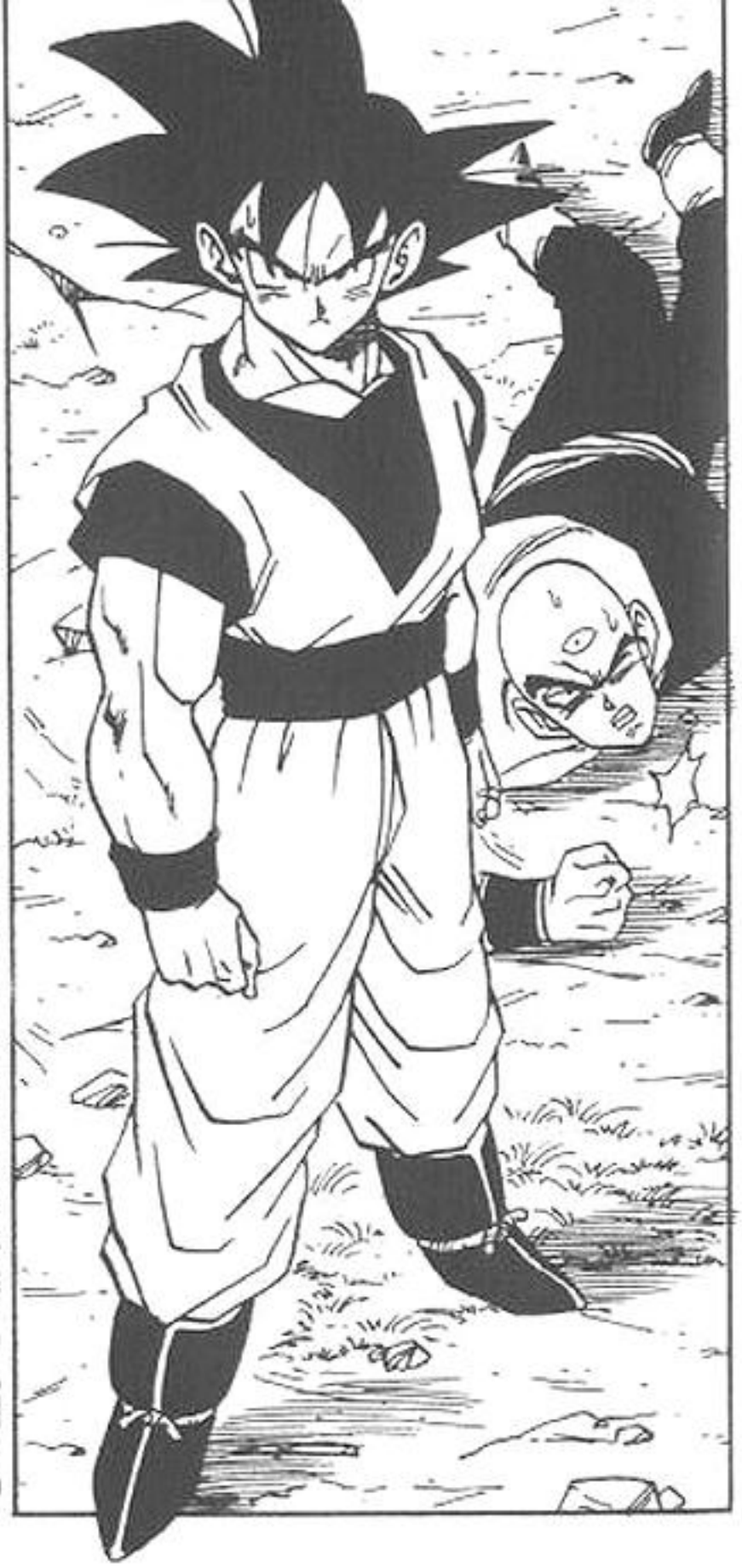
그냥 놔둬도
죽겠지만…,
내가 깨끗이
보내주지!


파앗

프슈슈

!!

손오공
…!!



지금
내 파워로는
하늘이
두쪽 나도
널 이길 순
없다….

어떻게 나타난
거지…?

네가
셀이냐…?

반드시
널 묵사발내서
떡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하루만
기다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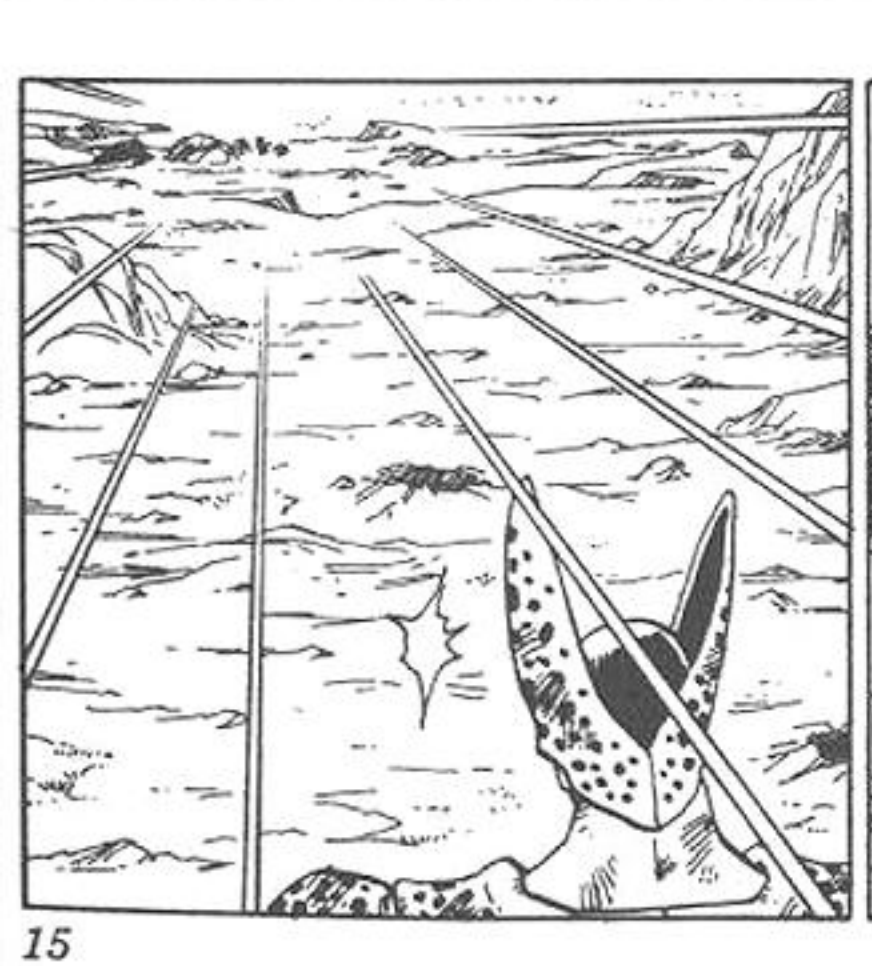
나랑 떨어지지 마!

뭐야?

피콜로의 기다! 피콜로는 아직 살아있어!

저기다!

휴슈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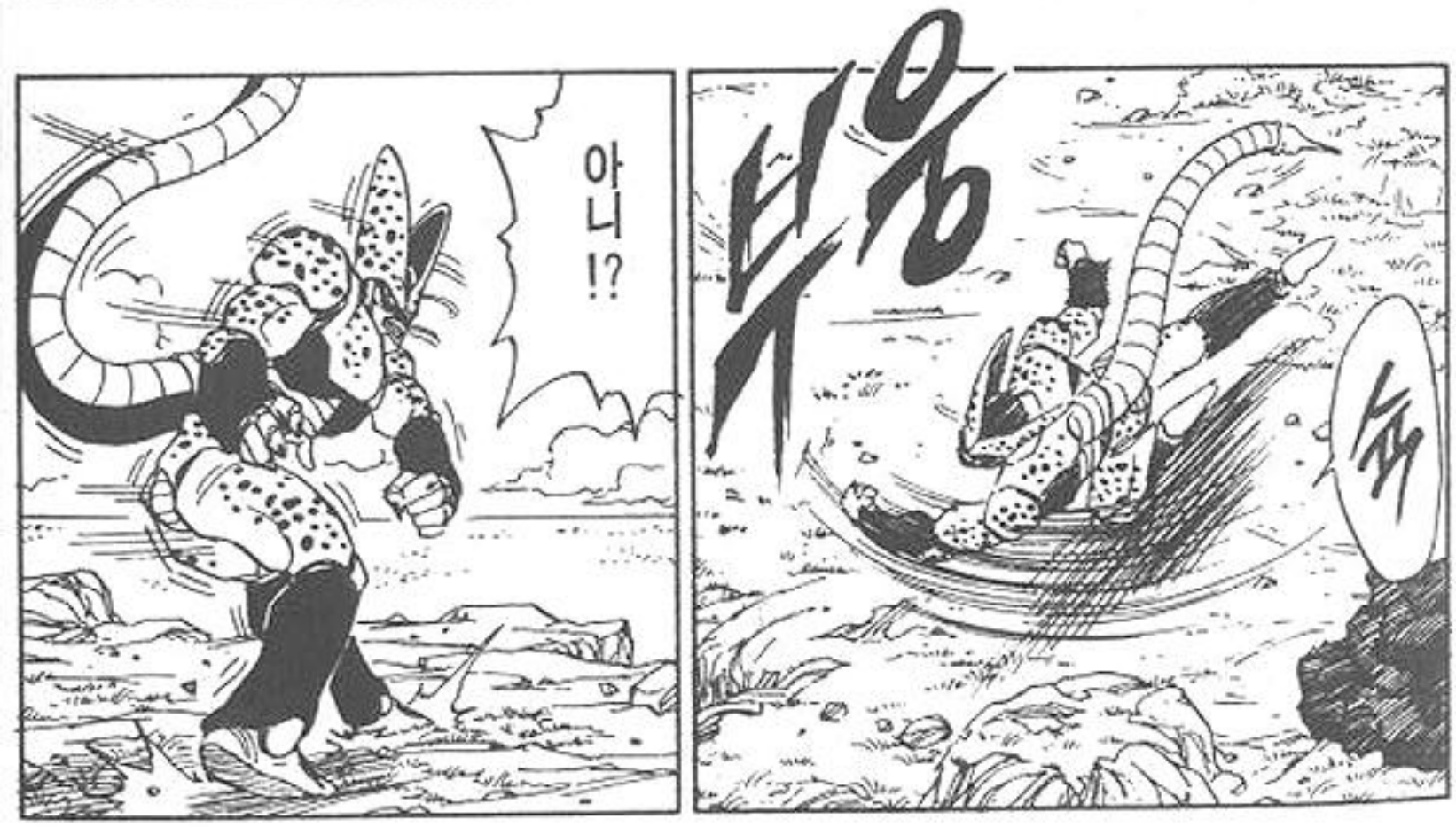


신님의 궁전에 돌아가면 카린 님에게 받은 선두가 있으니까!
둘 다 이제 걱정 마!

그것도 순식간에…
어떻게 이동한 거지?

그렇게는 안 되지…!
도망칠 생각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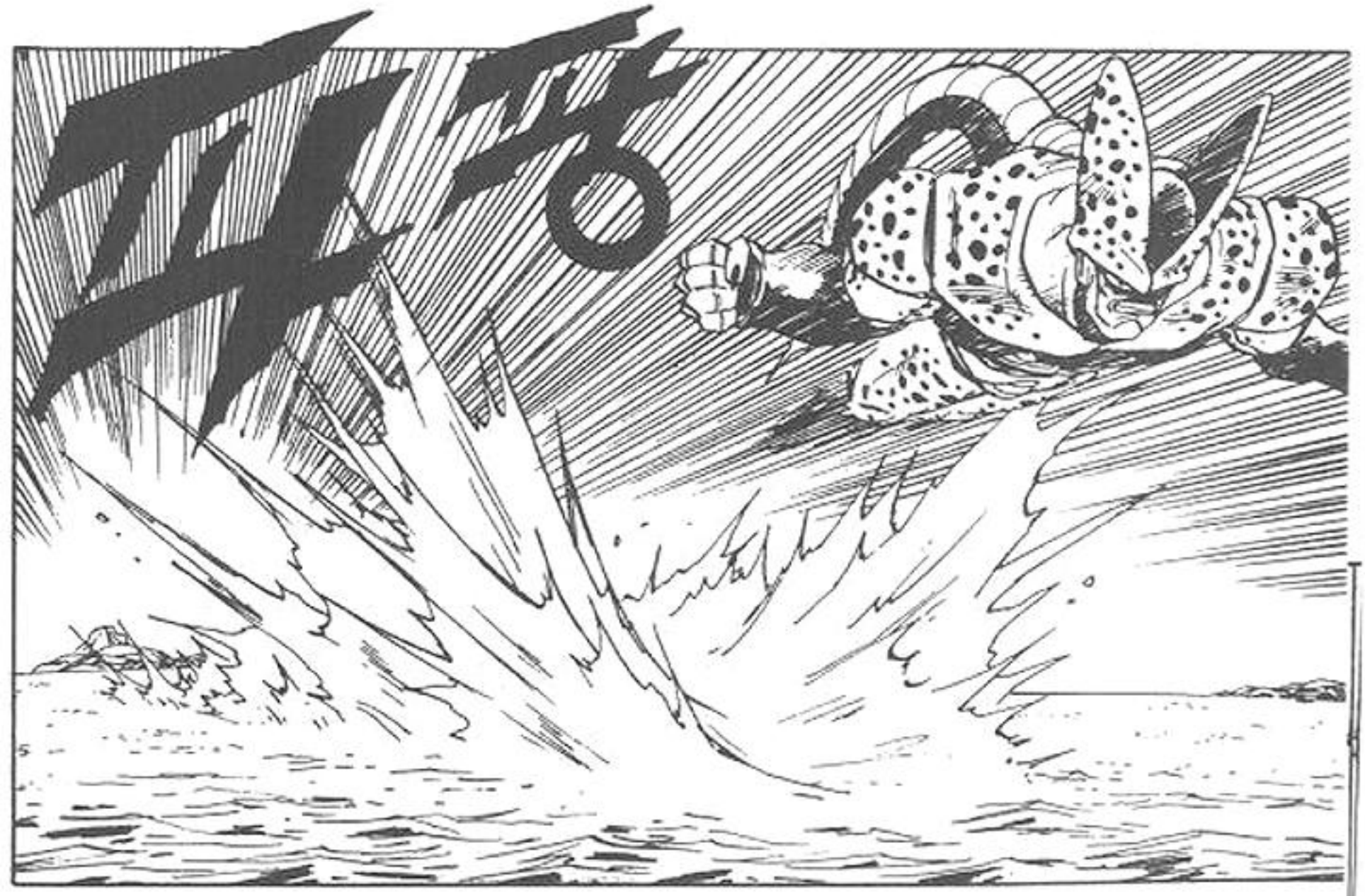
푸슈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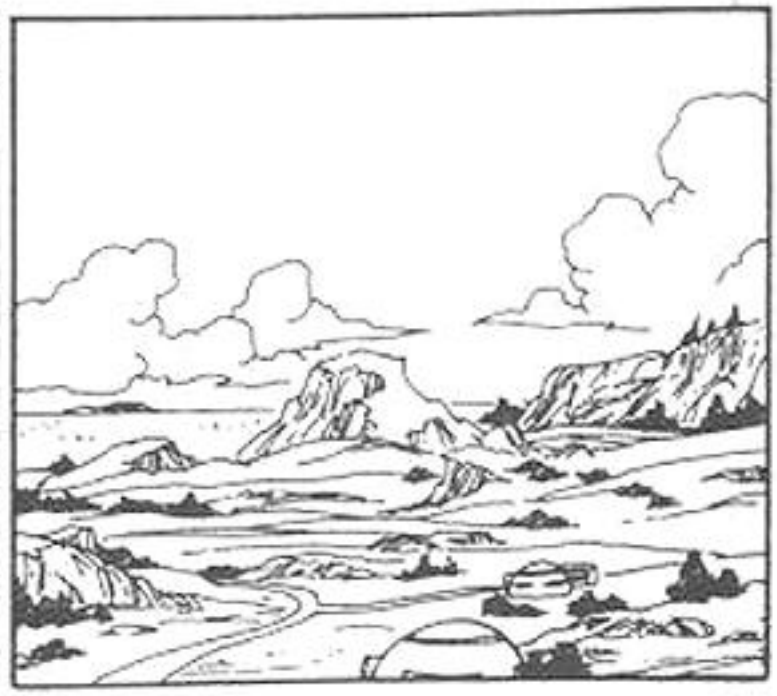

아니!?
부웅
슈

손오공이 어느 틈에 저런 기술을….
사라졌다…! 묘한 기술이네….

부서진 16호와 같이 있으니 그리 멀리는 못갔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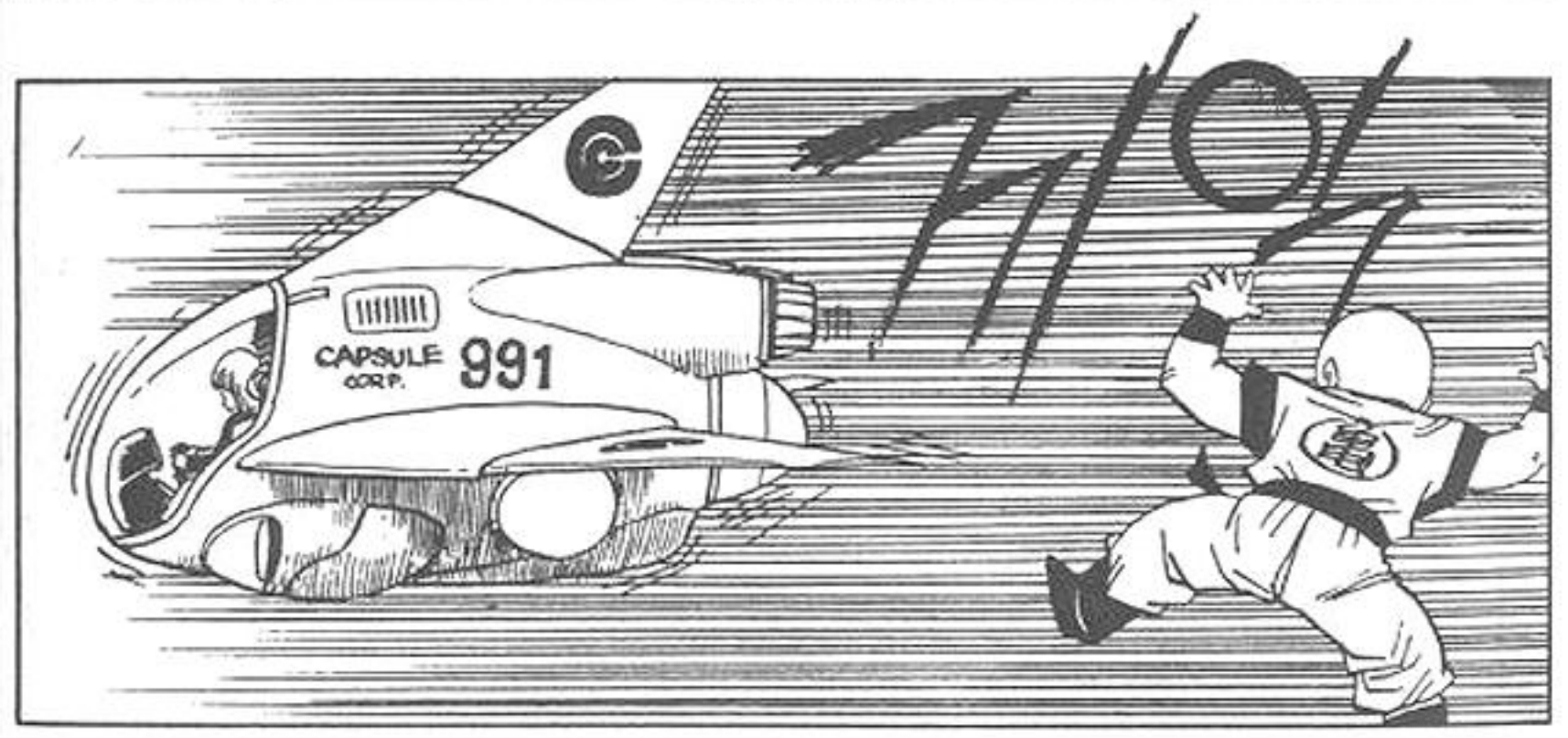
아차, 18호를 잡아야지! 지금 손오공 따위에게 신경쓸 겨를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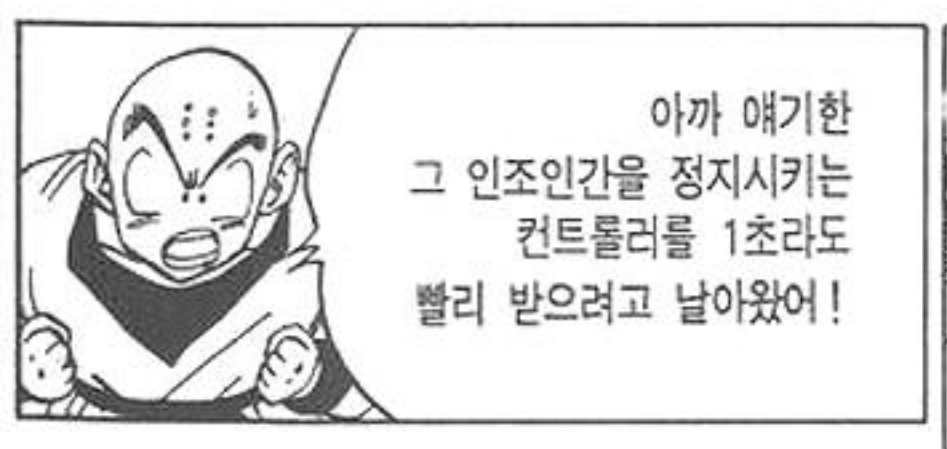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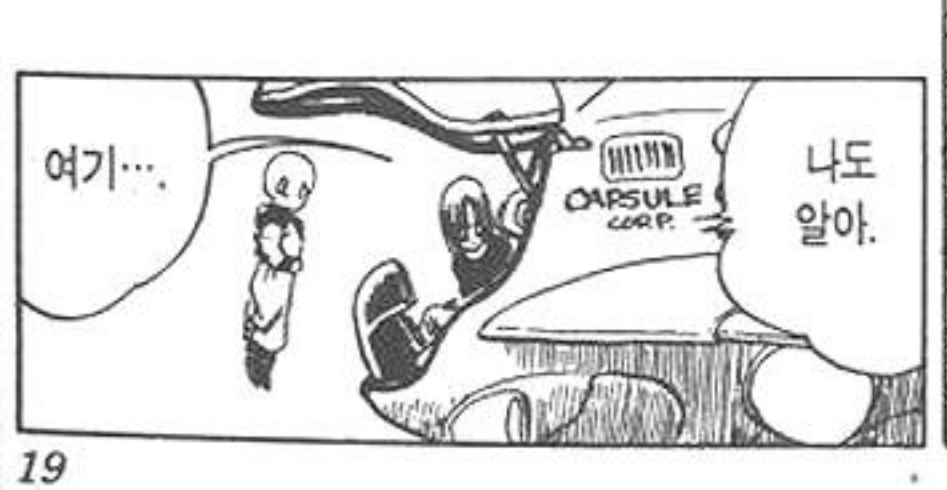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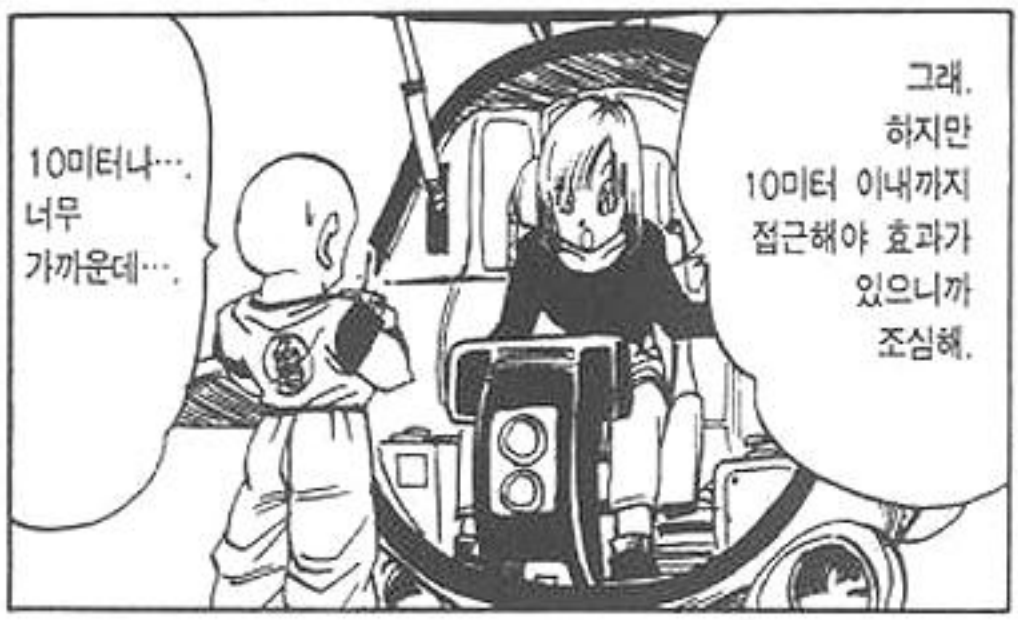
부르마다!


CAPSULE CORP. 991


아까 얘기한
그 인조인간을 정지시키는
컨트롤러를 1초라도
빨리 받으려고 날아왔어!

크리링!


여기….
CAPSULE CORP.
나도
알아.


10미터나…. 너무 가까운데….
그래. 하지만 10미터 이내까지 접근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조심해.

이게 컨트롤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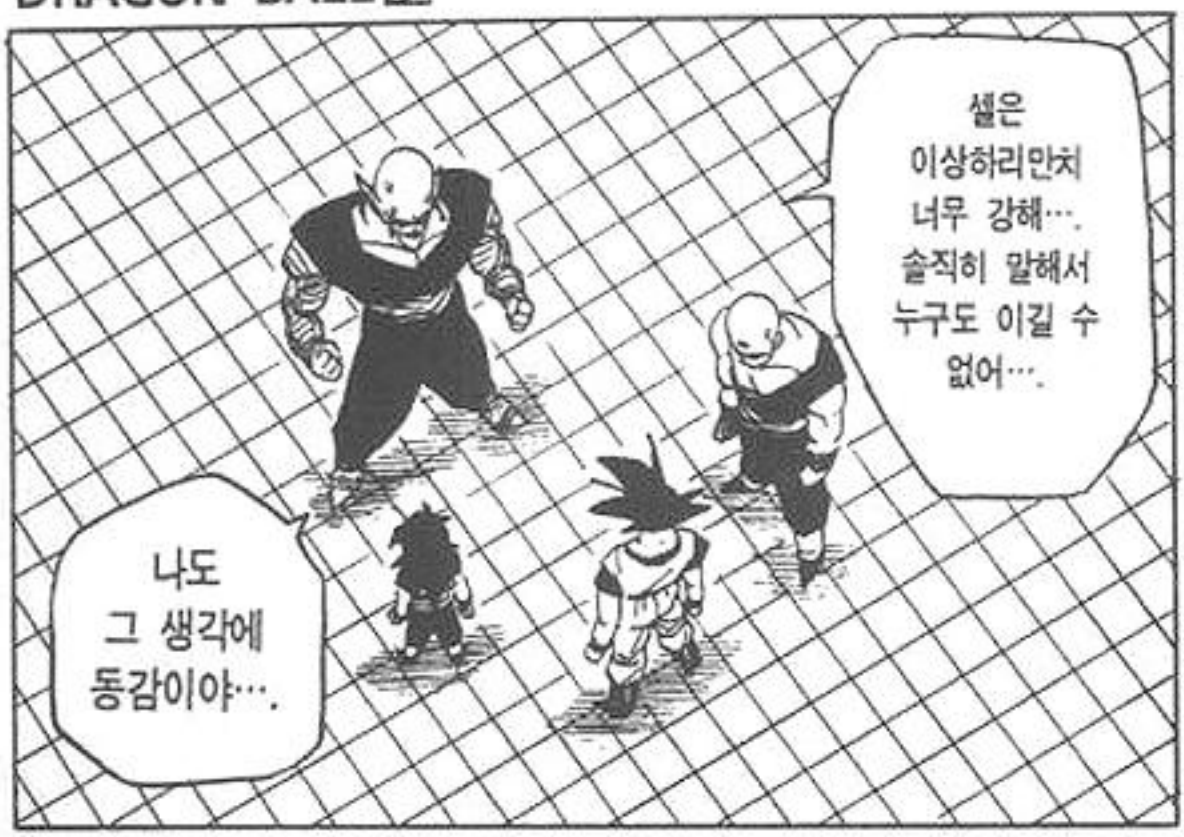
그건 지금 손오공이 필요한데….
지금 손오공은 신님의 궁전에 가있을 거니까 부르마가 직접 전해줄래?
예전에 베지터가 부탁한 것과 같은 전투복을 다른 사람들 것까지 만들어 놨어. 가지고 가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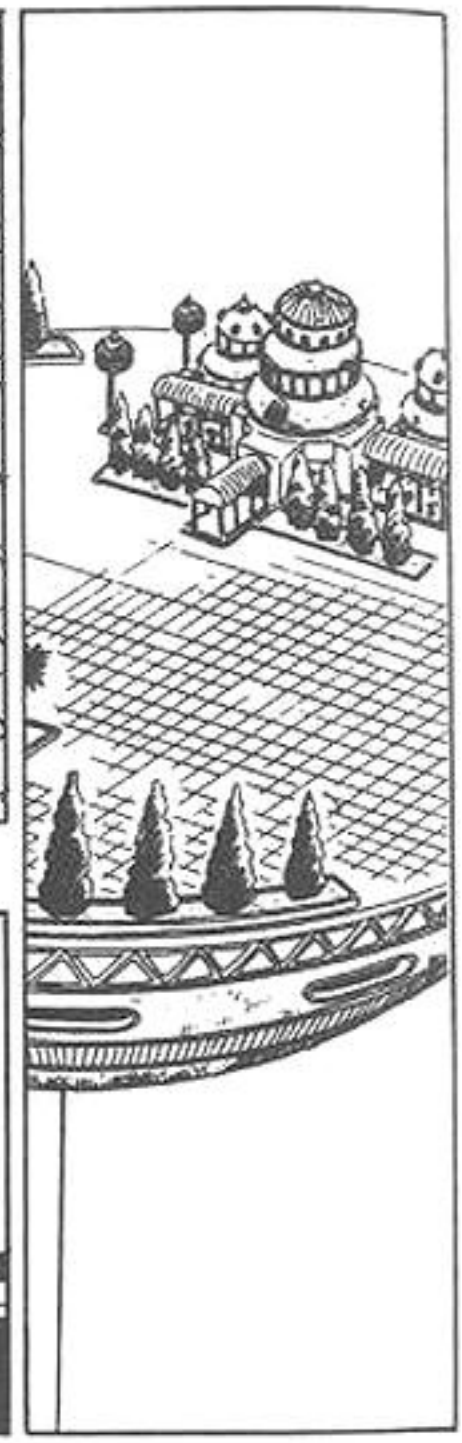
그리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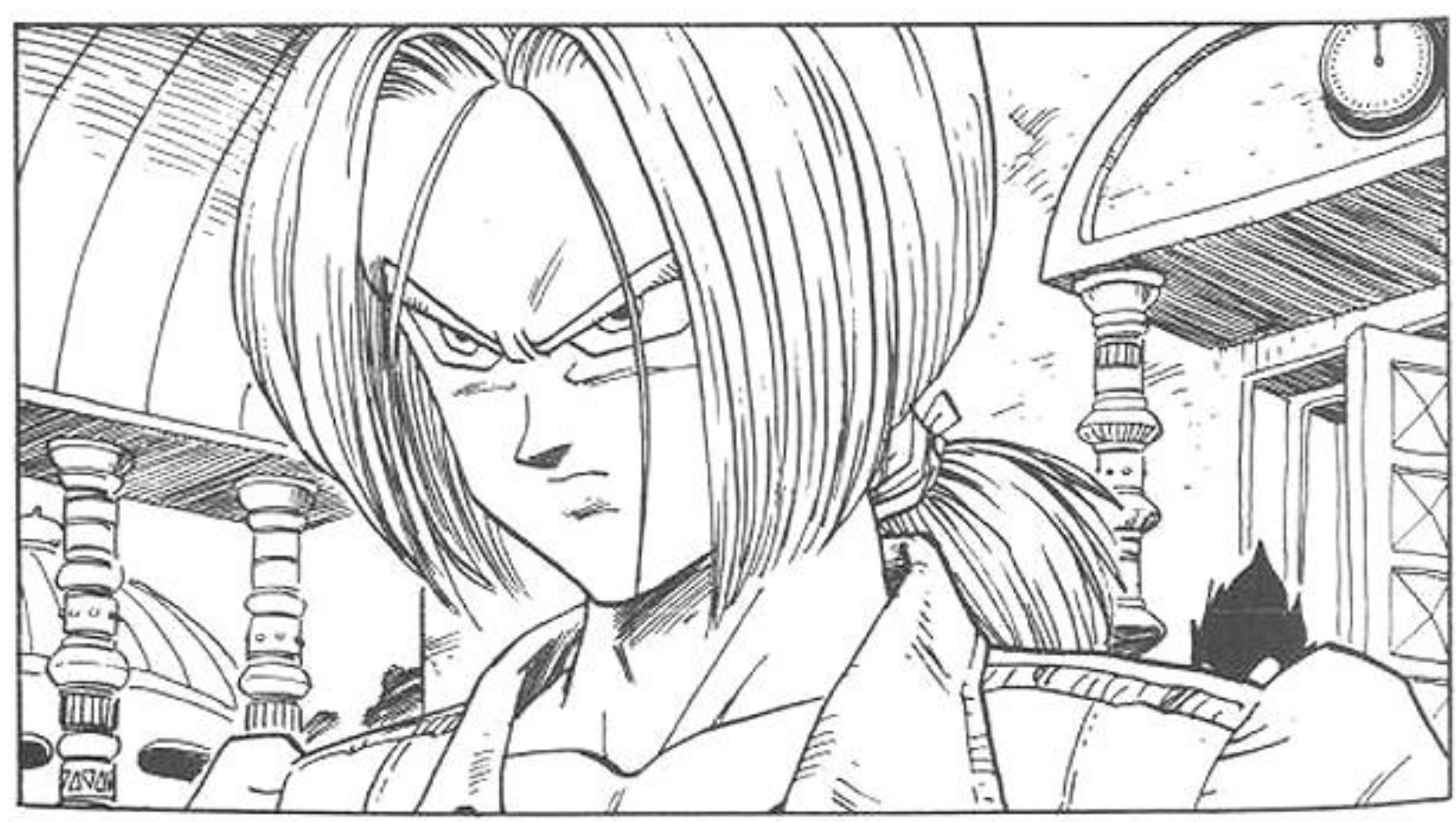
좋아! 내가 전해주지. 대신 크리링은 열심히 싸워서 꼭 인조인간을 파괴해줘.

기이이-----잉

신님의…? 분명 카린탑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지?
그래.







다음은, 제375화 베지터, 트랭크스 발진!!

진짜 오래 기다렸다구.

미안해, 너무 기다리게 해서….

아버지는 안에 들어가서 2개월 만에 이미 초사이어인의 한계를 넘은 것 같았는데….

하지만 그래도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시간이 걸려버린 거야….

베지터, 수련은 잘 됐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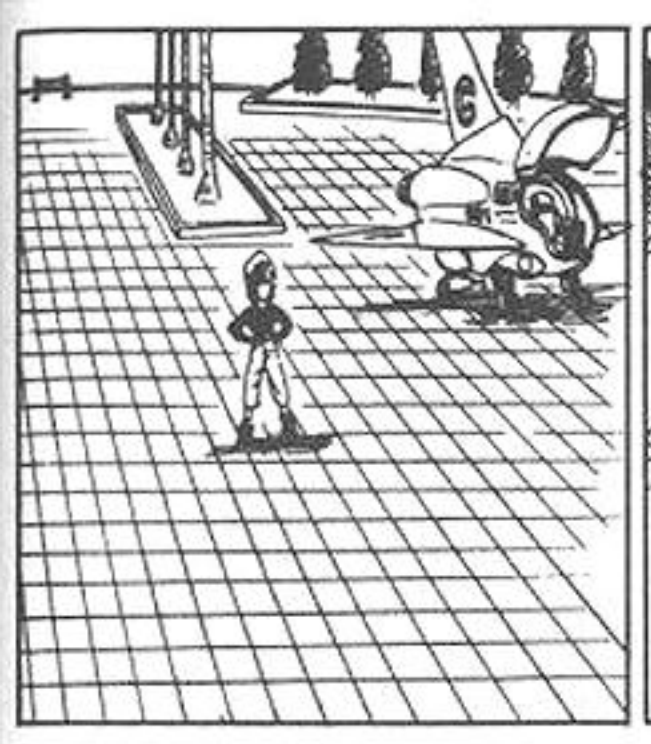
쓸데없는 얘긴 하지 마!
트랭크스!

이 몸이 몸소 모든 일들을 정리할 테니까. 셀도, 인조인간도 모두….
하지만…, 이제부터 네가 안에 들어가 수련해봤자 헛수고일걸….

글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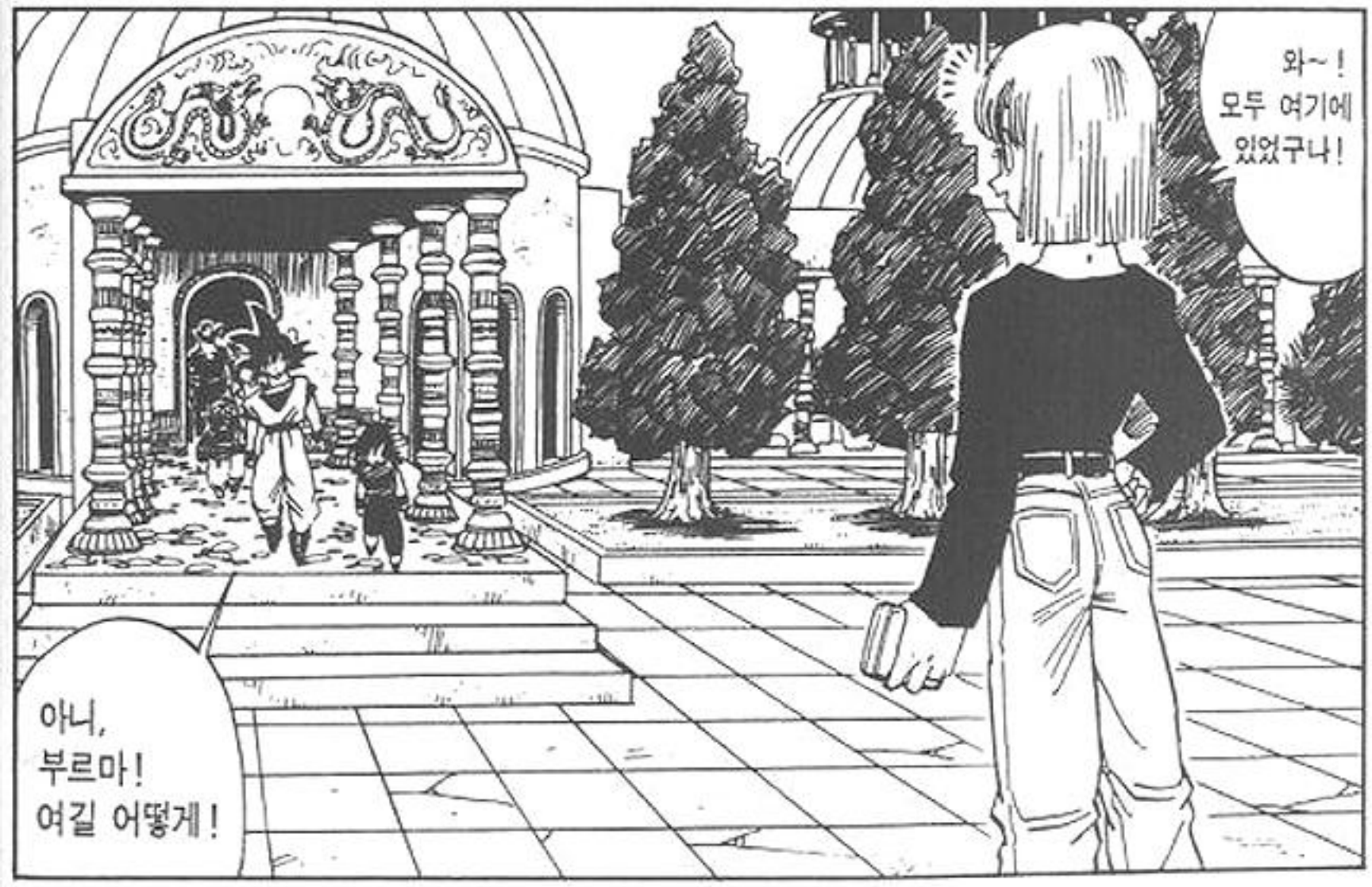
정말 엄청난 괴물이었다구.
난 방금 전에 17호란 녀석을 흡수하여 진화된 셀을 아주 잠깐 동안 보고 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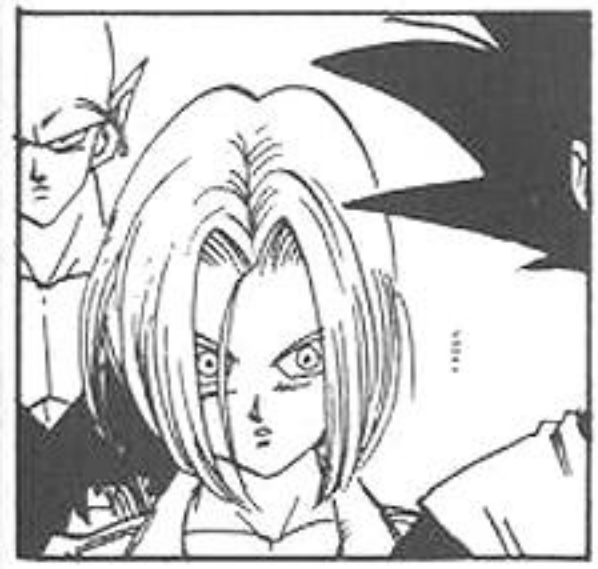
뭐라고!?



부르마 목소리다!

누구 없어요-! 모두들 여기 있는 건가-!?


와~! 모두 여기에 있었구나!
아니, 부르마! 여길 어떻게!



엥!?

전부 여기 있다고 해서.
크리링에게 듣고 왔어.

아니, 저….
왜 머리 모양이 변했니!? 가발 아냐!?
어머나-!? 키도 커졌네!?

예… 예.
너,
트랑
아니
맞

근데 너에 비해선 베지터의 머리 모양은 그대로네.

우와…!
신기한
밖에
안에

부르마, 도대체 여긴 뭐 하러 온 거야!
지금 그런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머리도….
와~!

태
변화

파앙

차칵

휘익

다른 사람 것도 만들게 했거든. 그걸 가져왔어.
아참, 그렇지. 여기 베지터한테 부탁 받아서 만든 그 전투복이야. 방위력이 굉장히 높더라구.

늬들은 왜 안 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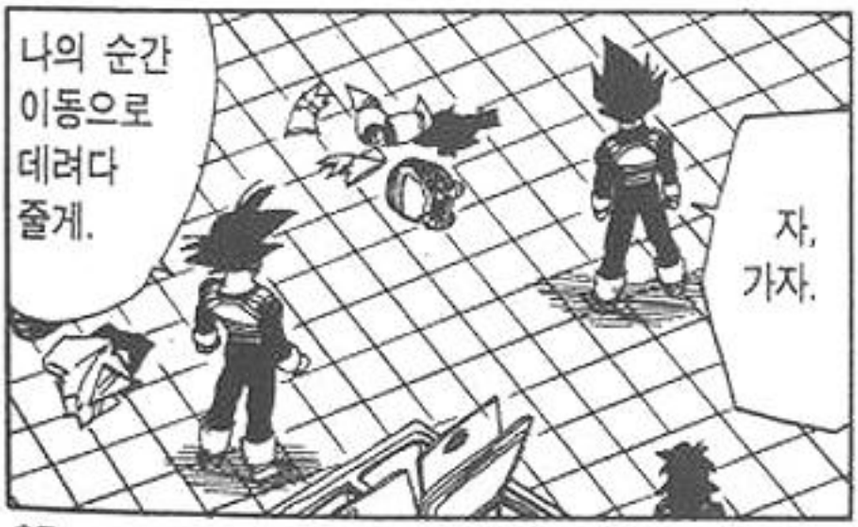
난 사이어인이나 프리더 패거리가 입던 옷 따위는 맘에 안 들어.

우와~! 이거 생각보다 가벼운데….
난 나메크성에서 입어봤으니까 오랜만이다.

카카로트…, 넌 그 옷을 입어봤자 소용없어. 쓸 데가 없을 테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

까
굴지
이 옷은 상당히 움직이기 편하다구.

물론 그게 가장 좋겠지.
네가 셀을 처치할 거니까 그렇단 거지?


나의 순간 이동으로 데려다 줄게.
자, 가자.

꺼떡대지 마.
네 힘 따윈 빌리고
싶지 않다.

그럼…, 나도 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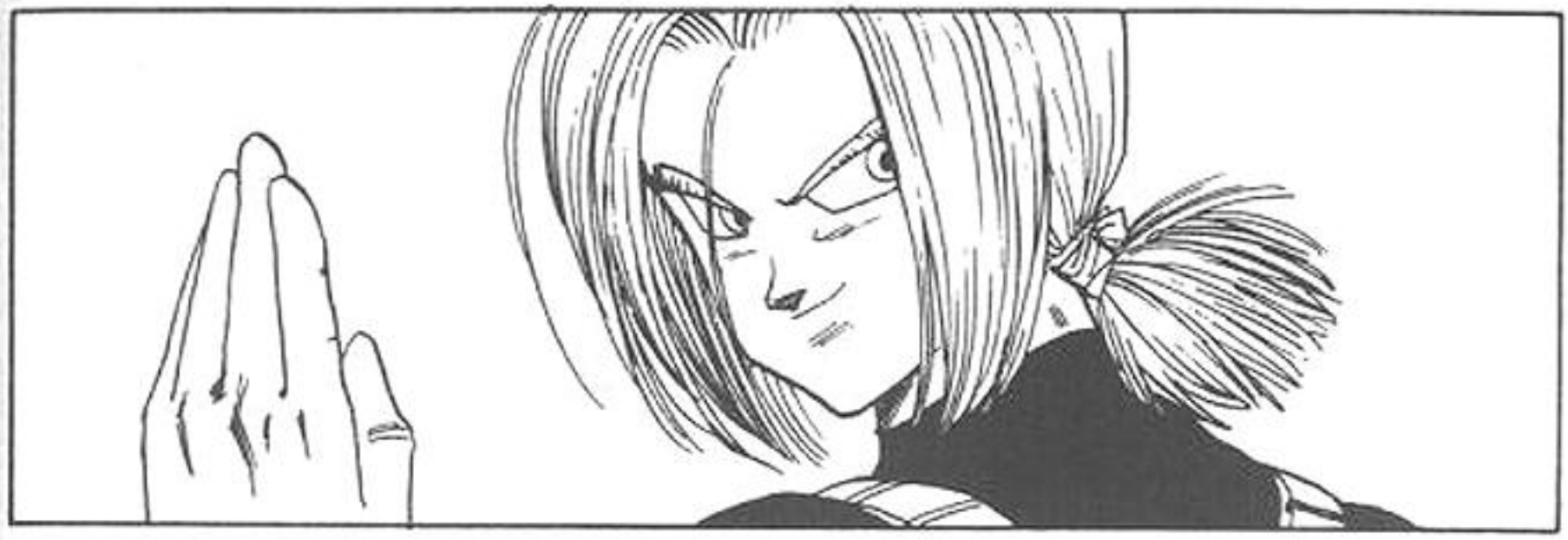
저런, 저런…. 여전히 고집불통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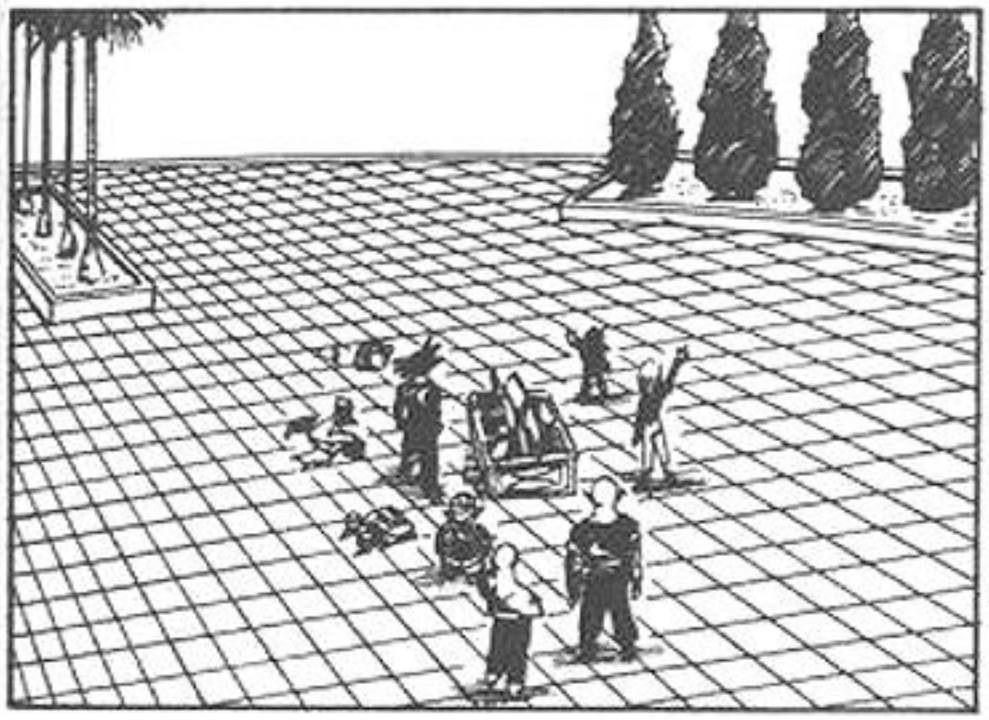
너무 미안한걸.
베지터와 네 몫의 선두다. 가져가.

아, 잠깐 기다려.

두 사람 다 절대 죽으면 안 돼.
명심해!

응, 여러 가지로 너무 고마워. 오공 아저씨도 열심히 수행해.
잘해다오! 그러나 무리는 하지 마! 위험하면 도망쳐, 알았지?





휘이이이이이이

자, 오반!
이번엔 우리 둘이 수행할 차례다!
옛!

ドッ

그놈들
스피드라면 벌써
따라 붙었을
텐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얘기는….

분명 이 근처
어느 섬에
숨어있는 것
같군….

좋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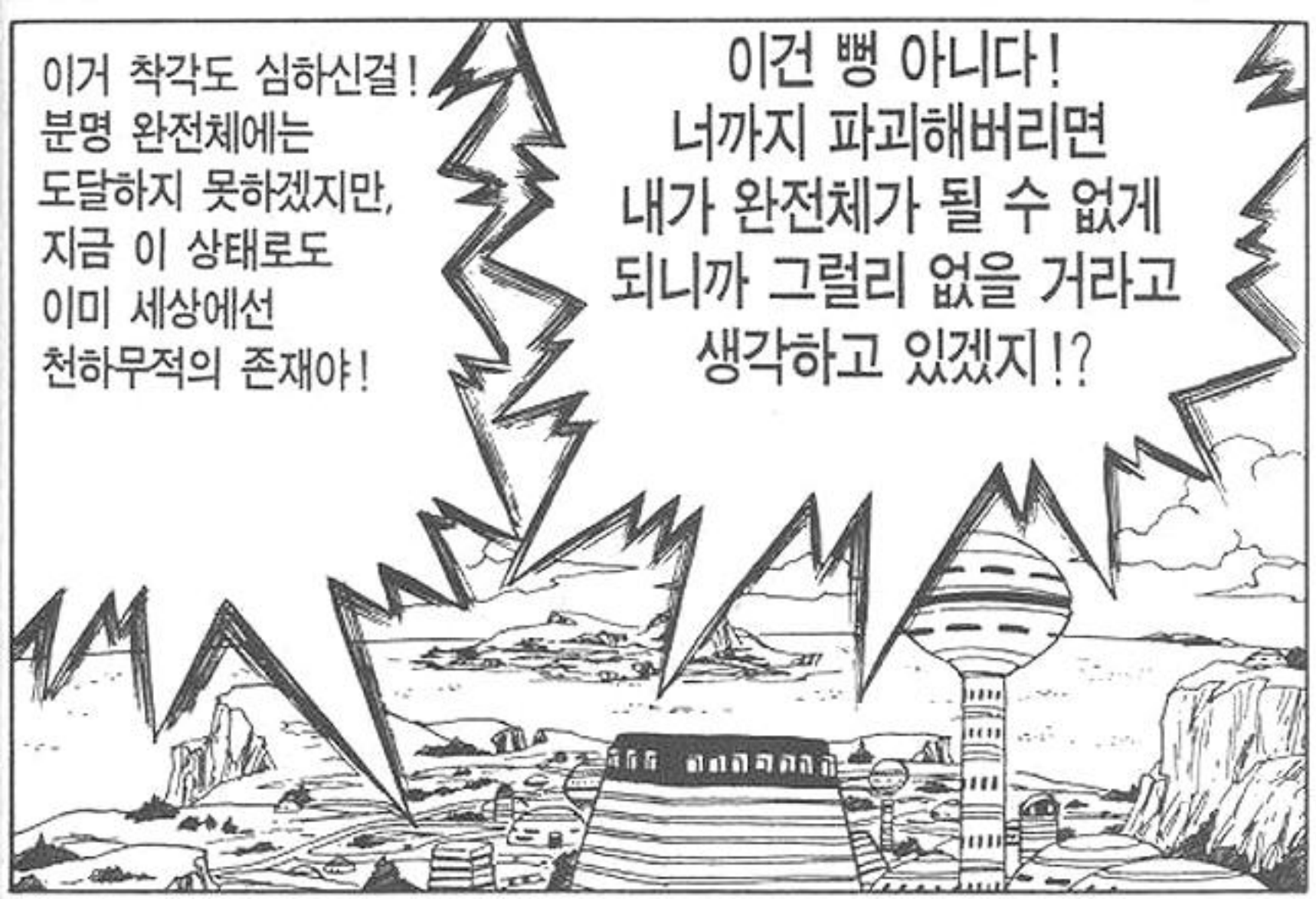
들리냐, 18호!?
모습을 나타내라-!
나타나지 않으면
섬을 차례로 파괴하겠다!
알았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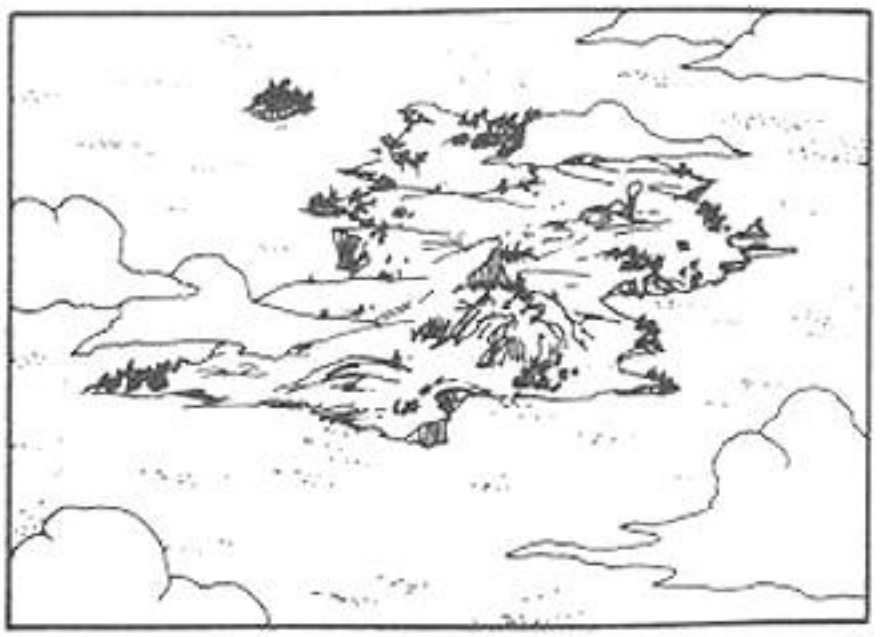
윽

바보…

이거 착각도 심하신걸! 분명 완전체에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이미 세상에선 천하무적의 존재야!

이건 뻥 아니다! 너까지 파괴해버리면 내가 완전체가 될 수 없게 되니까 그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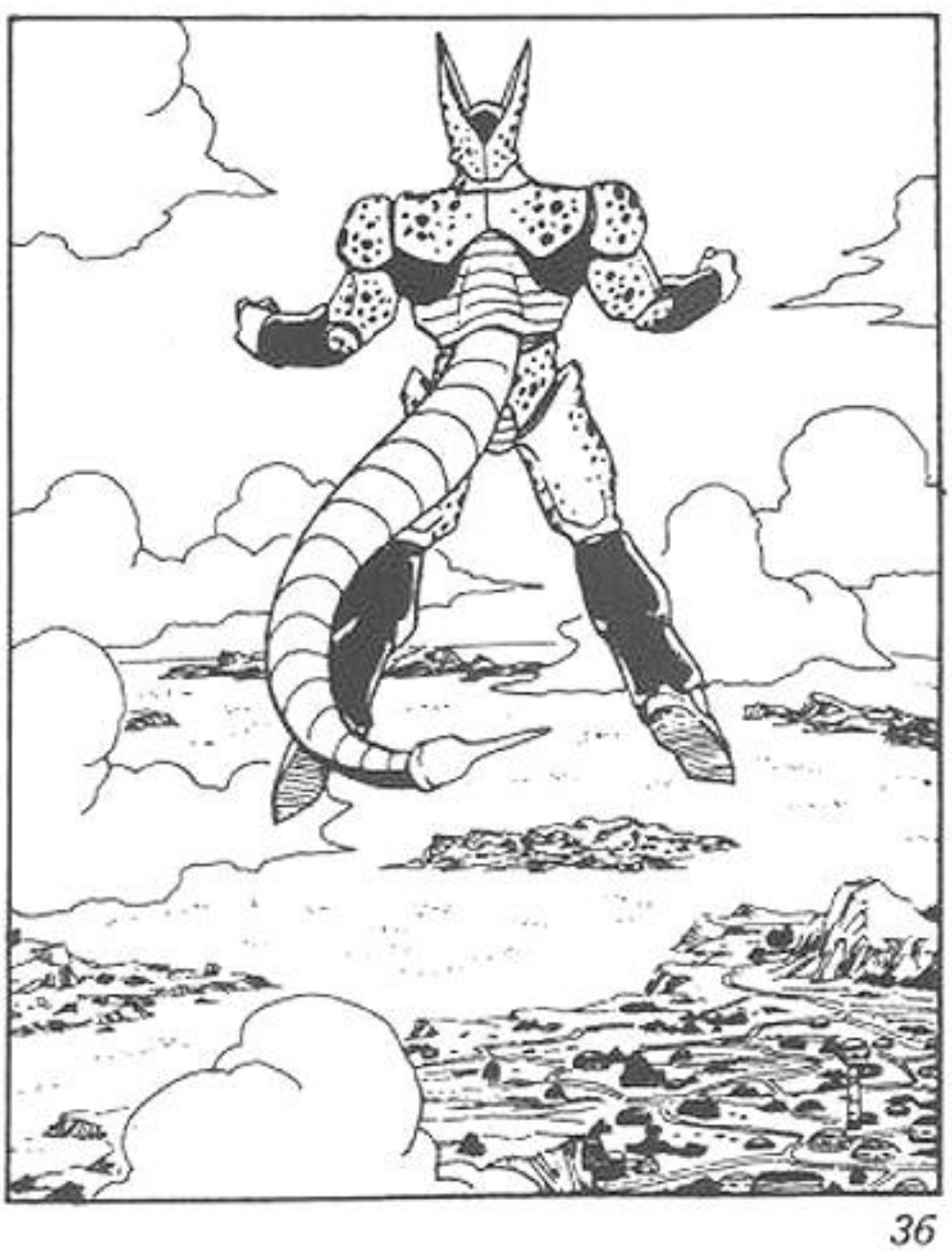




다음은, 제376화 베지터의 자신만만!

빨랑 나오란 말야, 18호— !!

자, 나와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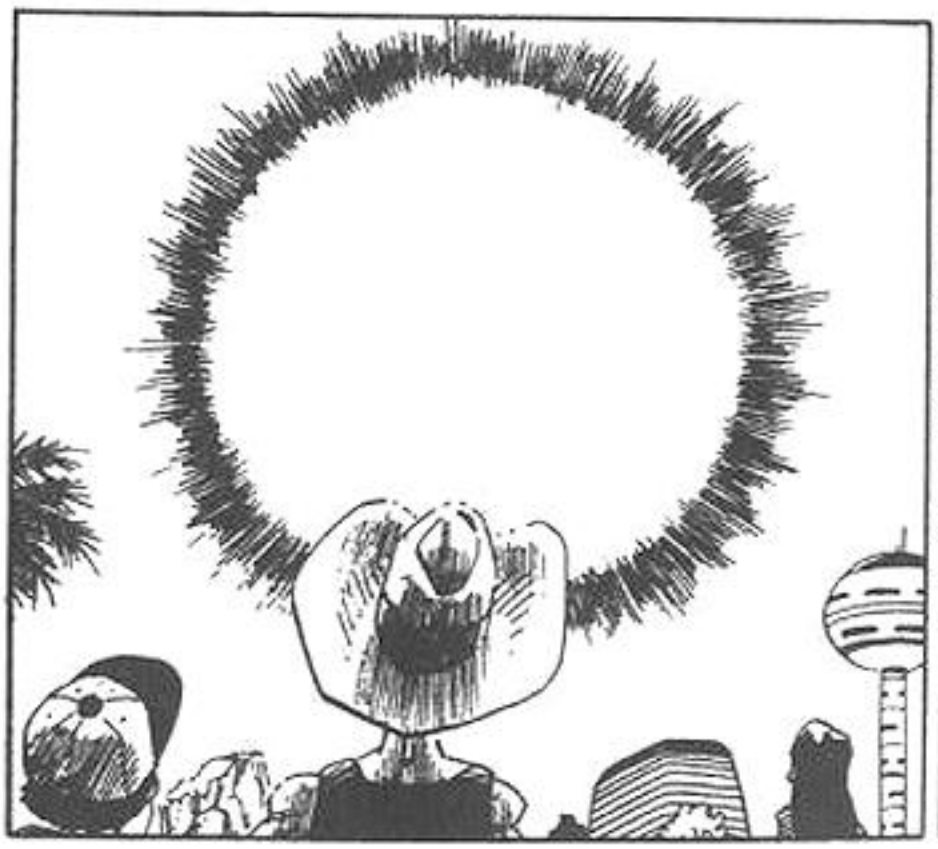


저… 저봐. 저게 아까 그 큰소리를 지른 녀석인가봐.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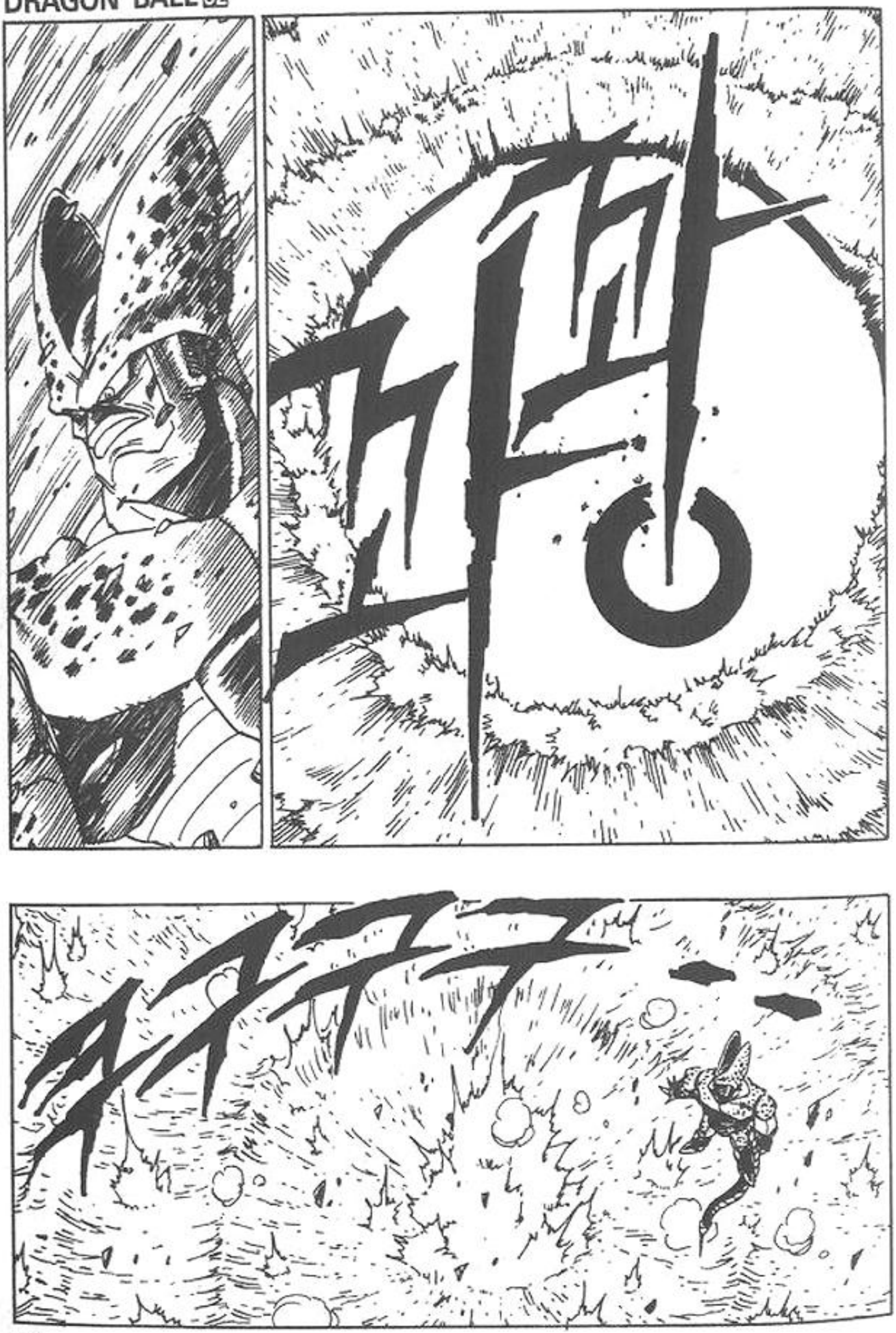
좋아! 그럼 우선 저 섬부터 날려 버릴까나.

호…, 혹시 악마 아냐…!
어… 어떻게 하늘에 떠있는 거지…?

……



어라!?



그렇다면 다음 섬이다! 아직 모습을 나타낼 생각은 없냐!?

곧 네가 숨어있는 섬도 너와 함께 사라져 없어질 거다!

이 섬엔 없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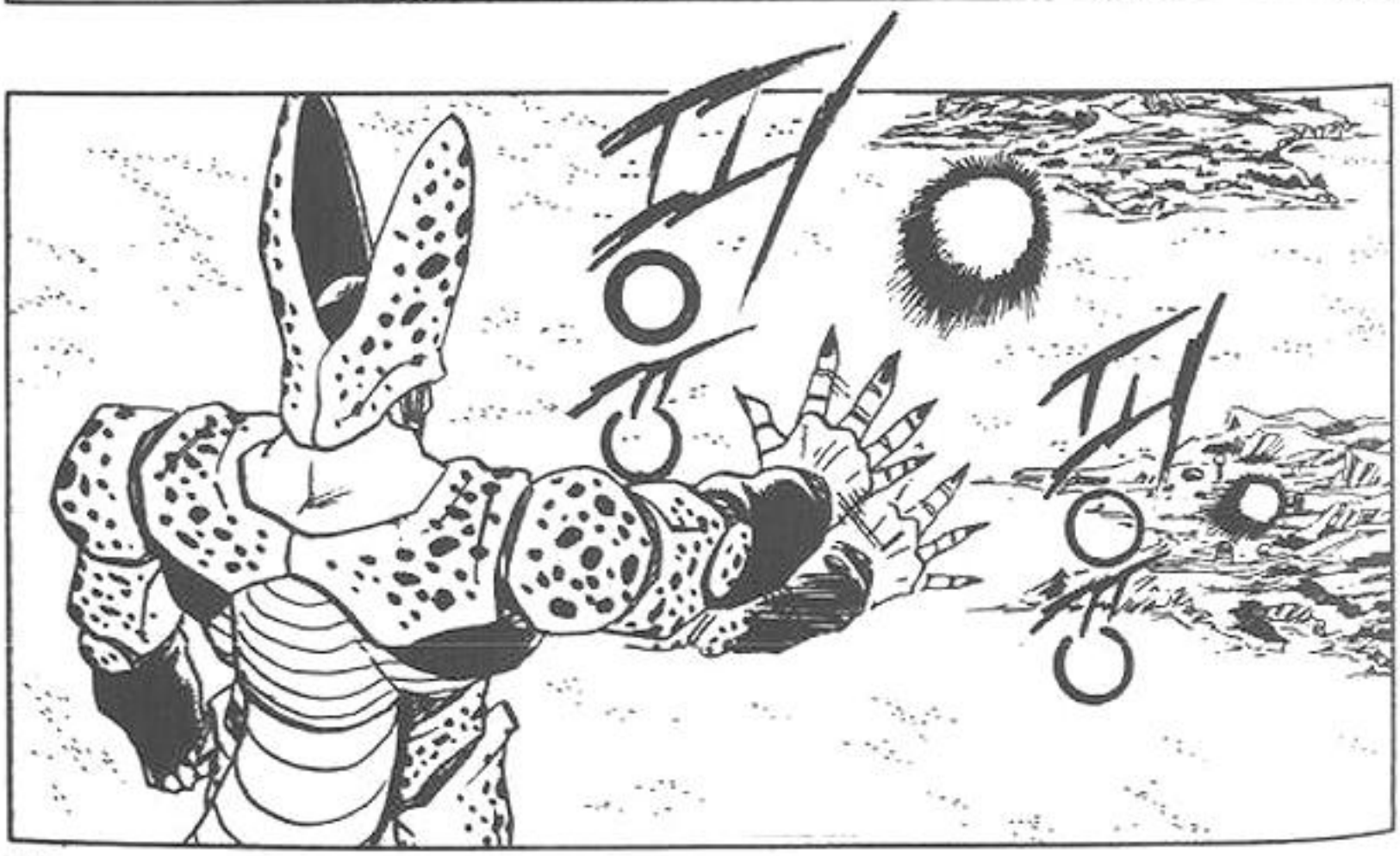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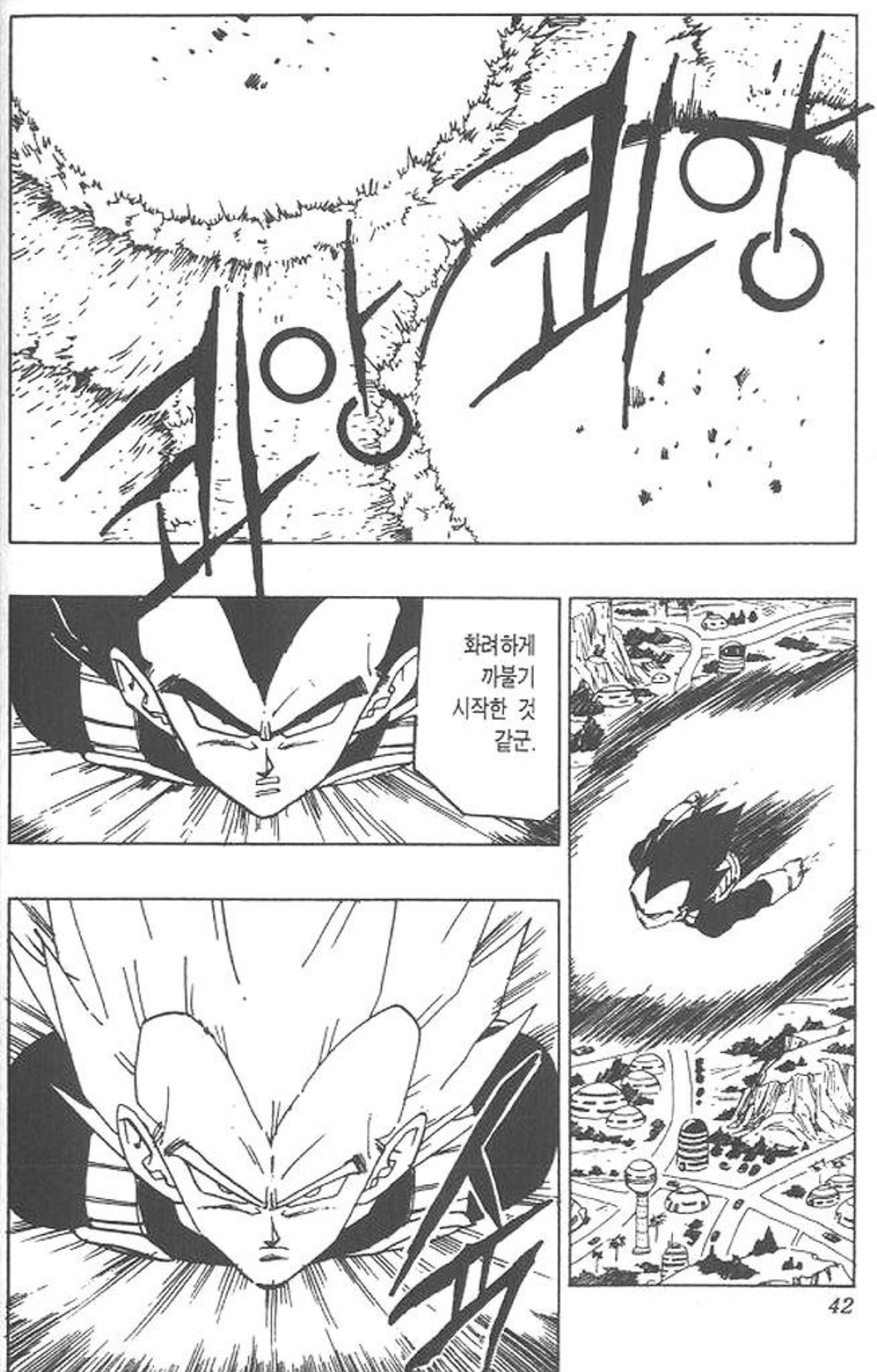
16호, 어떡하지…? 저 녀석이 정말 섬을 파괴하기 시작했어!

난 괜찮지만
넌 위험하단
말야!

그 녀석은
끝까지 널
흡수할
속셈이야…
걱정 마…
셀은 18호가
죽지 않을 정도로
공격하고 있어…
R R

이미 무적의 힘을
손에 넣었다…
전 우주에 셀과 상대할 수
있는 자는 이제 없을 텐데…
단지 순수하게 궁극의
힘을 찾고 있는 것
뿐인가…?
셀은 왜
이토록 완전체에
매달리는 거지…




화려하게
까불기
시작한 것
같군.

H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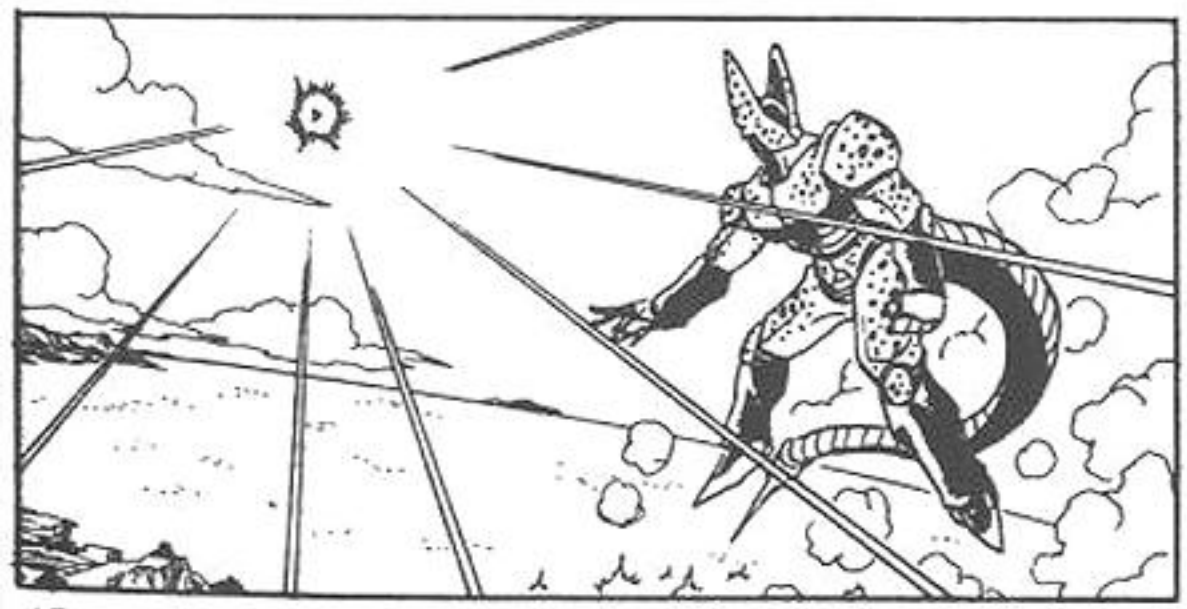
KOF

이대로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있어! 너만은 절대 흡수되어선 안 돼!
셀은 섬에서 움직이는 자만을 노리고 있다!
이제 바로 옆의 섬까지 당했네!
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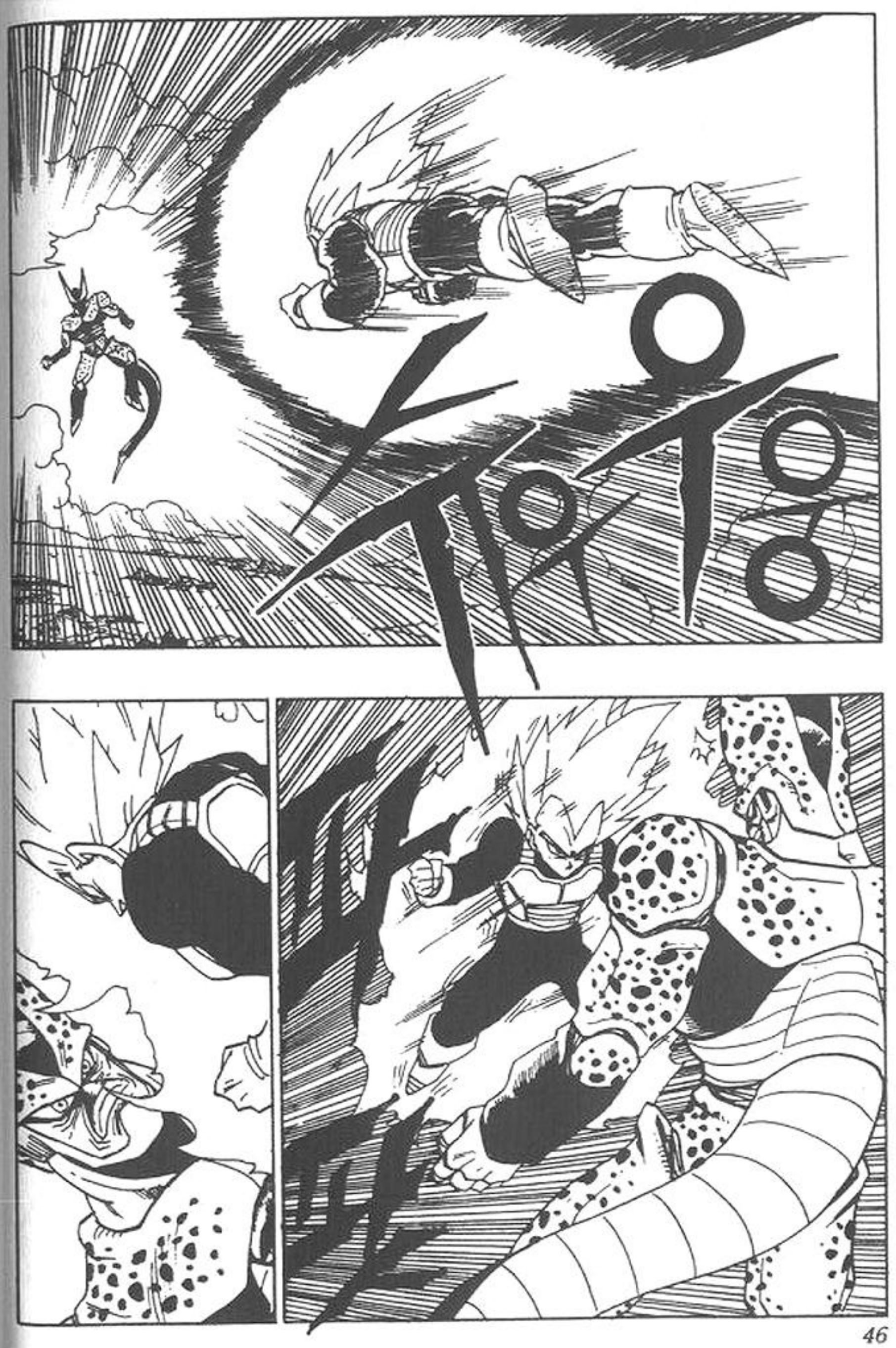
아무튼
이 근처 바다의
섬을 모두
찾아볼 수밖에….

바다속으로
도망쳐도
헛수고란 건
알고 있을
테고….
놈들이
안 나오네….
분명 이 근처의
섬에 있을
텐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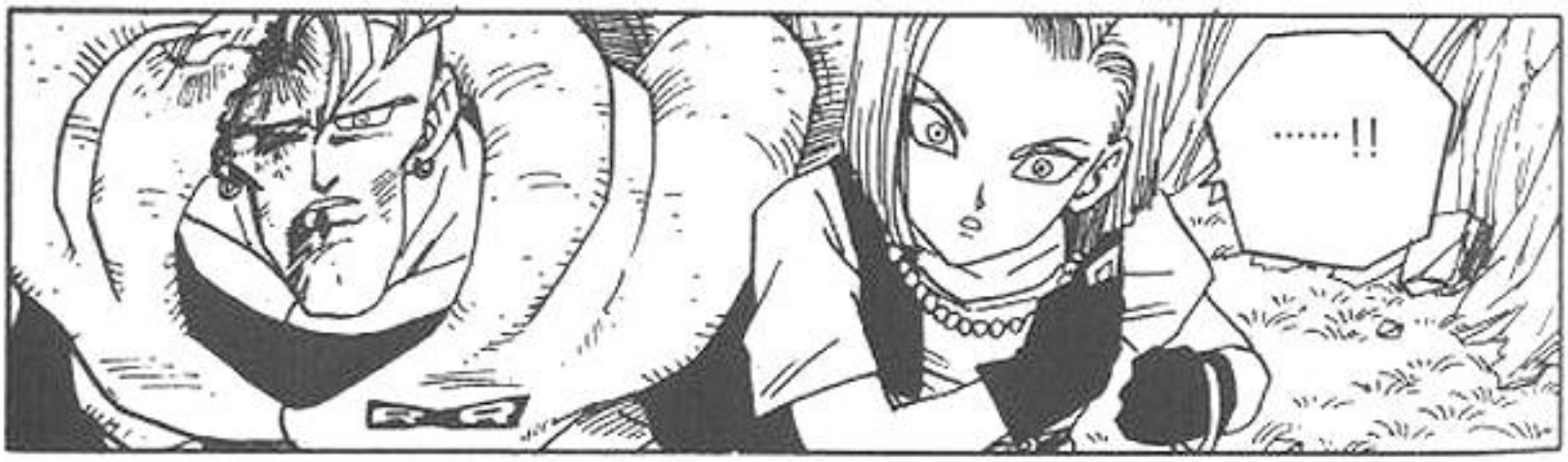
냐


KOTO

내려
가자.

네놈이
셀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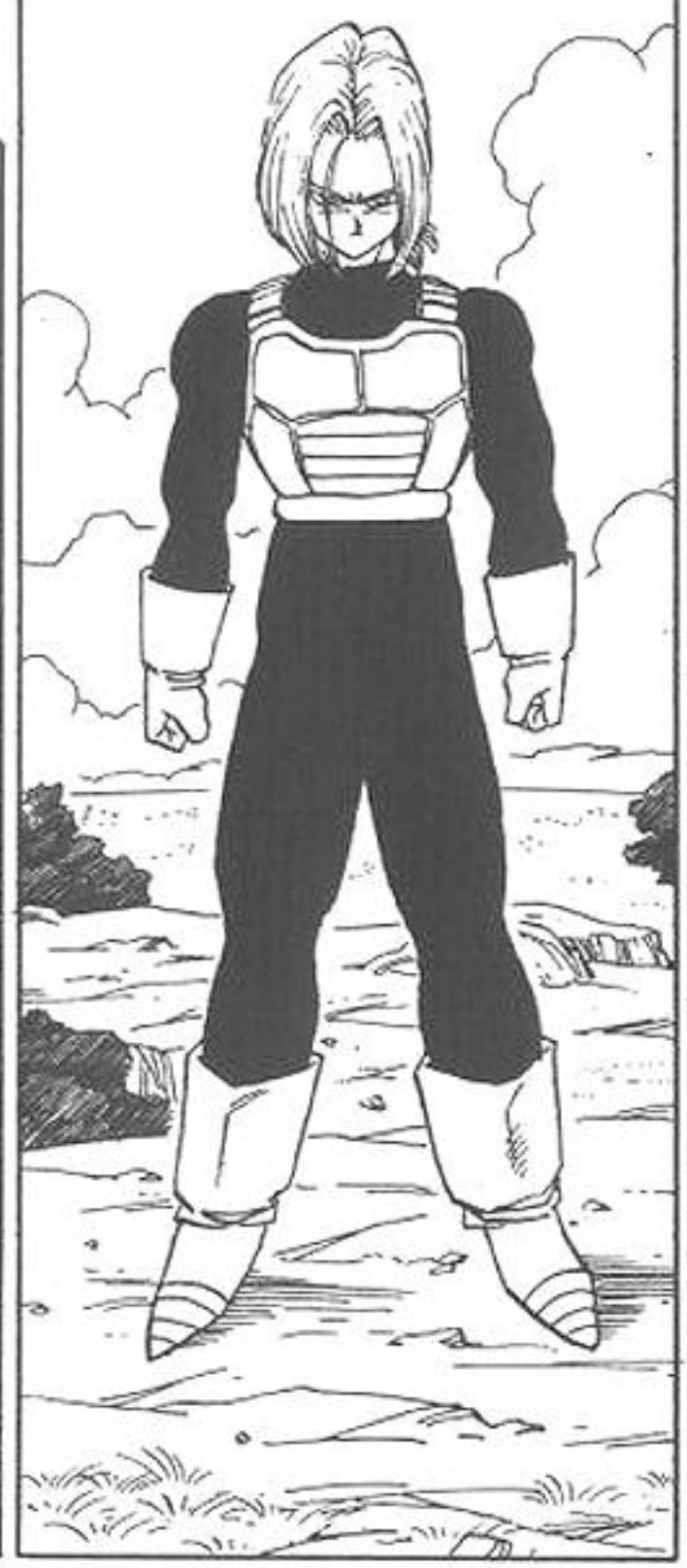
베지터
…!
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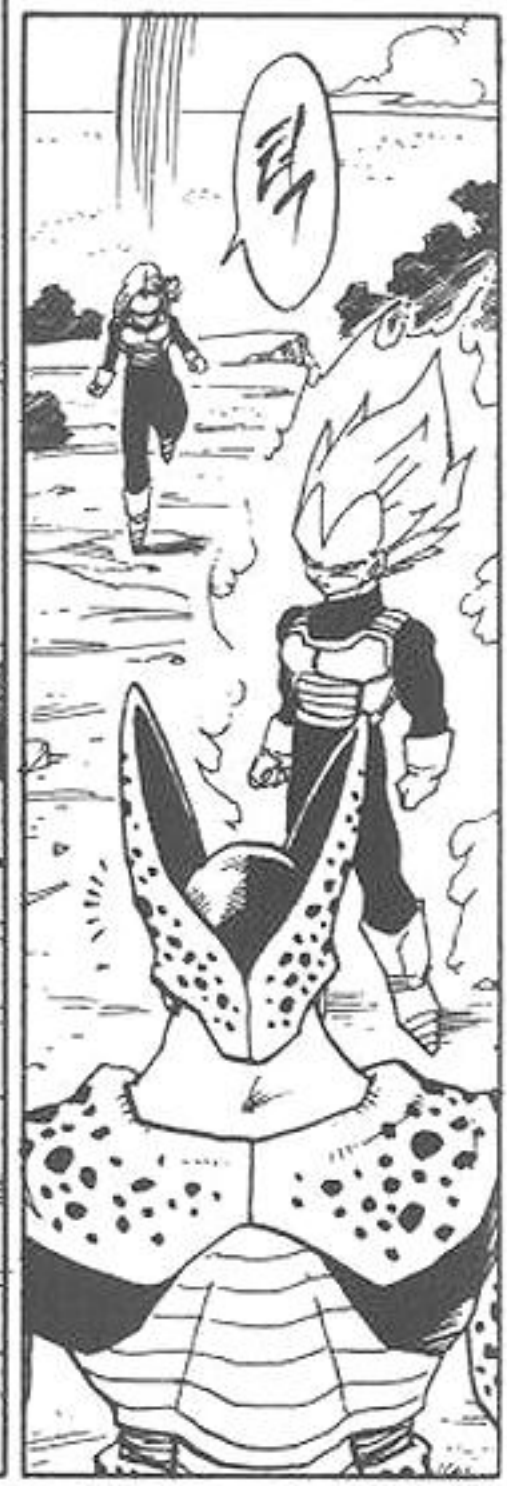

……!!

베지터가!

탁
타아

일부러 여긴 왜 나타나셨나…?
설마 날 꺾기 위해 왔다는 따위의 잠꼬대나 하러 온 건 아니겠지.
단순히 널 꺾으려고 온 게 아니야….
흔적도 없을 만큼 먼지가루로 만들어 주겠다.
크크큭…. 네가? 나를?
내 세포가 너처럼 추한 괴물한테 이용된다니, 진짜 쇼크 먹었다….
더이상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구….
재 완전 맛이 갔나봐…!
나한테도 쪽을 못쓰던 녀석이 지금의 셀을 상대로 뭘 어떻게 하겠단 거지…!





다음은, 제377화 손오공와 손오반

날 먼지로 만드는 것이….

뭐라고라? 너 지금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지껄였냐!?

크크큭…. 불만은 없지만, 단지 너무 멍청한 농담에 기가 막힐 뿐이다.

그렇다. 뭐 불만 있나?

그치만 16호.
지금이 도망칠
찬스일지도
몰라!

베지터 실력으로는
하늘이 두쪽 나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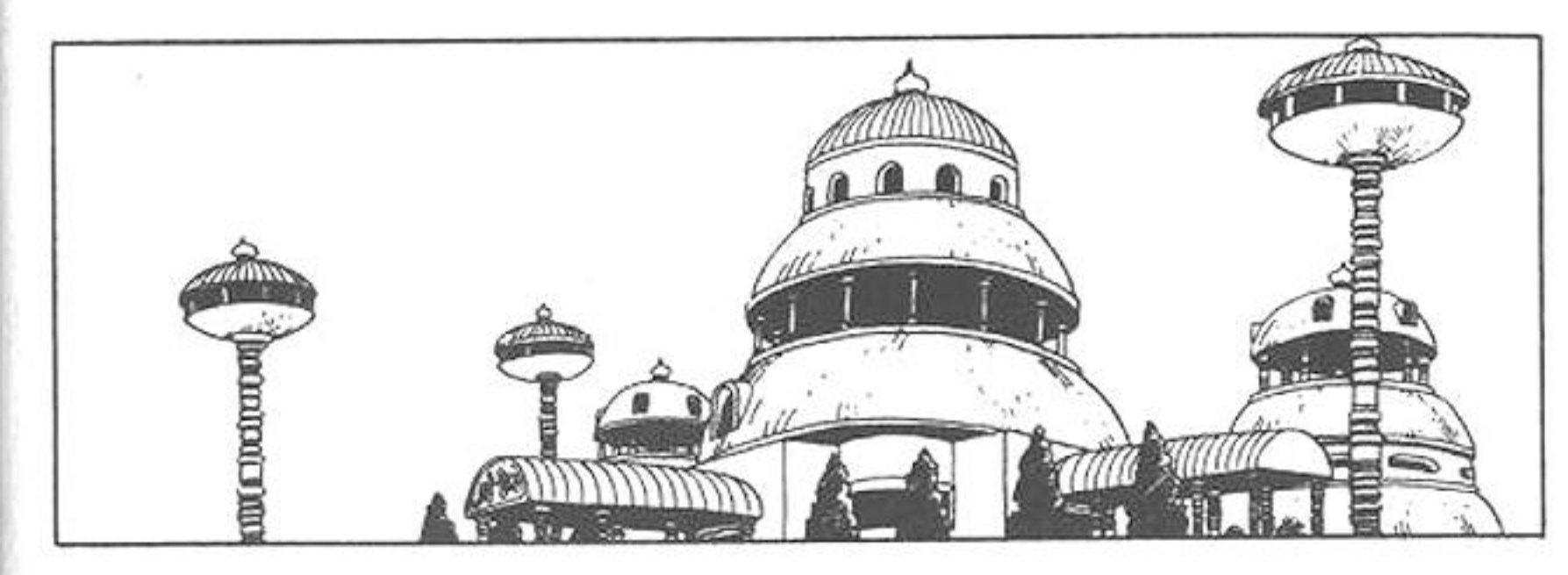
엥….
설마….
그런 단기간에
변할 리가 없겠지.
우리와 싸울 때도
전력을 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좀 묘한걸….
베지터의 전투
파워가 전보다
놀라울 정도로
상승되어
있는데….
기다려….
전투가
시작된
다음에
움직이자….

너의
그 재수없는
비웃음을
당장 지워주마!
눈 씻고
잘 봐라,
셀!

아버지가 벌써 "변신"할 모양이네…!
하아 아아— !!
그걸로…!!

이놈
이놈…



기가 점점…, 계속 증가해 간다…!
시… 시작 됐다….

!!

초사이어인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그 엄청난 힘을…!
베지터, 어디 보여다오….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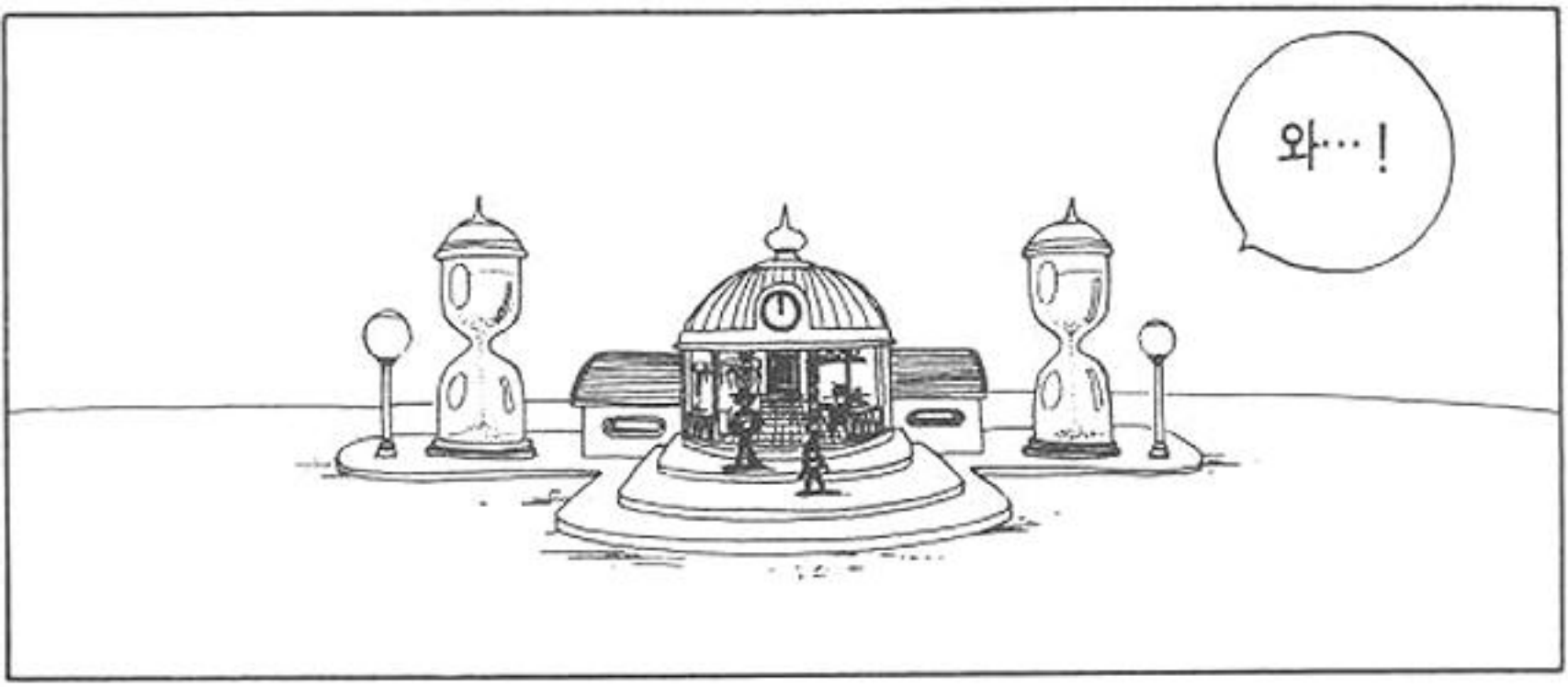
지…, 진짜 굉장한 기다…!

방문을 닫아 버리면 완전히 외부 세계와는 차단되어 버린다.
이거 봐. 벌써 베지터와 셀의 기도 느껴지지 않잖아.

모… 모든 게 전부 새하얗네….
모…, 몸도 무겁고. 더… 더워서 숨쉬기가 괴로워…!

밖으로 나가봐. 내가 어렸을 때 미칠 것 같아서 1개월도 참지 못했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을걸.

왼쪽이 욕실과 화장실이고, 저쪽이 식량창고다.


와…!

지구 넓이와 똑같은 것 같아.
너무 멀리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이 장소를 찾지 못하고 평생을 헤매다가 죽을 지도 모르니까.

분명 좁은 방안이었는데, 이렇게 넓은 장소가….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게… 게다가 아무 것도 없어.

우선 오반을 초사이어인으로 만들어야지.
빨리 수련을 시작하자. 우린 놀러온 게 아니잖아.

이… 이런 곳에서 1년씩이나….

여긴 굉장히 힘든 조건이야. 기온은 5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변화한다.
공기는 지상의 4분의 1정도이고, 중력은 10배나 되는 새하얀 세계….

우선 초사이어인이 돼야 해. 본격적인 수련은 그 다음부터다.
물론이지. 너의 몸에도 당당한 사이어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 그게 가능할까…?
내… 내가 초사이어인이 된다구….

하지만…, 오반이 초사이어인만 되면 나한테도 연습 상대로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나 나의 더 커다란 목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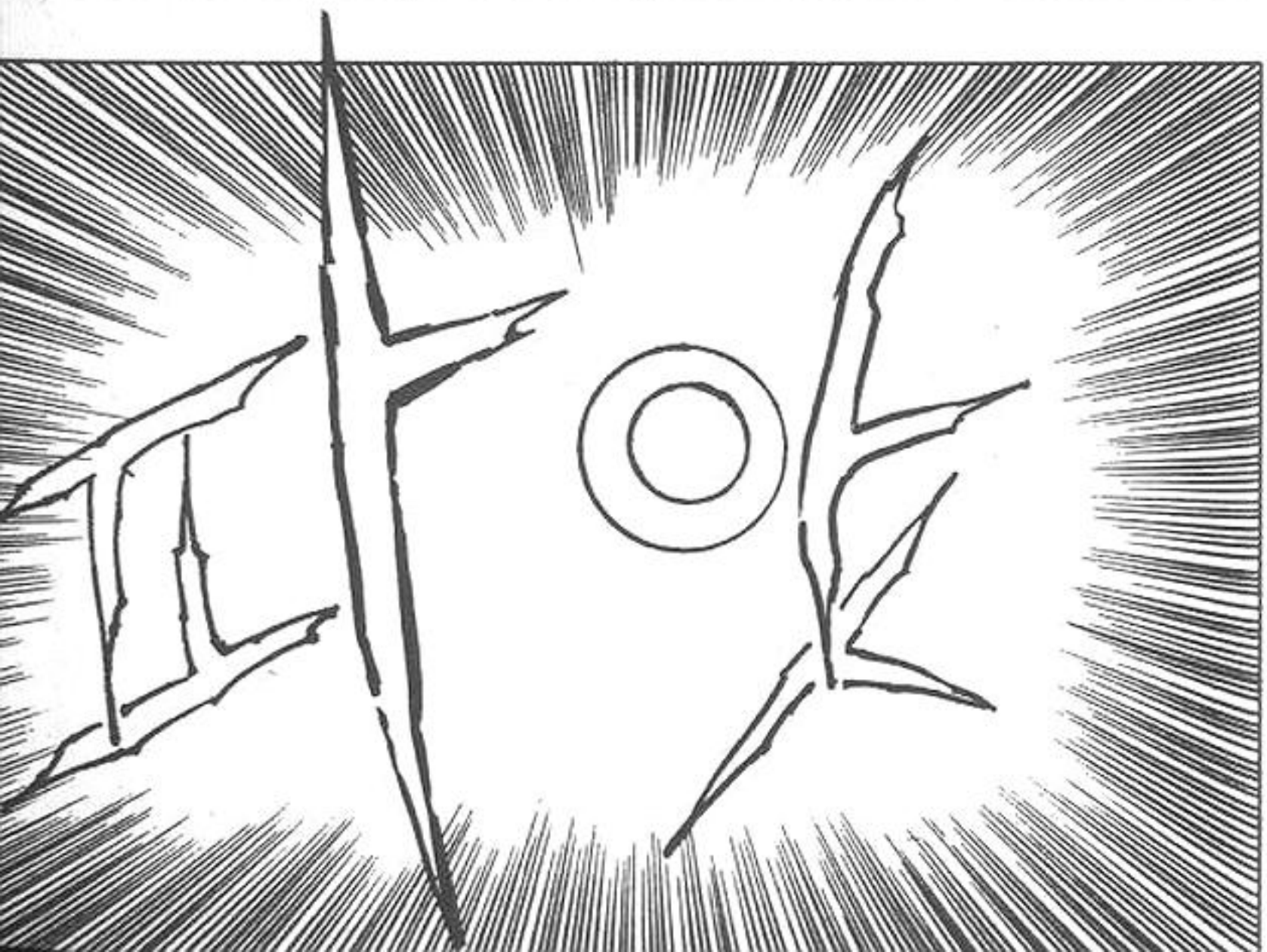
호…, 혹시 내가 아빠의 수련에 방해 되는 건 아냐…?
뭐, 처음엔 그렇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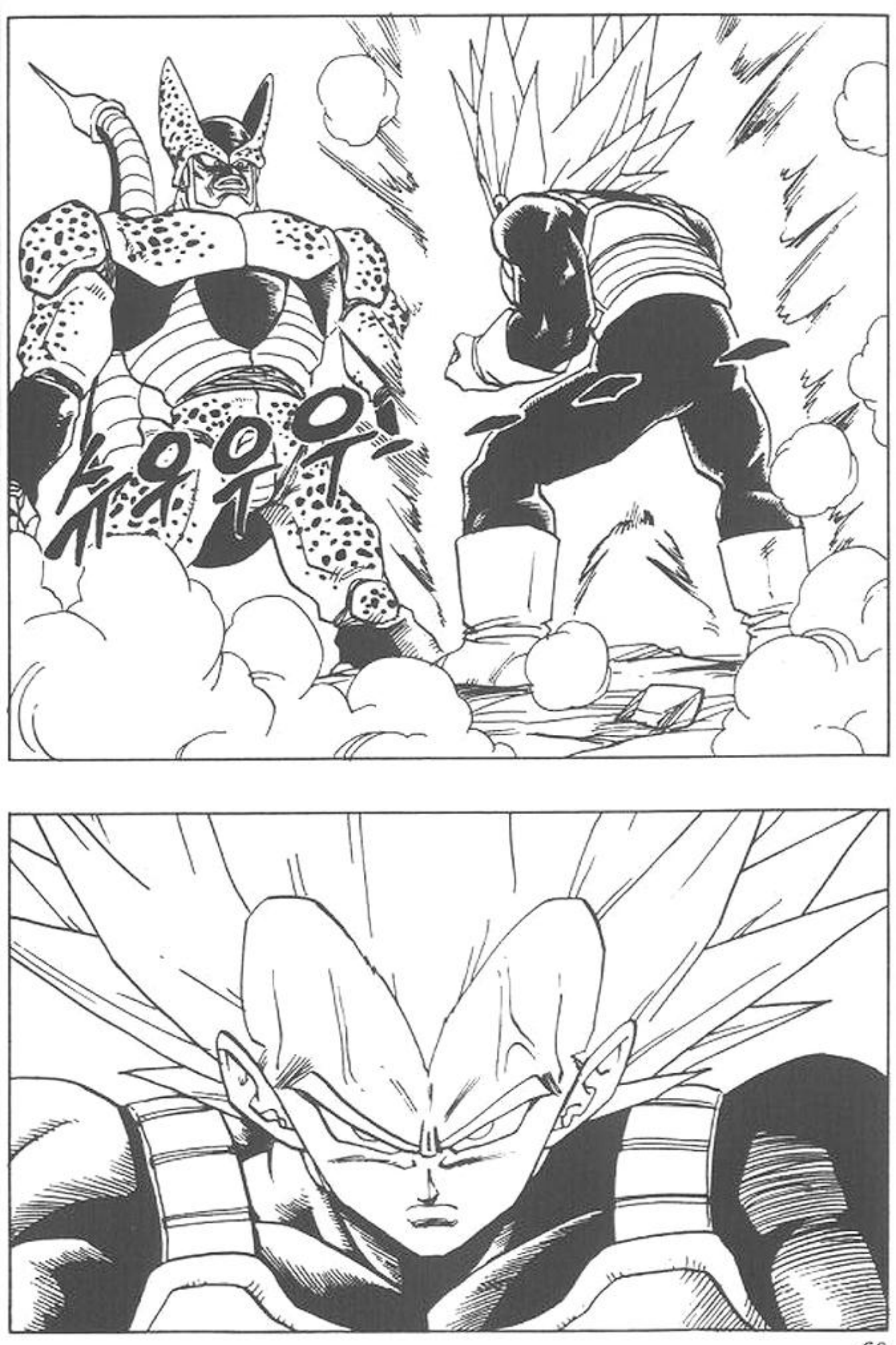
엑!?
내, 내가 아빠를…!?

하지만, 오반. 너는 그런 나를 훨씬 능가하도록 만들어 주고 싶단다.
물론 난 초사이어인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얻을 생각이다. 세상 누구보다도 강해지고 싶으니까….

트랭크스 얘기로는 미래의 난 초사이어인이 되어도 인조인간에게 살해당한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이미 트랭크스가 얘기한 미래는 너무도 달라졌잖아.
그… 그게 가능할까…?
반드시 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래.
게다가, 미래에서 죽어버린 넌 여기에서 수련을 안 한 오반 이었잖아!?

아…
아직도
기가 증가
하고 있어…!
……


ド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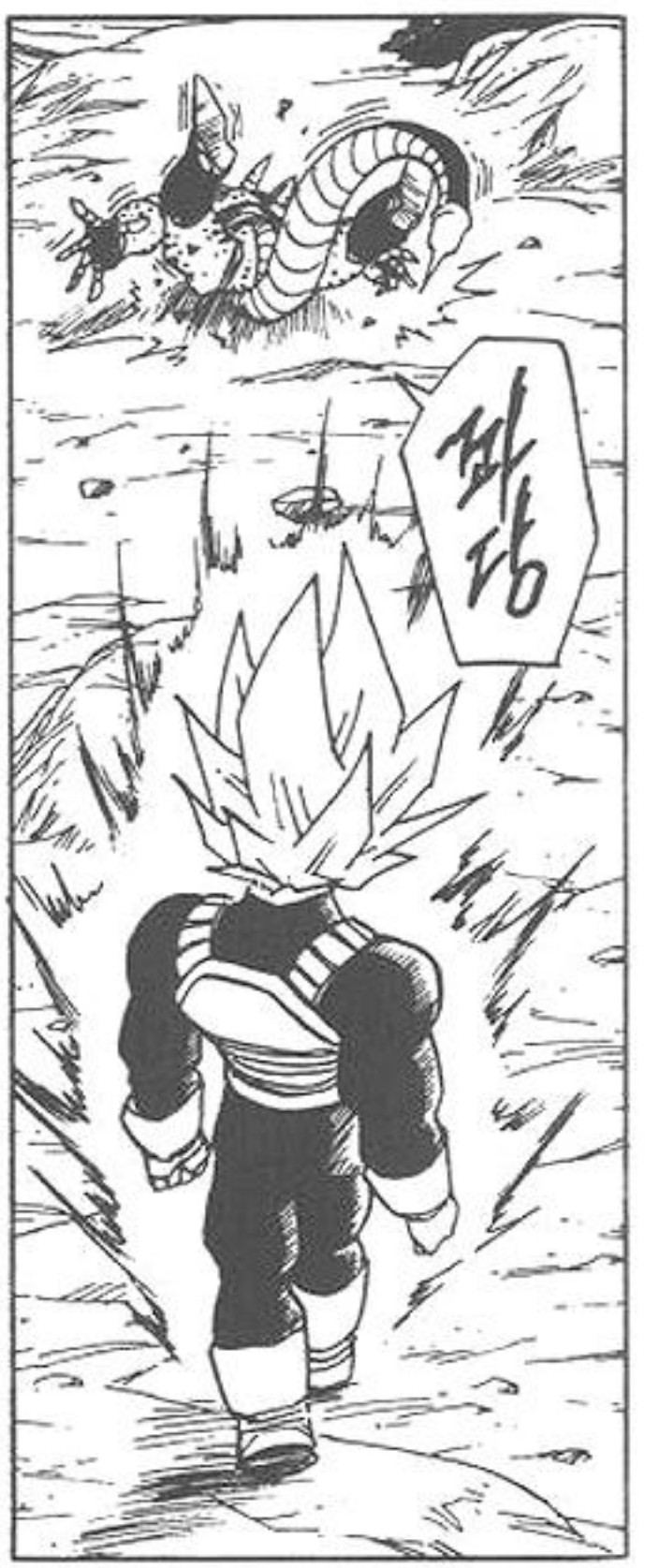

ドゴォォ

하아아
아아아….

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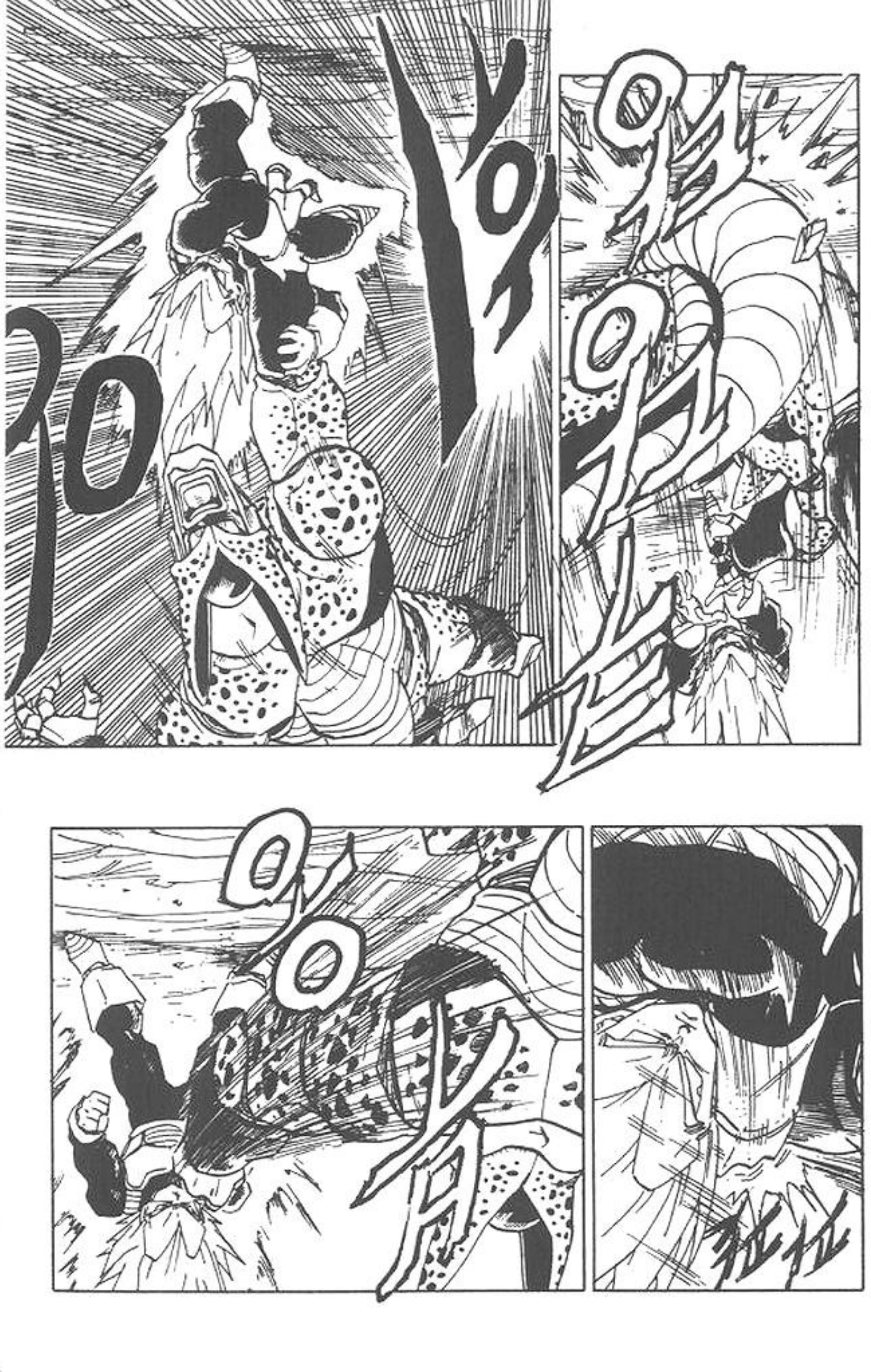
다음은, 제378화 초베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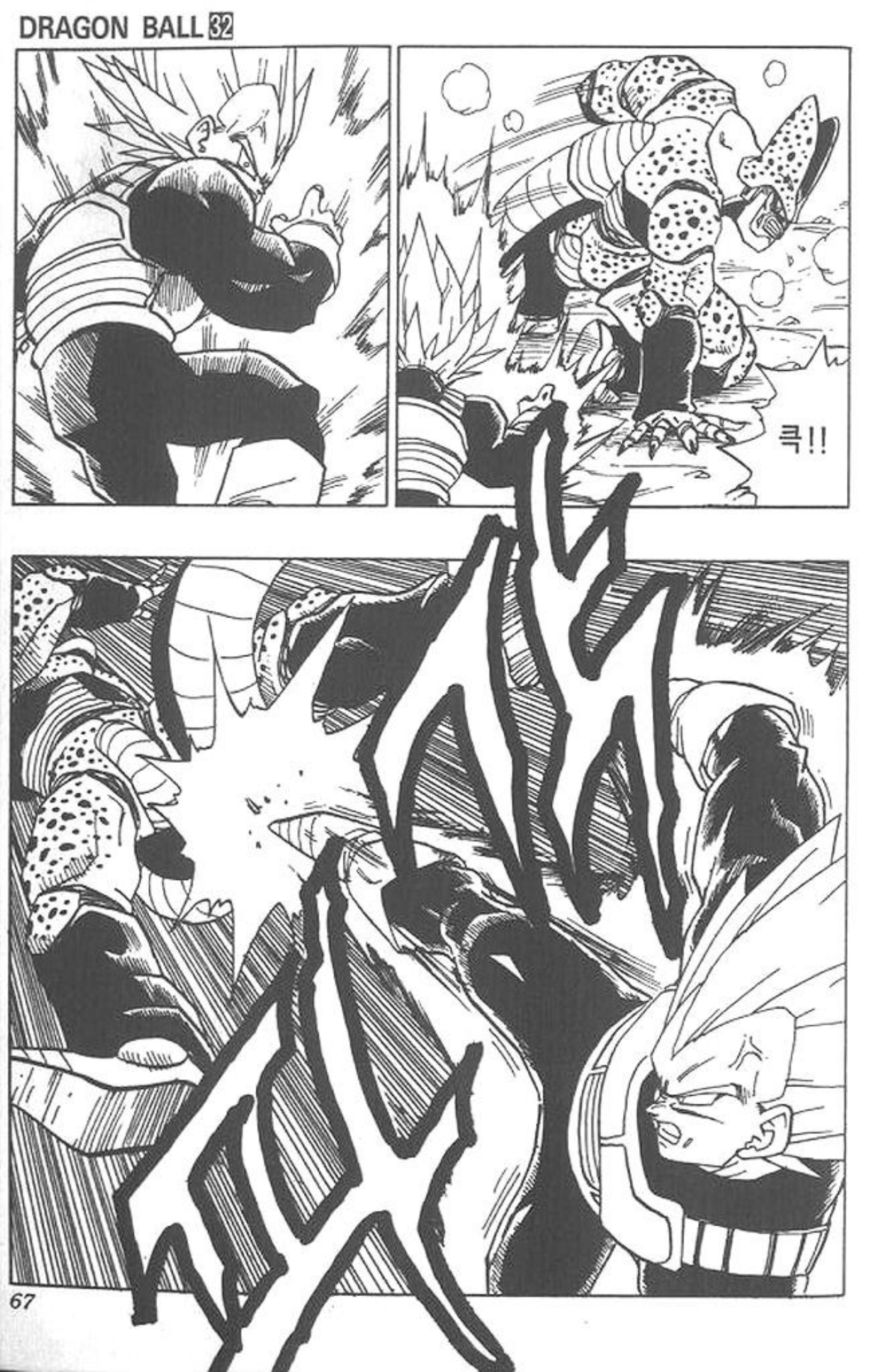
번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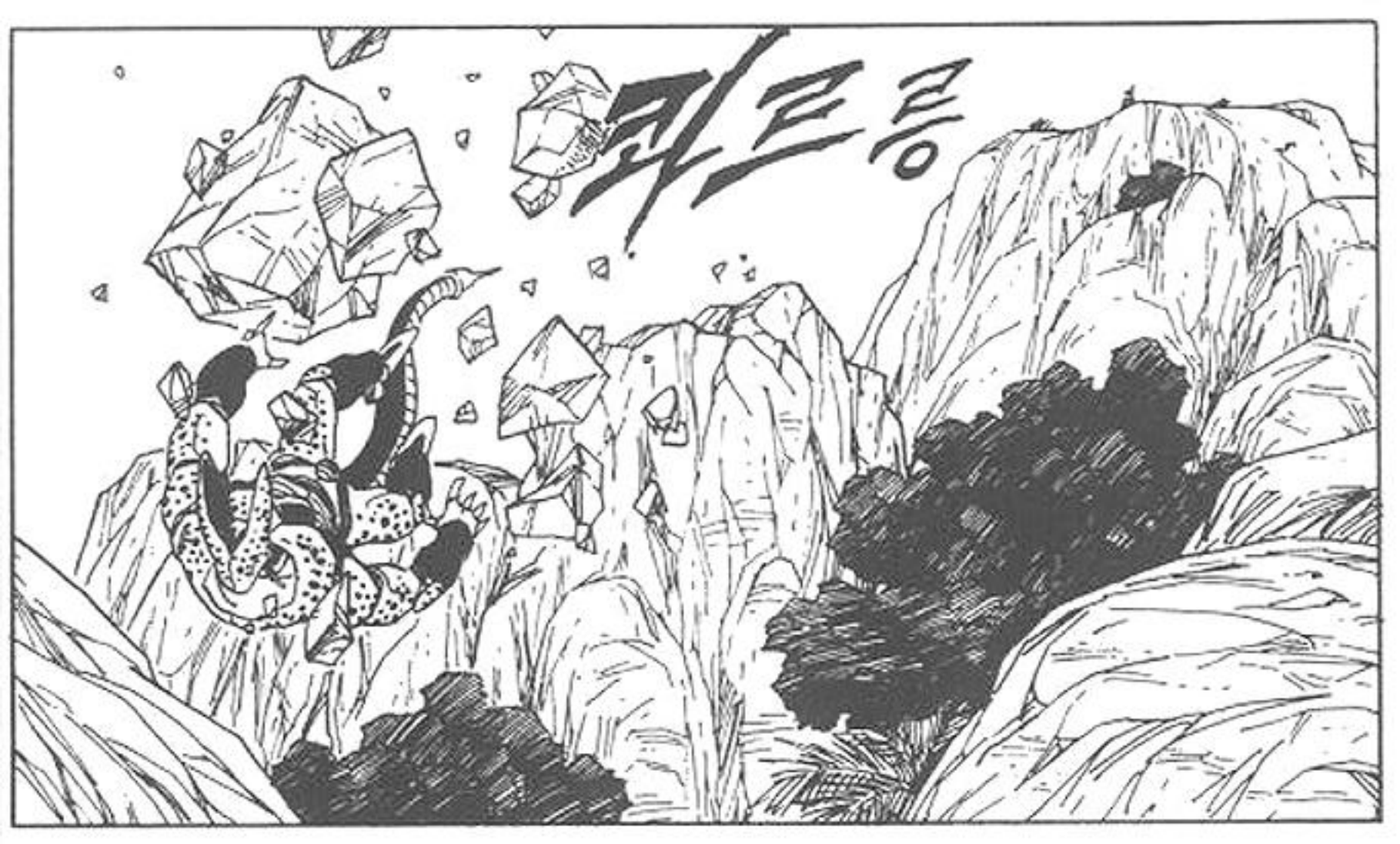

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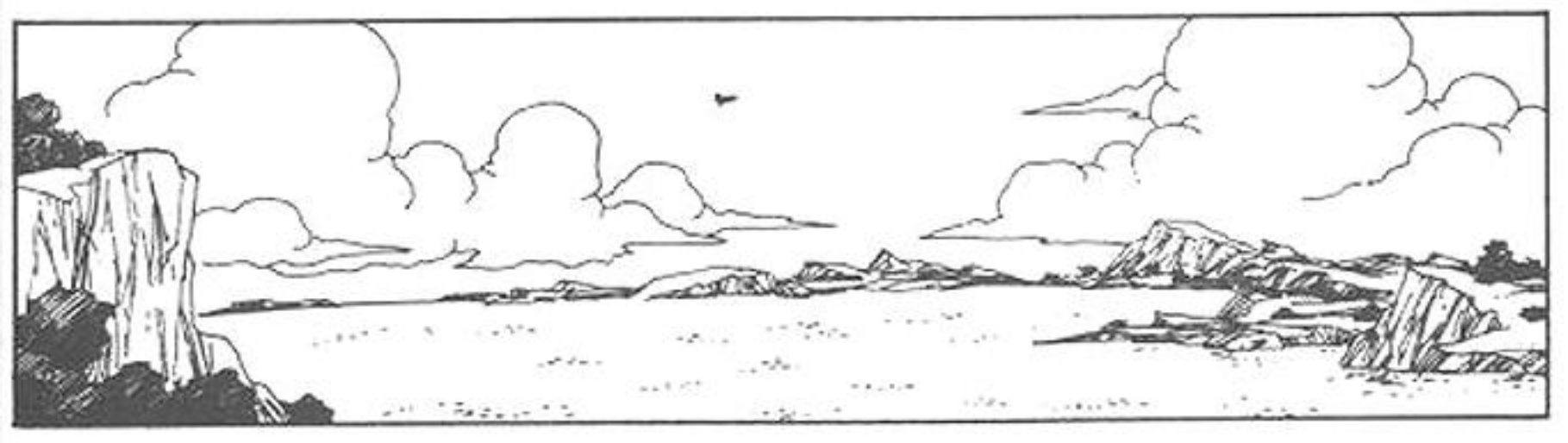
후후후…. 녀석, 제법 세진 것 같네….

셀….
좀 더 열심히 하셔.




큭!!


콰르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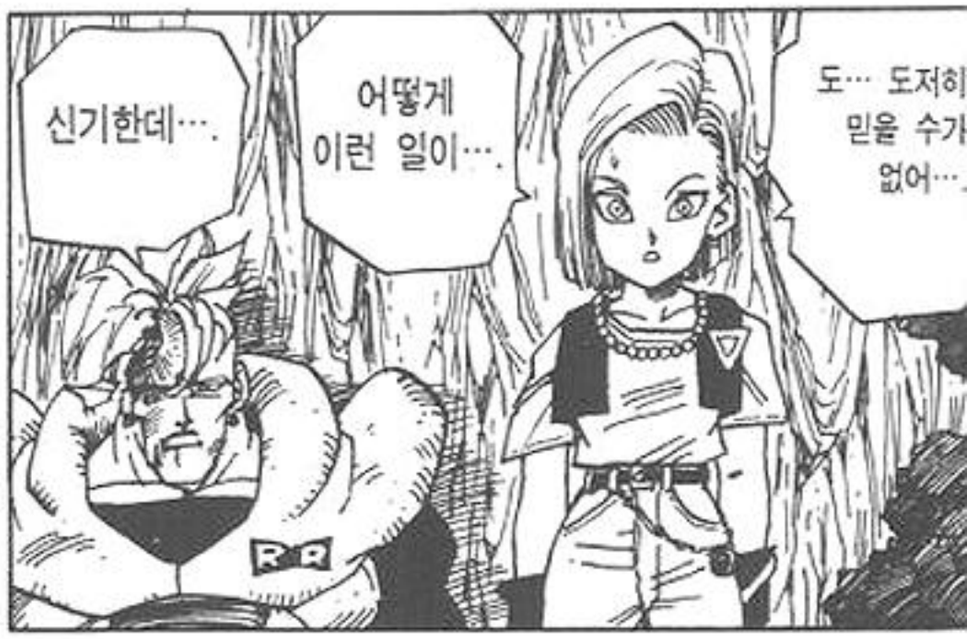
세, 셀의 엄청난 기를 훨씬 뛰어넘고 있어…!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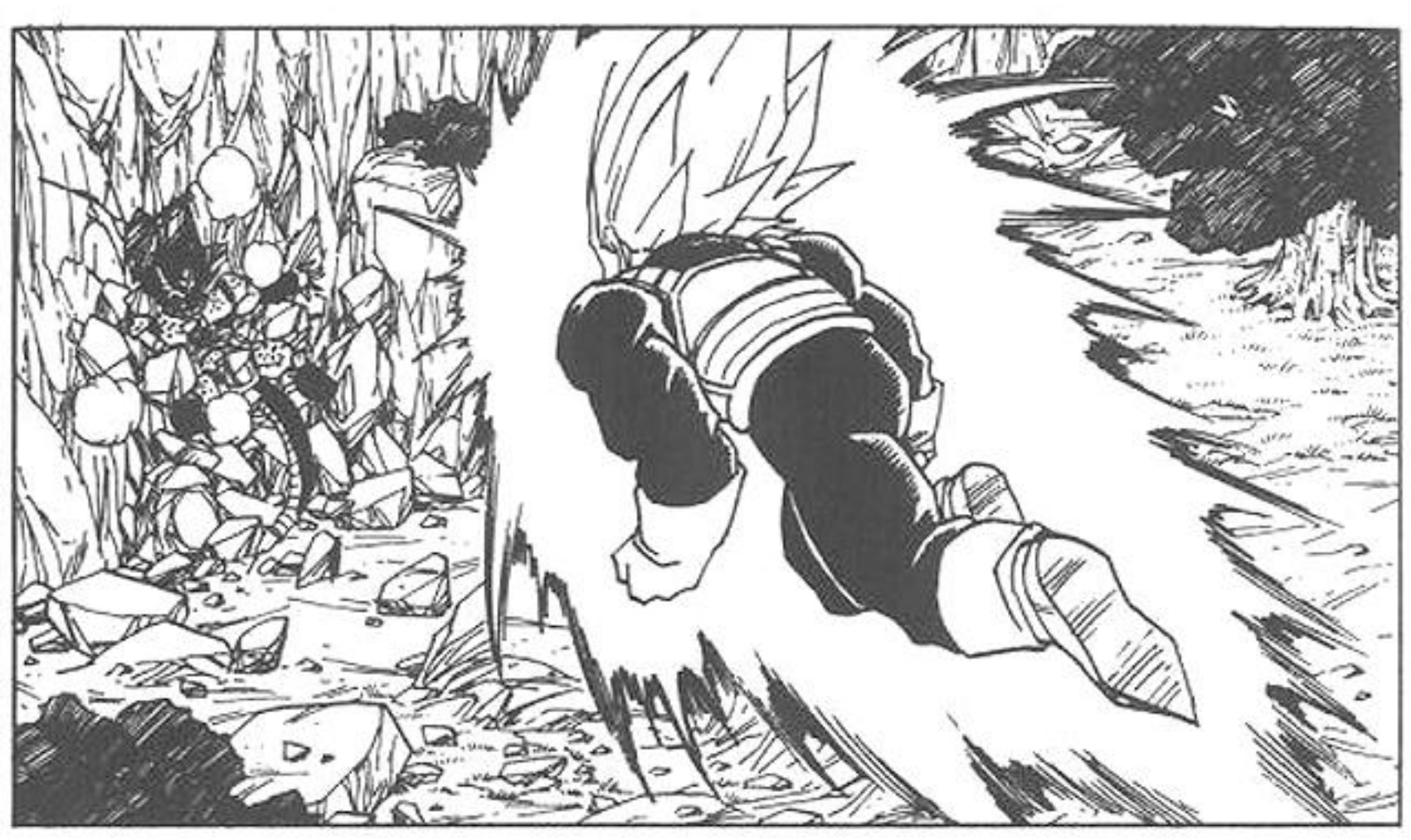
마…, 맞아!
이, 이 무식하게 거대한 기는 베지터의 기야!

Hoi
이잉
가보자!
오공이 하룻만에 1년간의 수련이 가능하다고 한 게 바로 저건가?!
!!

후룩…
후룩 후룩…

크…!!


신기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탁
으윽…

쿠…!
감히 나한테
진짜 실력발휘를
하게 만들다니…!

후후후….

쩍

그렇다면
사양하지
말고
덤벼보셔.

하아아
아앗…!!

하아
아아
…!!

아니,
그게 아냐.
그건 기를
크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구.
초사이어인은
우선 분노가
계기가
된다.
분노해봐!
확실히
달라질
거야!

하아…
아아…
아…!!

난 셀을
본 적도
없는걸….
그럼
프리더나
다른
적이라도
좋아.

그렇지
…!
나나 피콜로가
셀에게 죽을
것 같다고
상상해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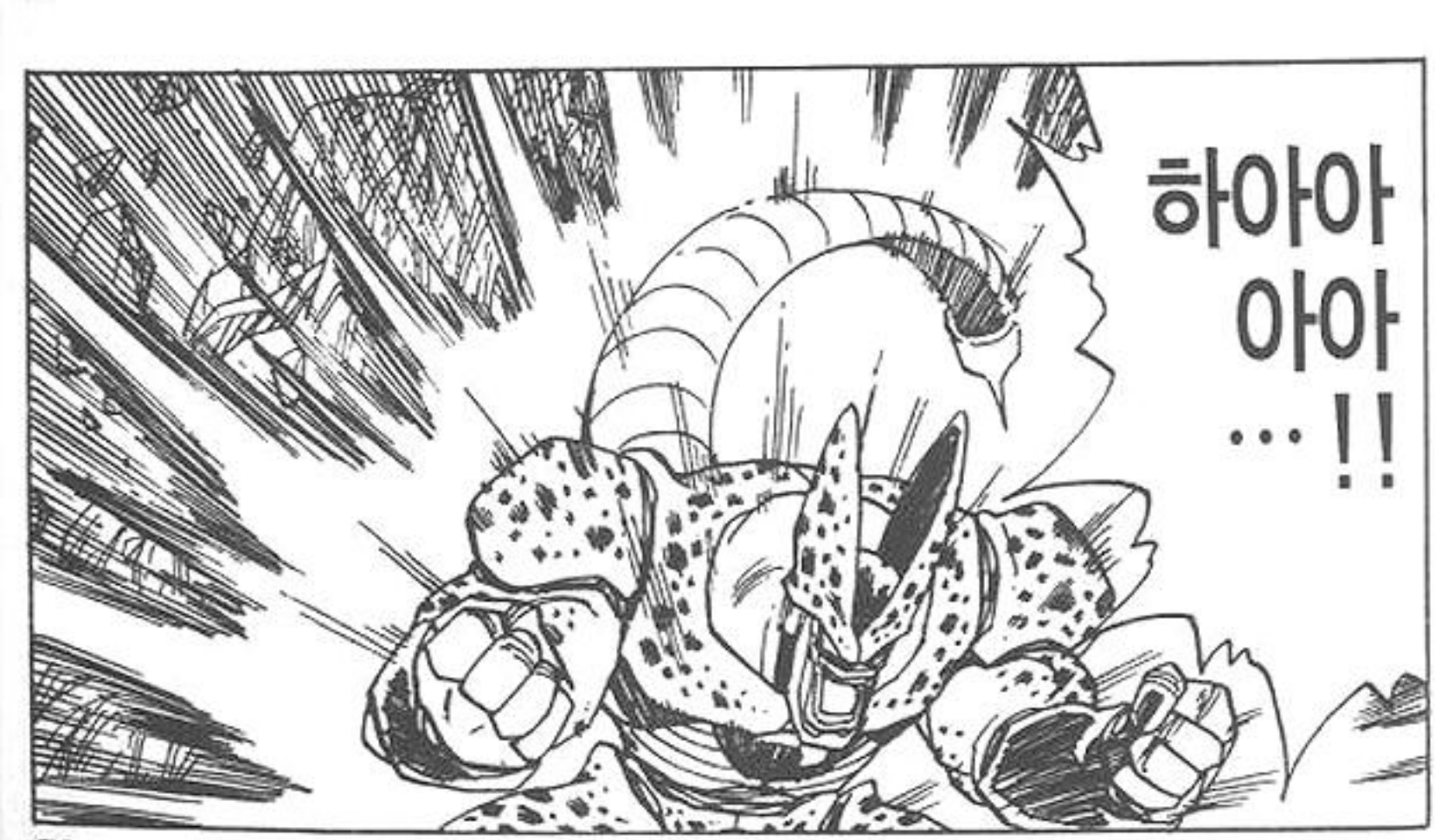
아무리
그런 얘길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아….

불끈

이놈들 …!!
으으으 으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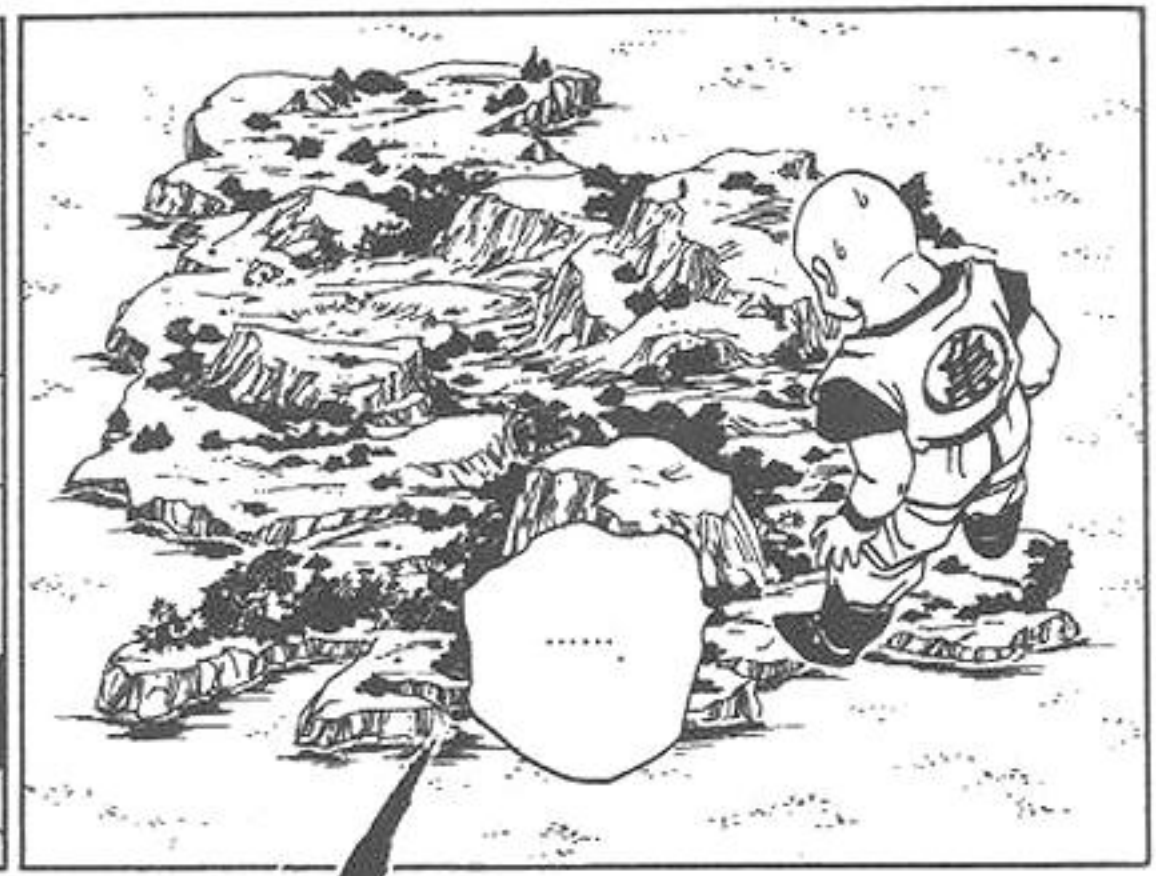
허억…, 허억…!
갑자기 잘 될 리가 없지. 나나 베지터도 처음엔 고생했다구.
초조해 할 것 없다. 더구나 가능성이 보였잖아.

아…, 안 돼…!
헉!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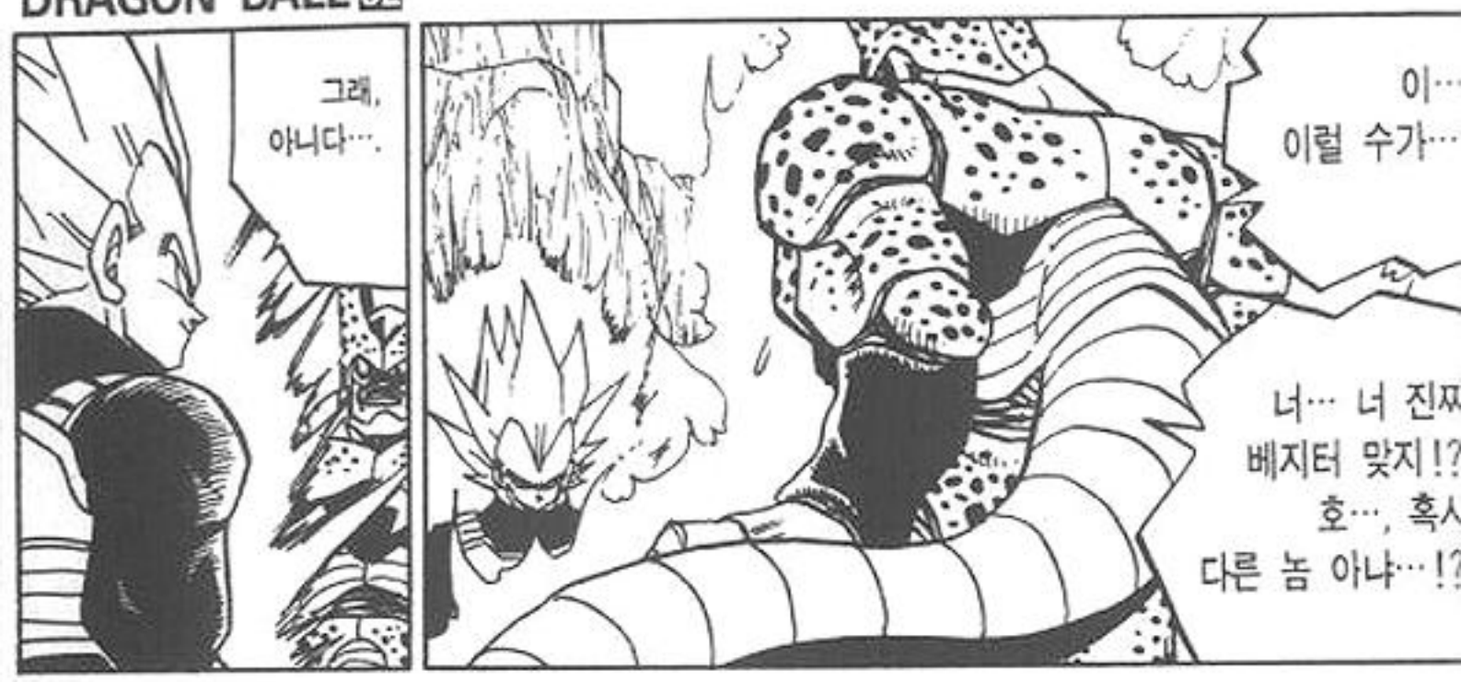

하아아 아아 …!!

하아아….

저…
저쪽이
셀인가…!
지…,
진짜
베지터다…!


……

역시
이 정도
였군….
아무래도
수련 덕분에
실력차가
너무 난 것
같은걸….



다음은, 제379화 셀의 완전체 실패!?

니 맘대로 상상하셔….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귀찮아 죽겠다….
그… 그게 뭐지…!?
초베지터 …!?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자기 몸이나 걱정하는 게 어때?
제길…!

이… 이미 완전체가 돼버린 건가…!
세…, 셀이 전과는 상당히 달라졌는데…!

이런 일이….
이….

겨… 겨우 만들어온 이건 쓸모없게 됐잖아…!

이럴 수는 없어!

ドゴ
ガ

커…헉…!

진짜
죽여준다…!!
대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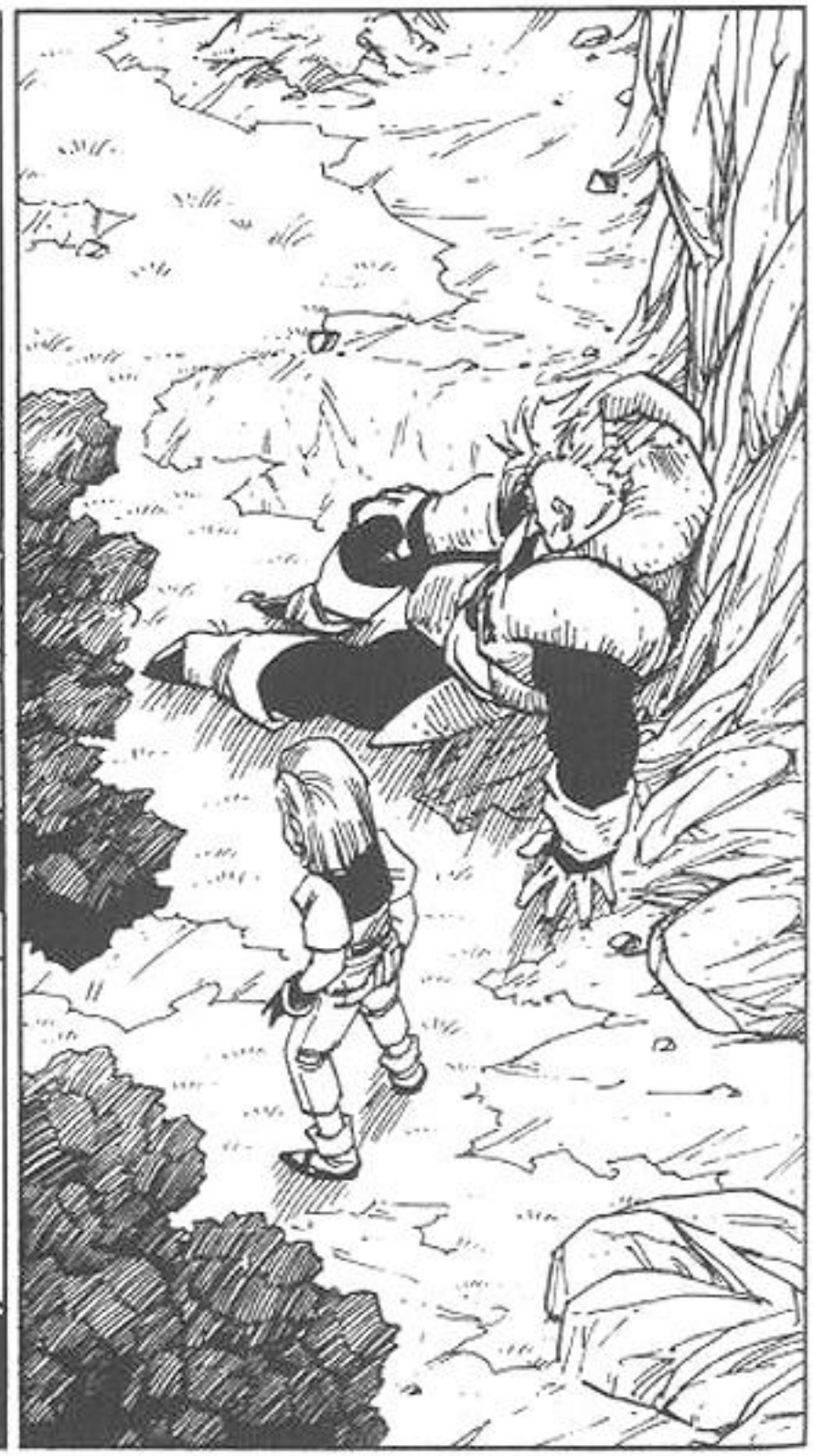
무…
무식할 정도로
강해졌어….
사…, 신체도
훌륭해지고….
저… 저게
새로운 베지터란
말야…!?

……

근데…, 오공과 오반은….
왜 없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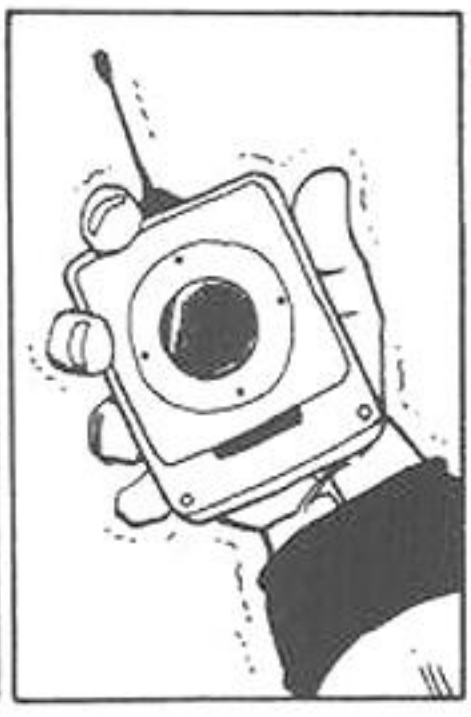
저… 저건 트랭크스 잖아…!
저 녀석도 베지터처럼 강해진 건가….

인조인간들 이다…!
이… 이런 데 있었다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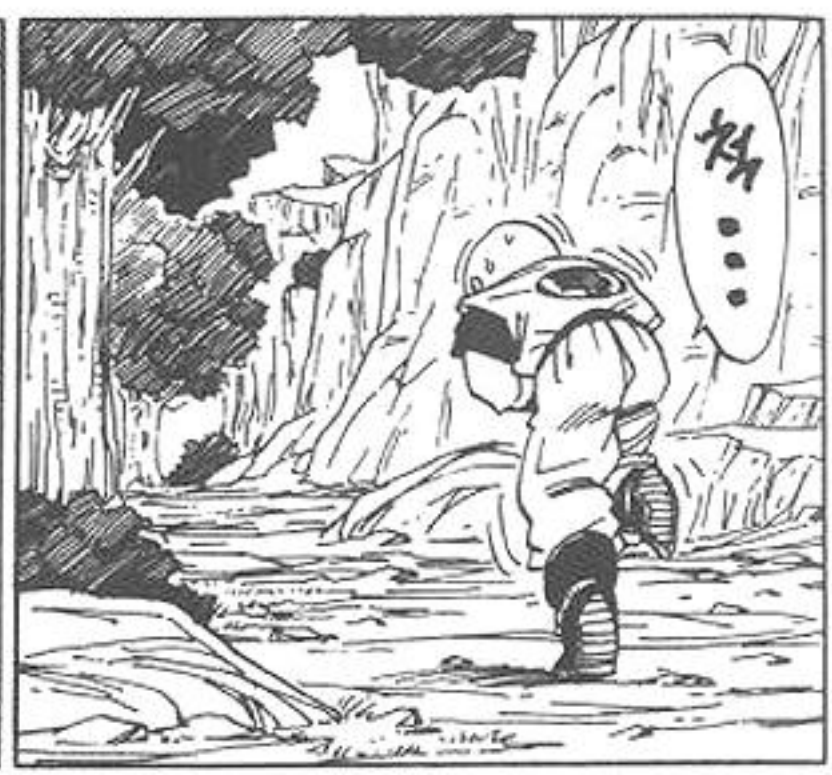


세…, 셀도…, 베지터도…, 트랭크스도…, 인조인간을 발견 못한 건가…!?

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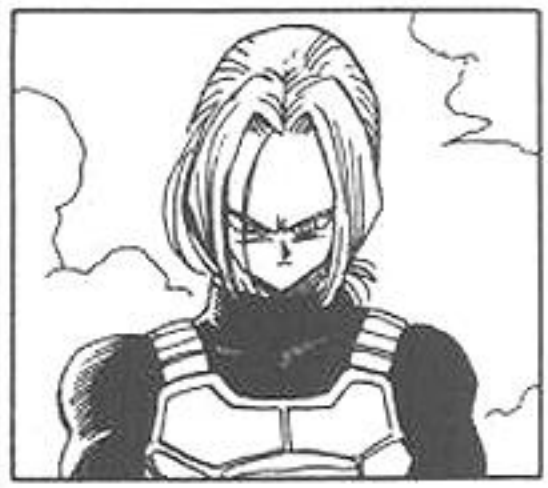

헉…

나…. 남자인 17호란 녀석이 없다는 건…. 셀은 그 녀석만 흡수하여 변화한 건가….
이…. 인조인간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셀은 아직 완전체가 되지 못했다는 얘긴데….

터억

헉헉
헉
헉
헉
헉
헉
:
저기 트랭크스라는 녀석이 있다…. 나 정도는 아니지만, 저 녀석도 나와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네…!
크크큭…. 더 충격적인 사실을 가르쳐 줄까?

.....



이거 너무 실망인걸…! 날 맥빠지게 하다니…. 엄청 대단한 녀석인 줄 알고 와봤더니….
아무래도 넌 진짜 모든 파워를 발휘해봤자 그 정도가 다인 것 같군….

너 같은 놈 죽이는 게 너무 따분해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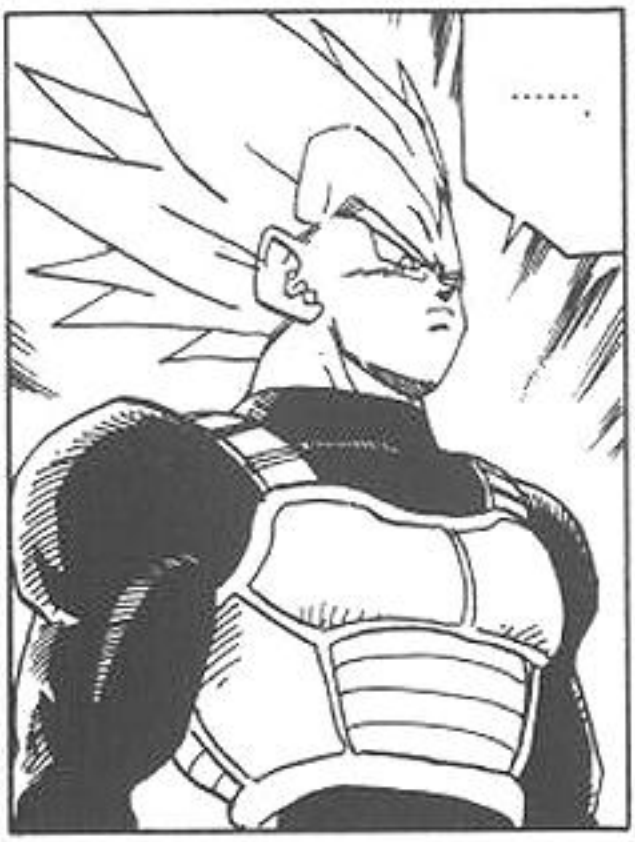
우오오 오오오 …!!

이런 빌어먹을 …!!
제기랄 —!!

완전체만
될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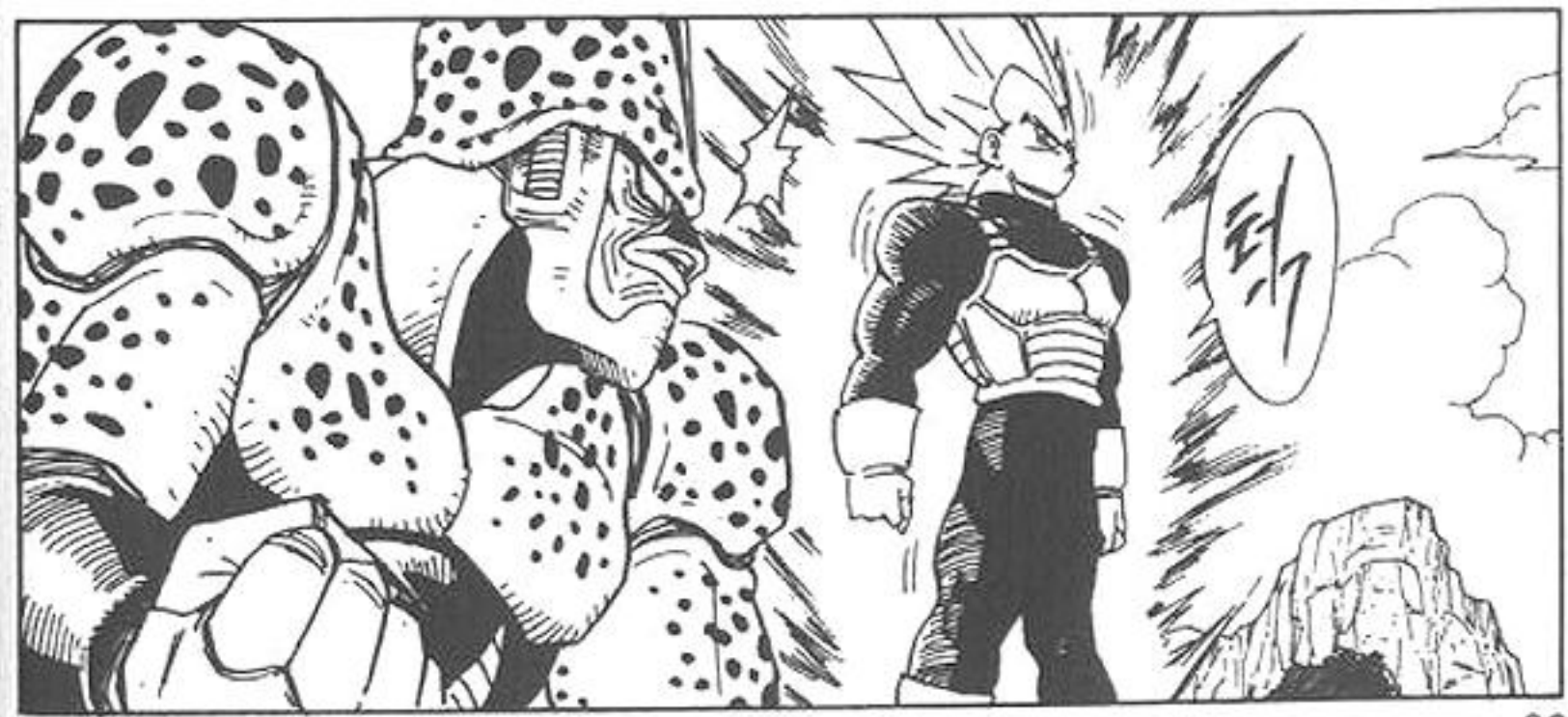
와…,
완전체로….

다음은, 제380화 도망쳐라!! 18호


……

제…
제기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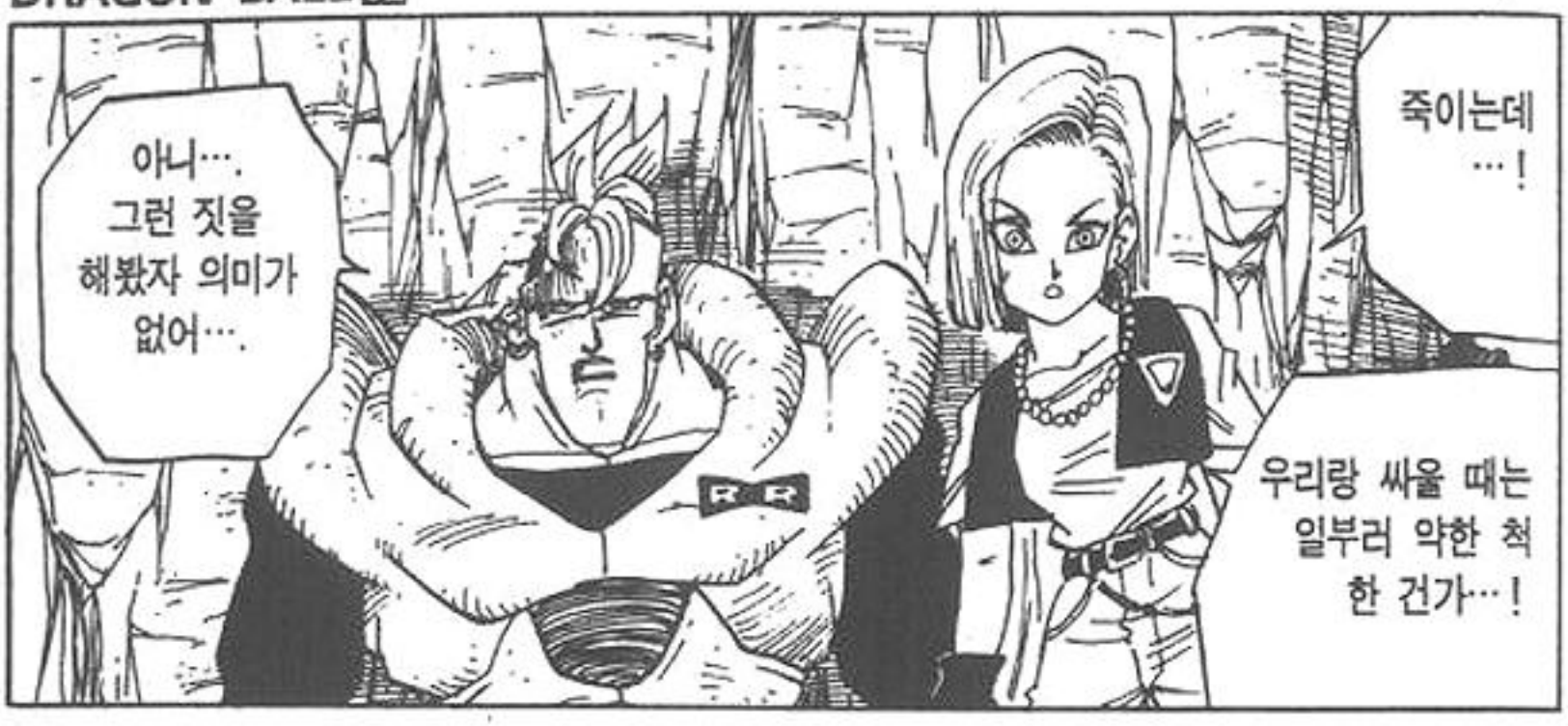
꽈


퍽

날 이길 수 있단 소리냐?

그럼 뭐야? 네 녀석이 완전체만 될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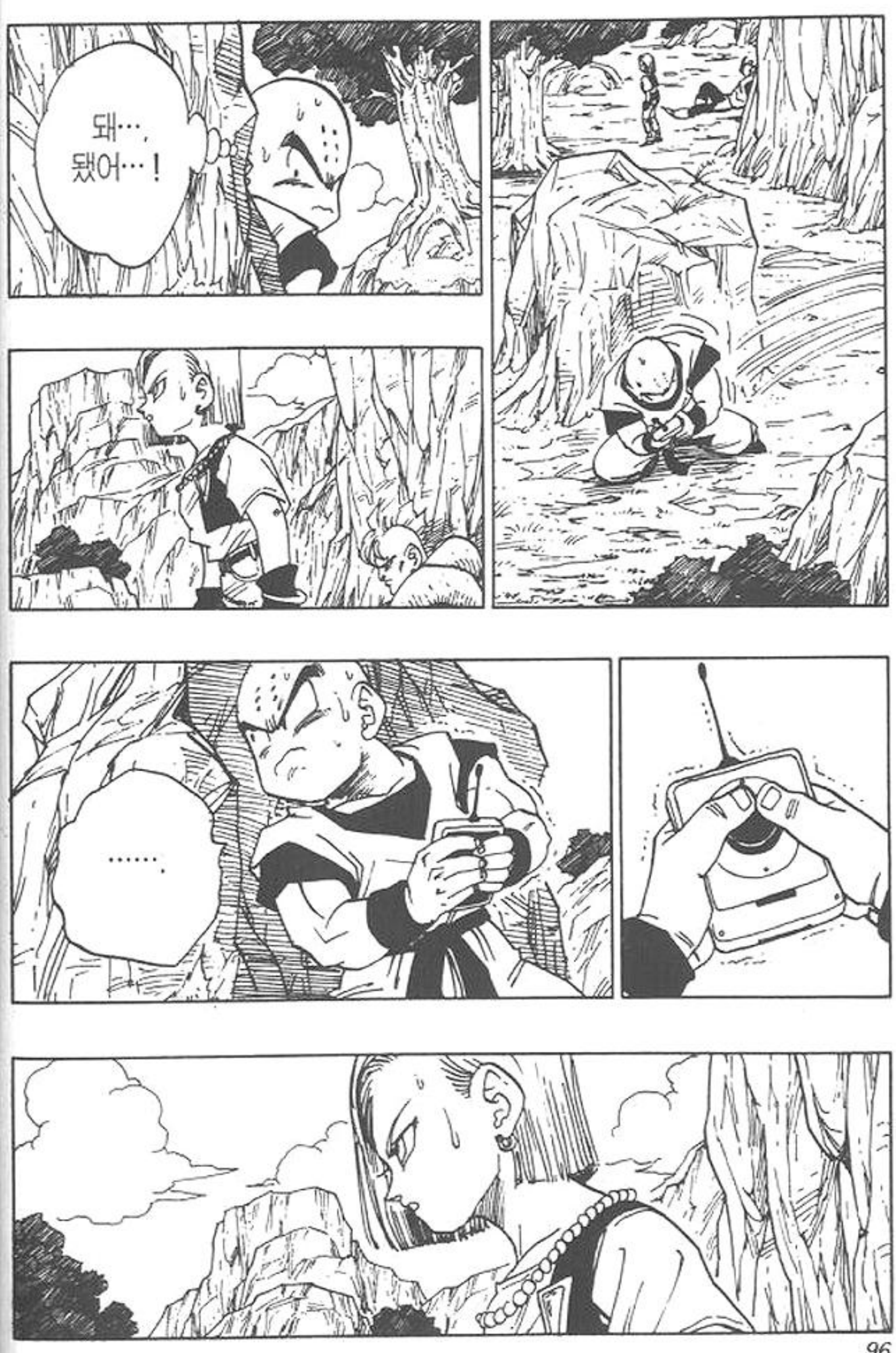
아으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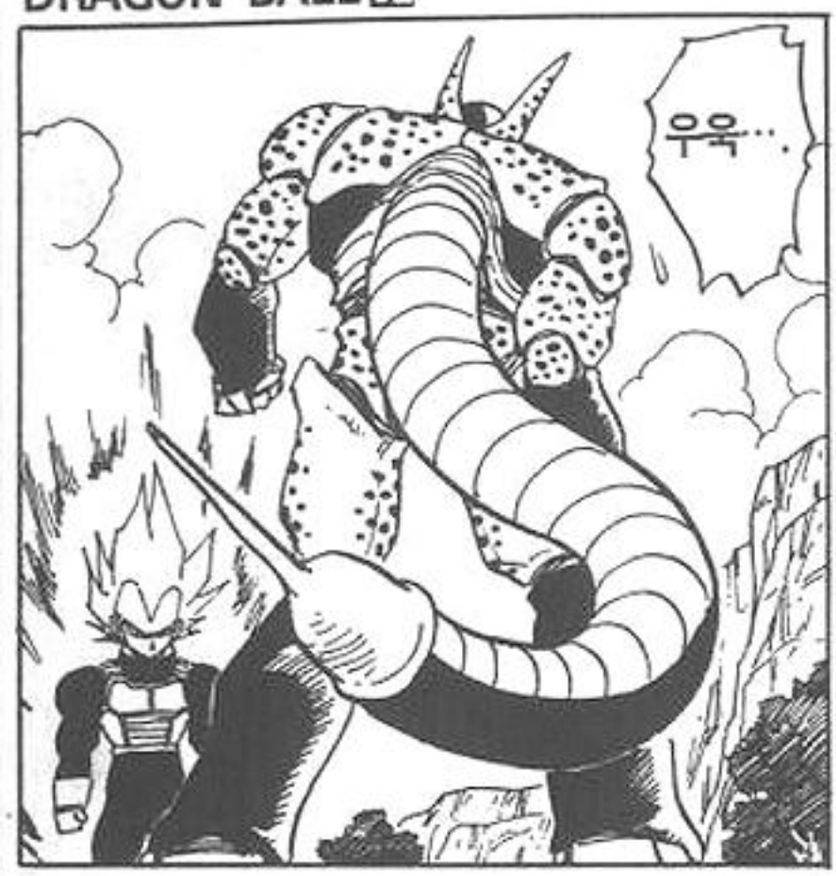

아니…. 그런 짓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
죽이는데 …!
우리랑 싸울 때는 일부러 약한 척 한 건가…!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요 며칠 사이에….

누웠

그래…, 10미터 이내라구…. 조금 남았다….


돼…,
됐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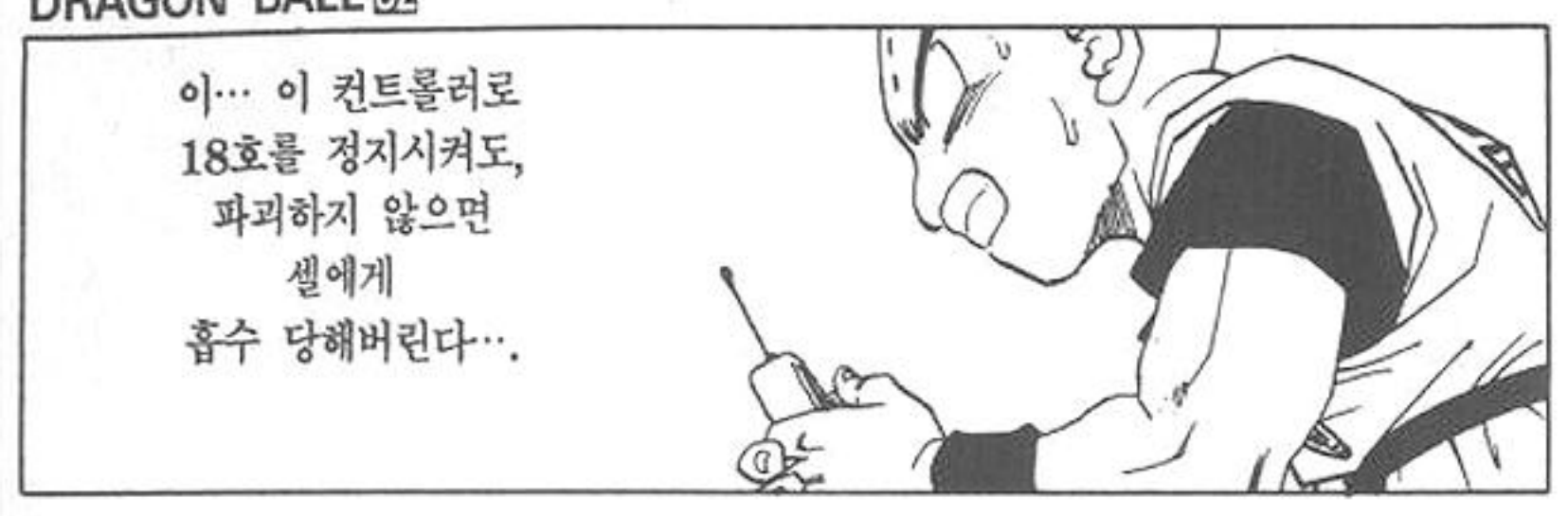

우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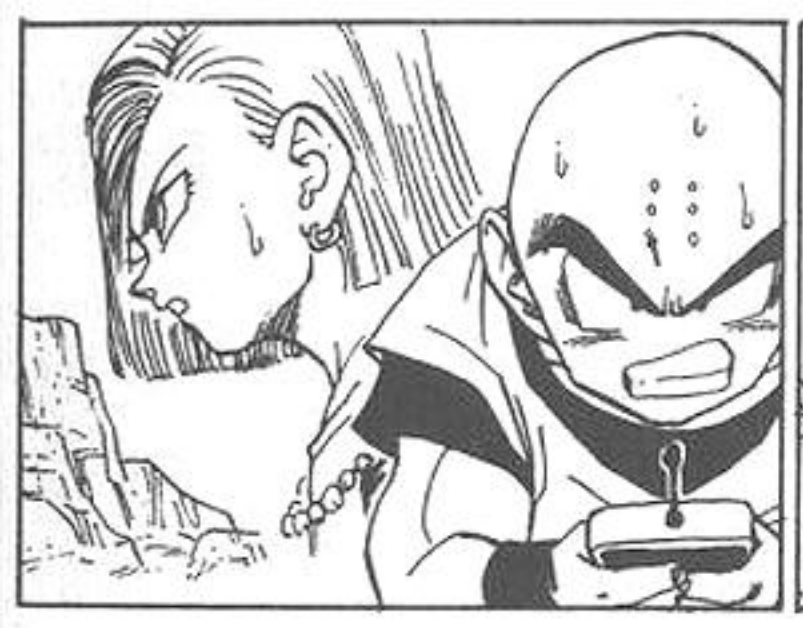
이 정도로
엄청난 실력 차가
있는데도
완전체만 되면
감히 날 이길 수
있다는 거냐?

허억
…!
헉…

너…
너 정도라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어!
그 정도
파워라면….

이…, 인조인간
귀찮게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
듣겠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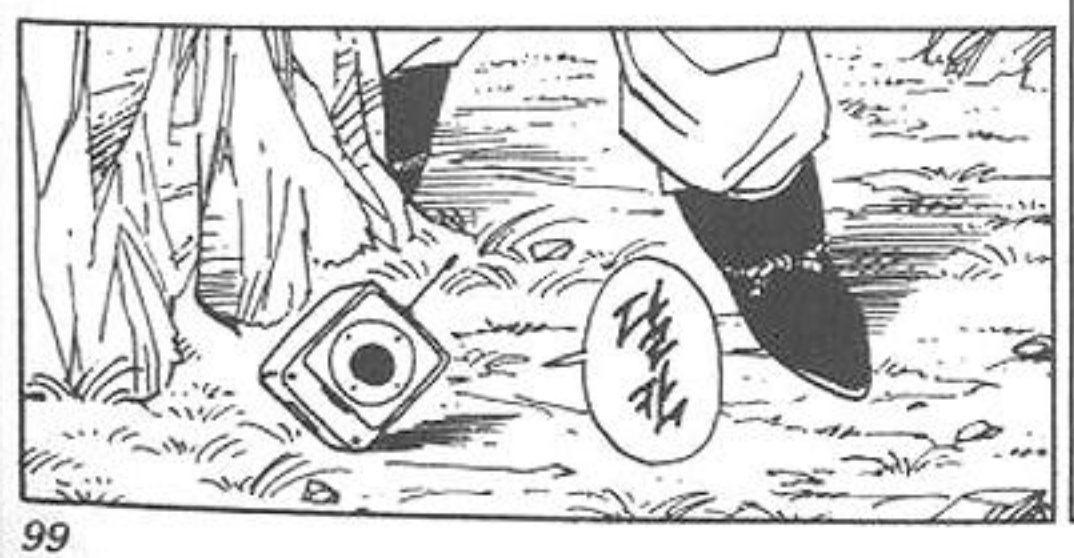

이… 이 컨트롤러로
18호를 정지시켜도,
파괴하지 않으면
셀에게
흡수 당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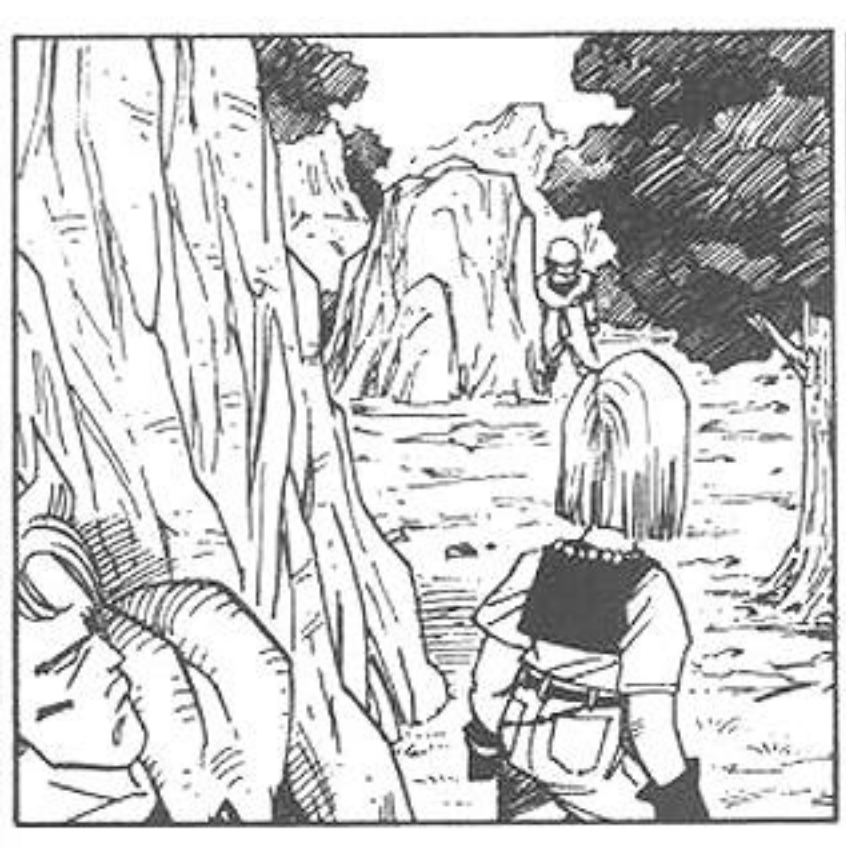


기…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파…
파괴할 수
있을 거야….
16호도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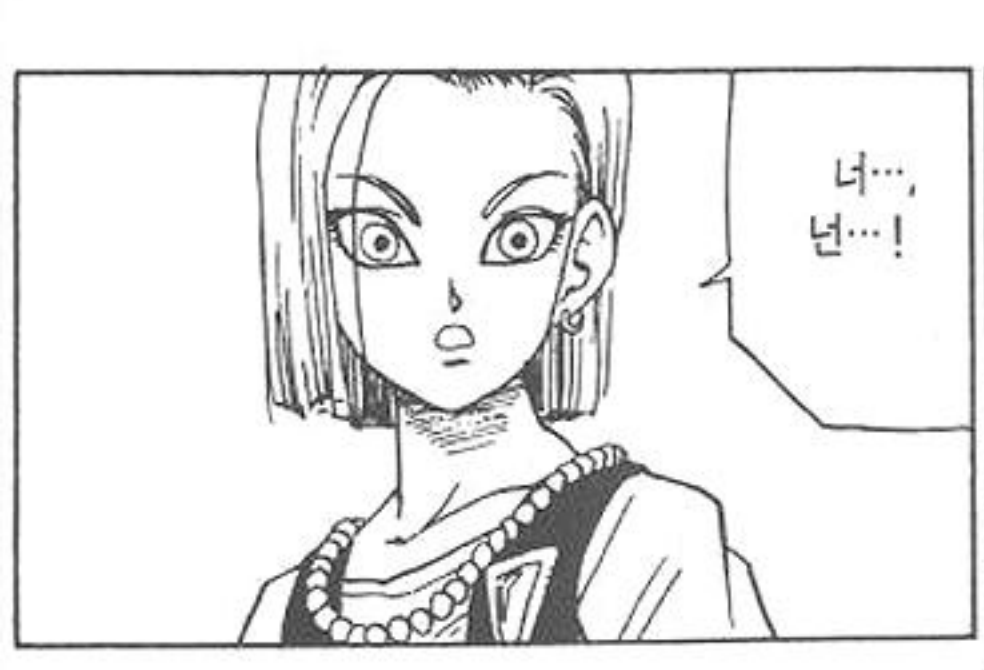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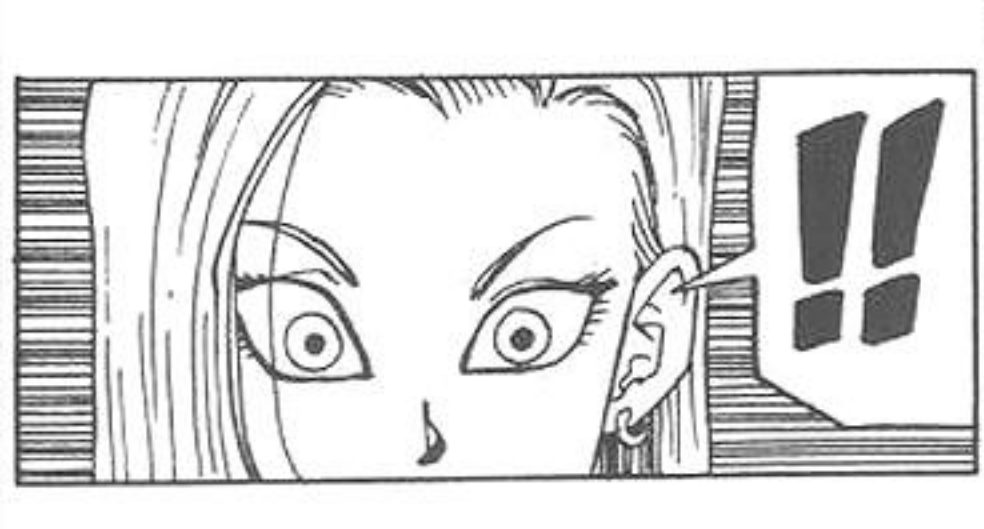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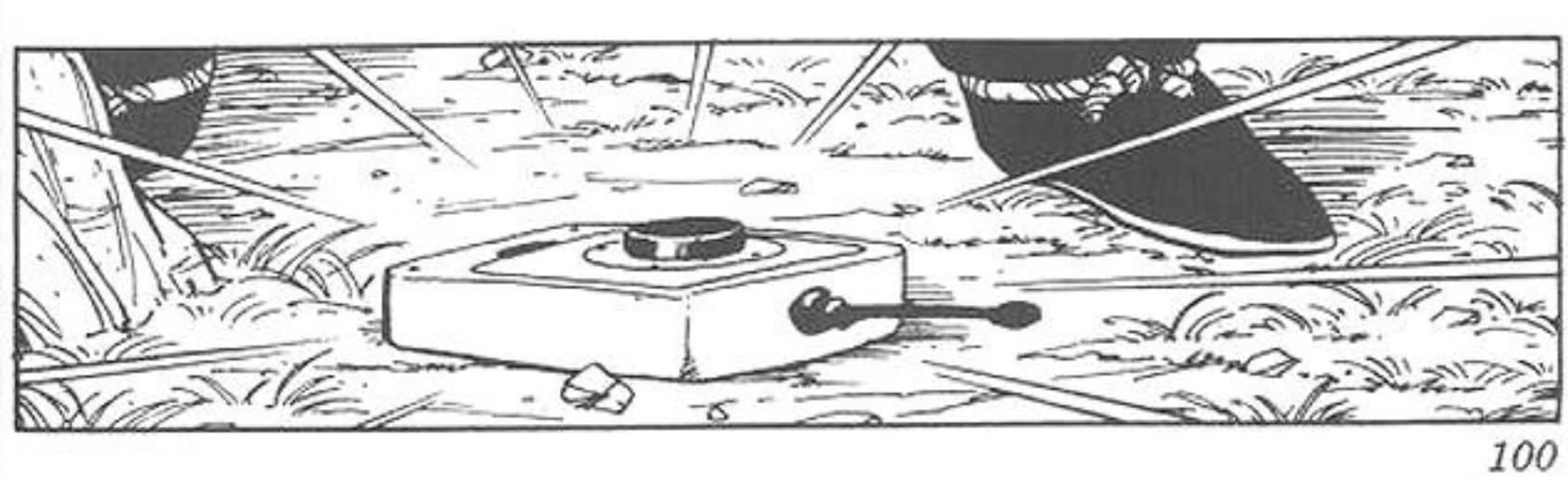

다행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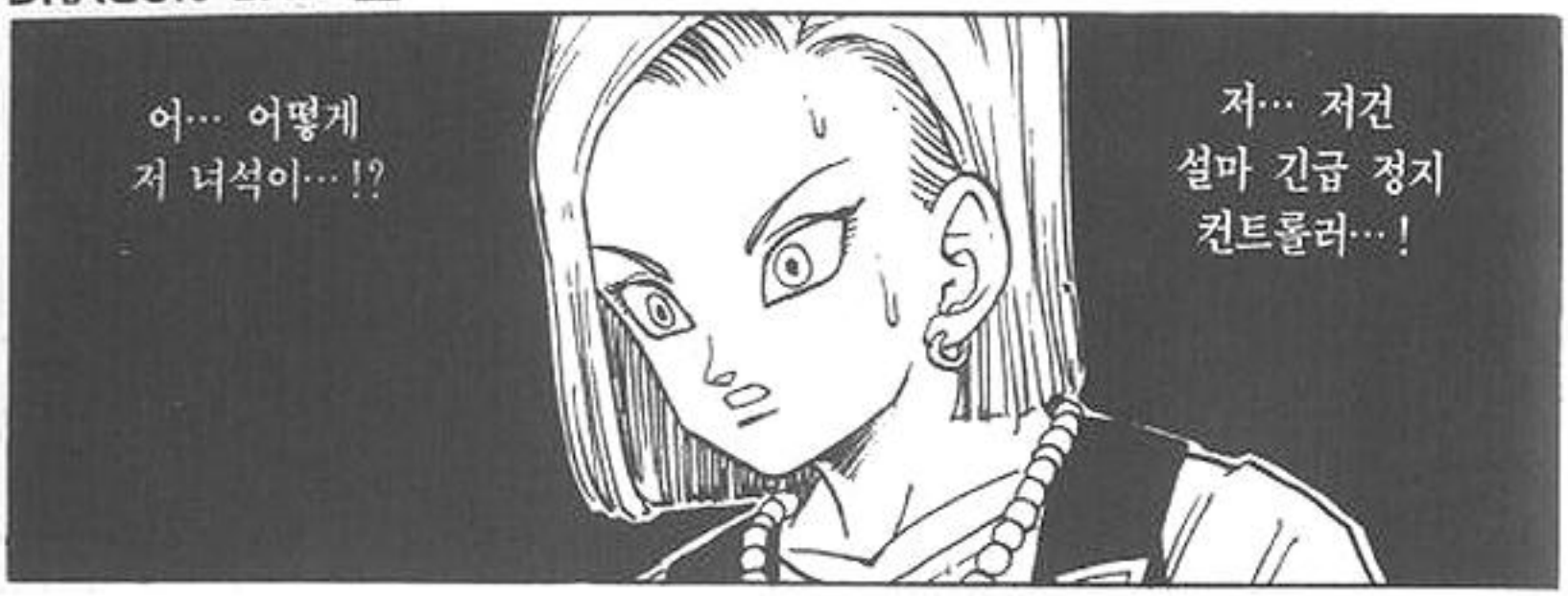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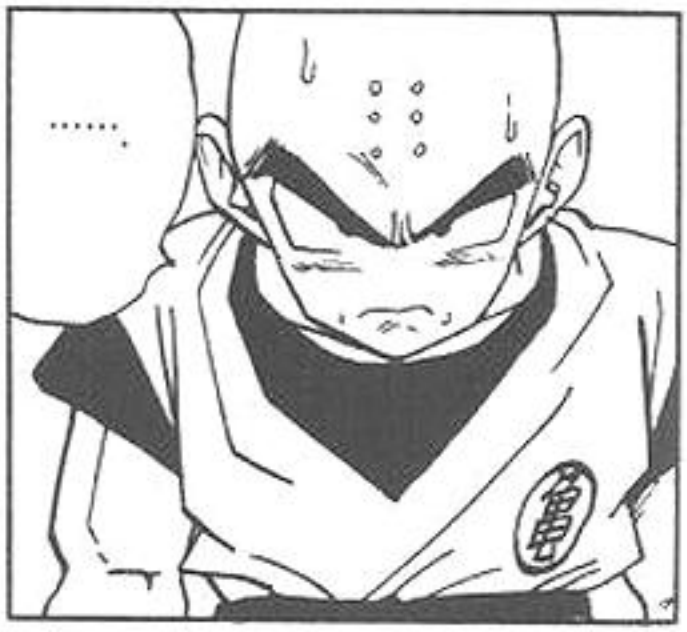

너…,
넌…!


!!




어… 어떻게
저 녀석이…!?
저… 저건
설마 긴급 정지
컨트롤러…!

후후후…
엄청
짱구를
굴리시나본데….


……

완전체가
된 나와…!
싸워보고
싶겠지…!?

더구나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전투의 기쁨은
커진다…!
어떠냐, 베지터…?
너희들 사이어인은
근본적으로 전투
민족이야…!
싸움을 너무
좋아한다구….
흐흥….
맞지? 내 말이
틀렸냐?

것도 괜찮지.
네 덫에 제대로
걸려 주겠다.
가서 맘대로
완전체란 게
돼봐!
후후후….
역시 사이어인에
대해
잘 알고 있군….

불쌍한 지금의 널
쓰러뜨려봤자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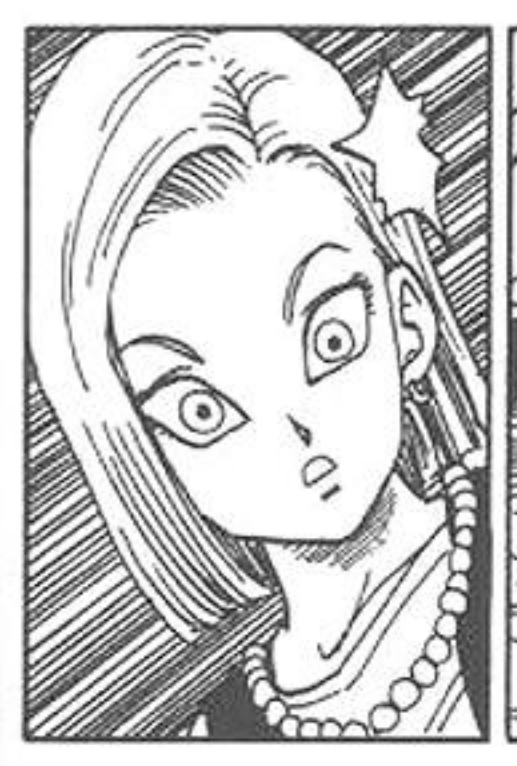
아버지!

기다리고
있겠다,
셀!
파밧

써억

아버지는 보냈어도 난 보낼 수 없어!

트랭크스! 방해하지 마!



빠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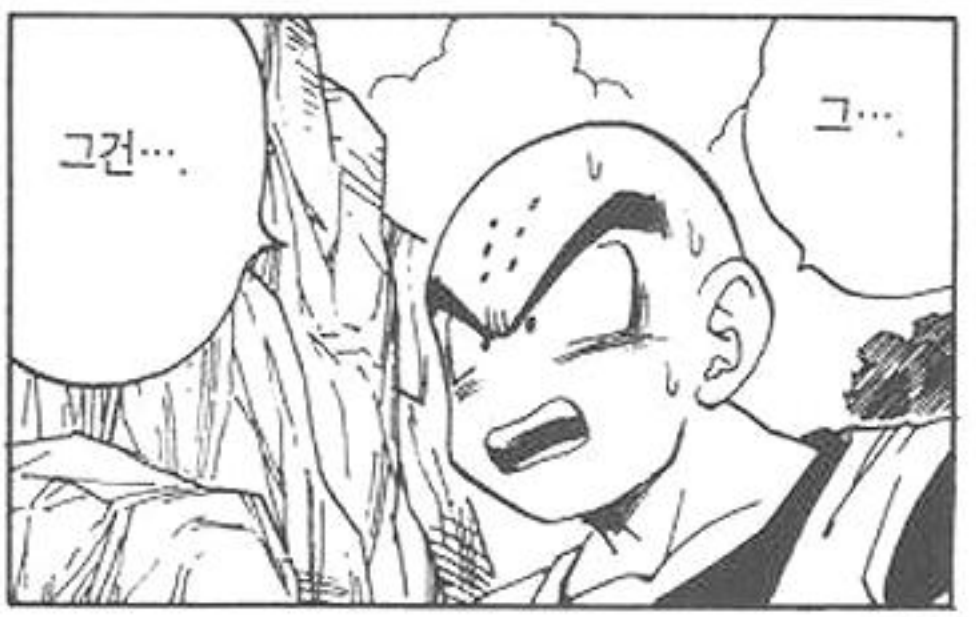
미안하다, 부르마…. 일부러 만들어 준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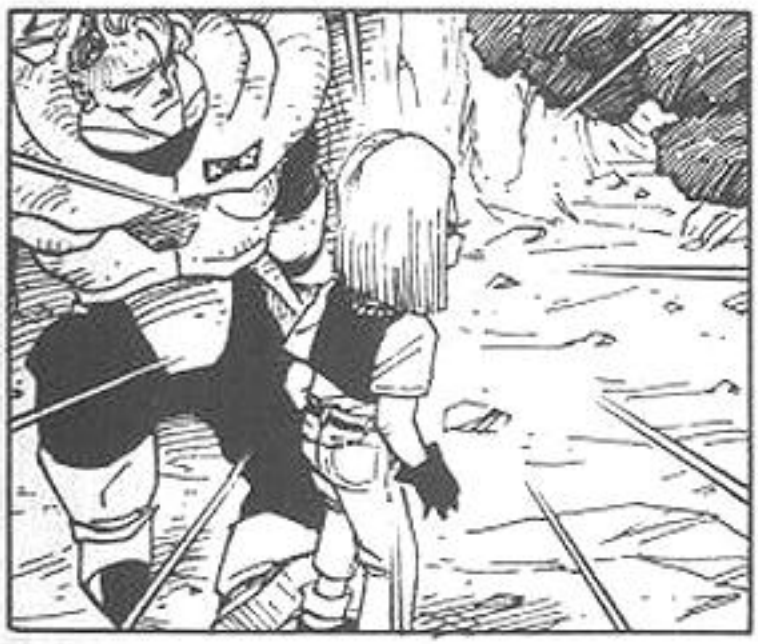
……

절대 셀에게 흡수돼선 안 돼! 부탁한다!
빨리 도망쳐라.

이유가 뭐지…!? 왜 그걸 파괴한 거야!? 좋은 기회였을 텐데….

어, 어이! 베지터! 이 녀석 어떻게 좀 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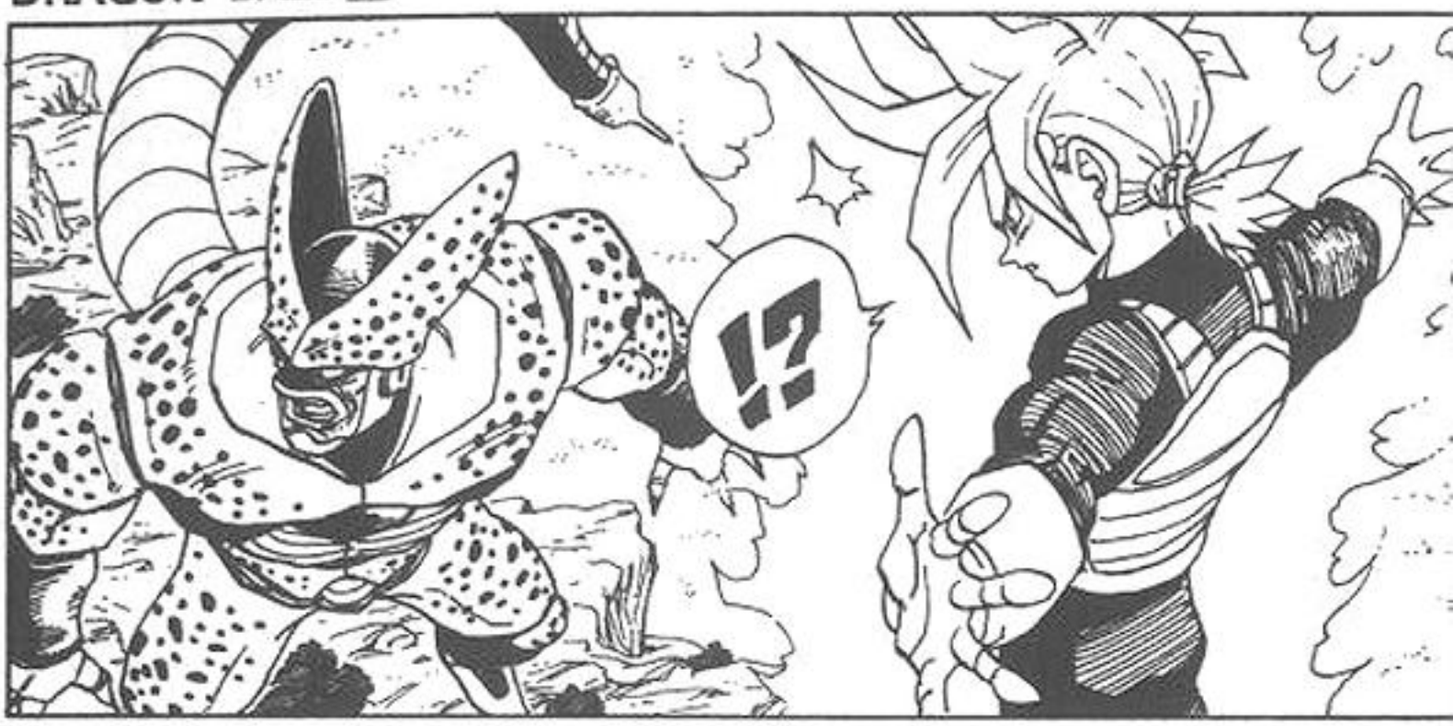

그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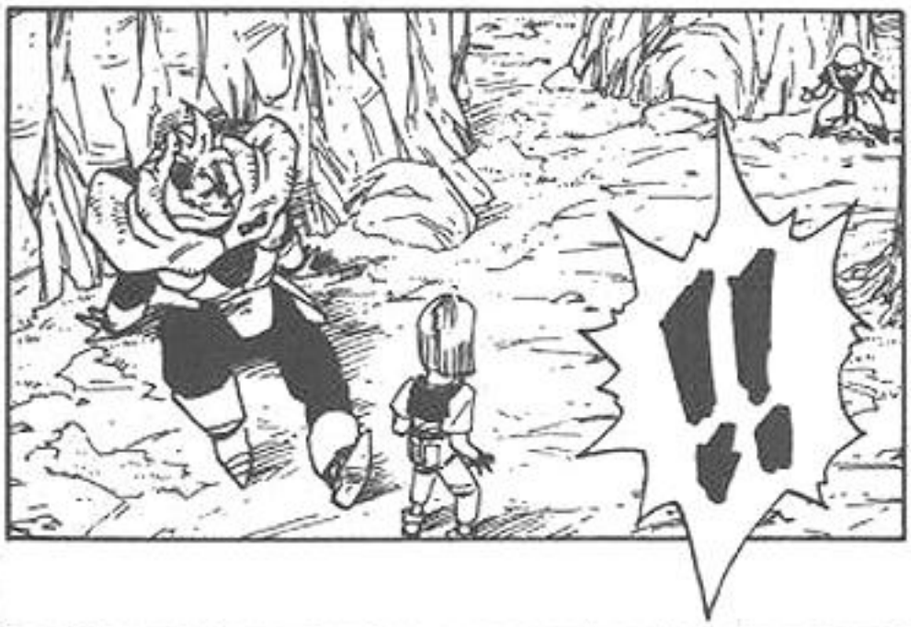


다음은, 제381화 베지터의 호기심이 셀을 구하다

바…,
발견했어!
18호…!!

바, 바로
저기 숨어
있었구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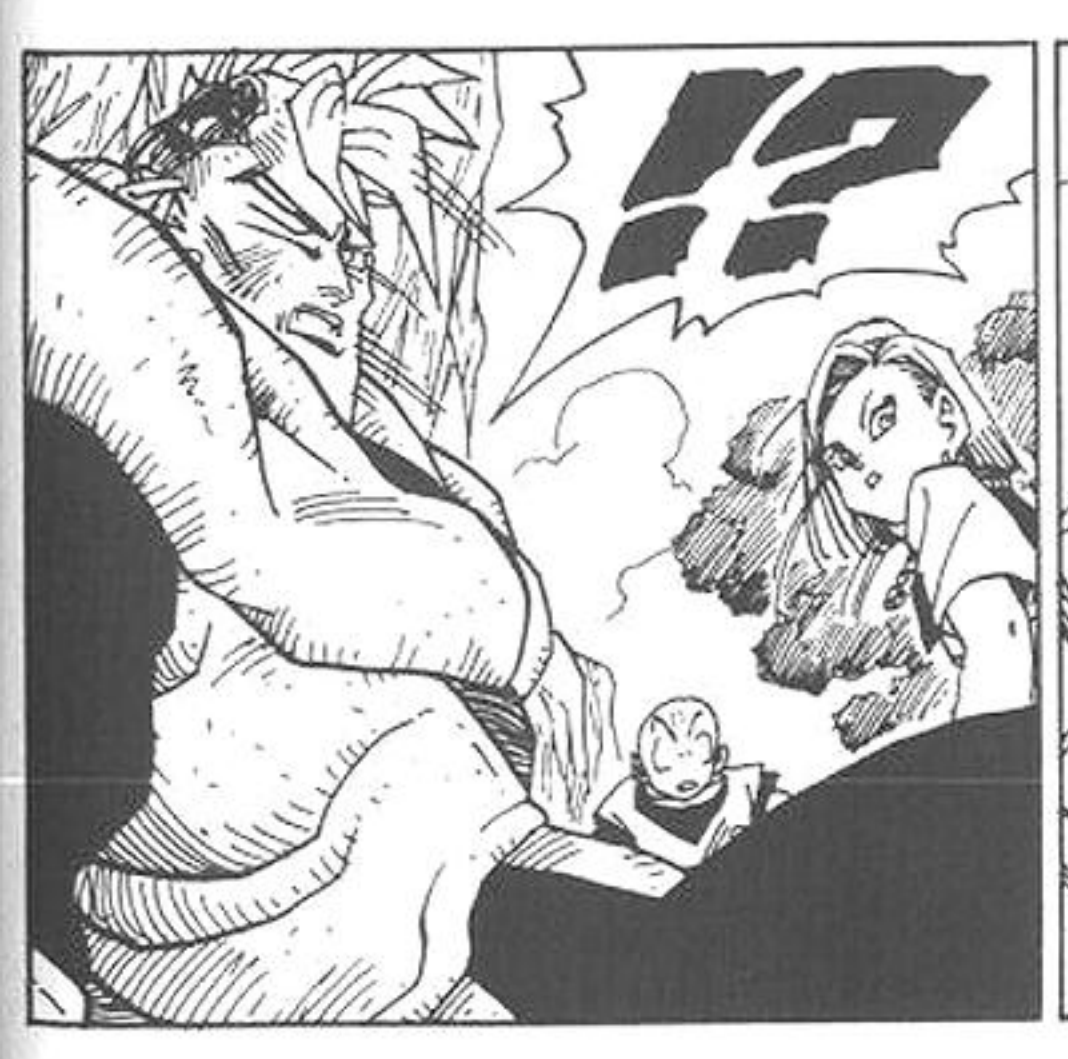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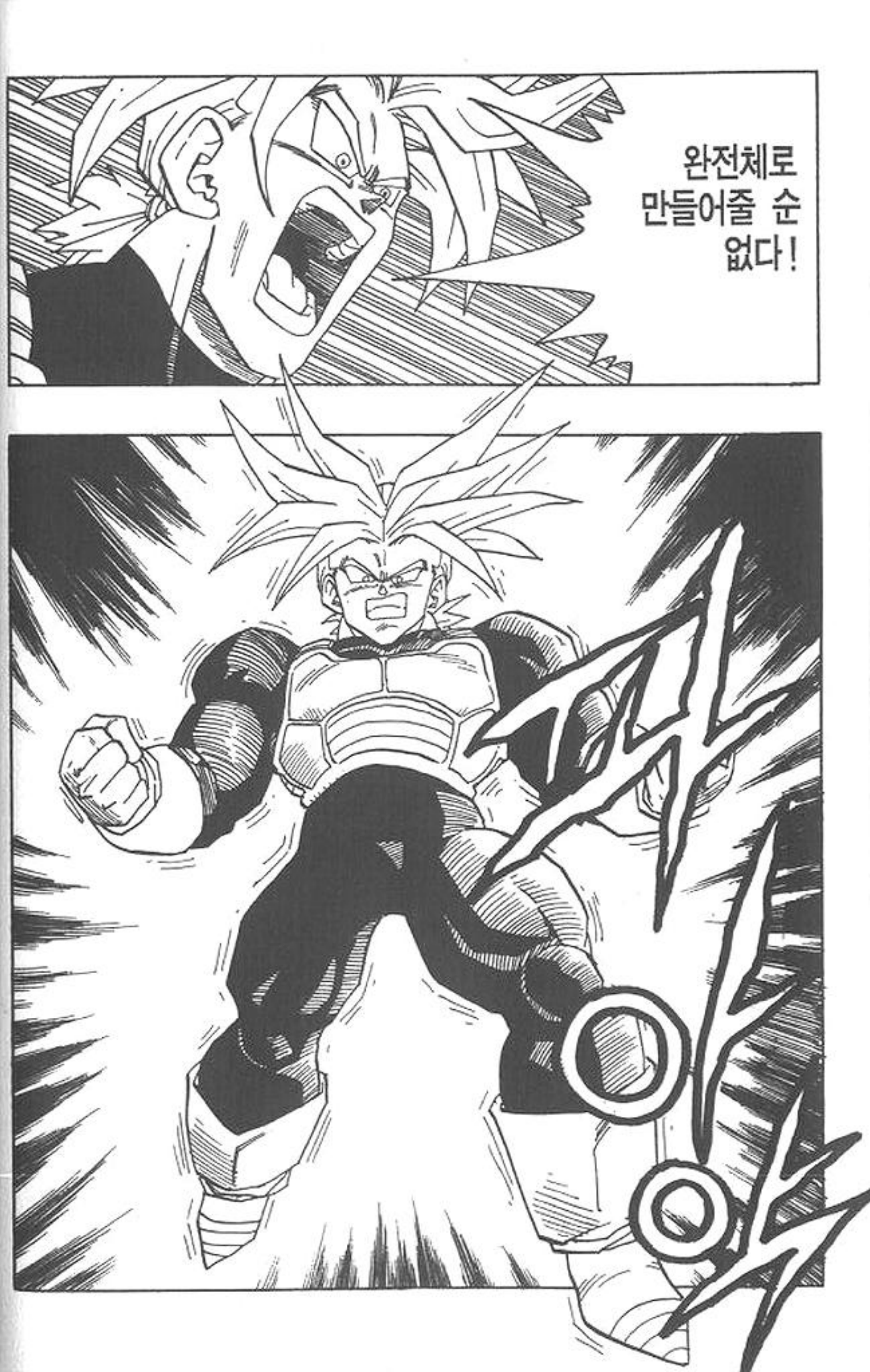
이쪽 상황을 모르고 있어…!
저건 인조인간! 크리링 아저씨도 함께 있다니…!?

셀에게 발각됐어 —!!

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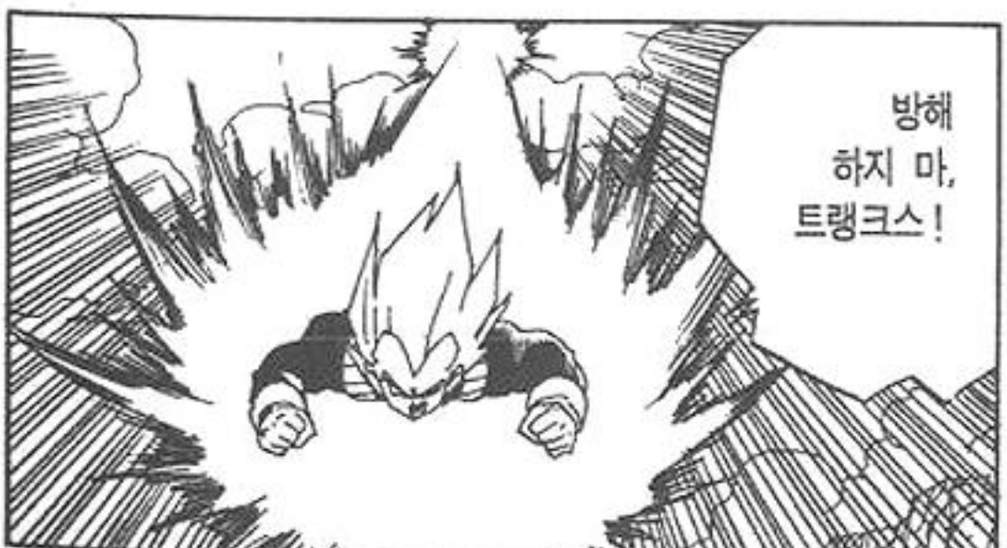


크, 큰일 났다－!!
!!
!!
!!


완전체로
만들어줄 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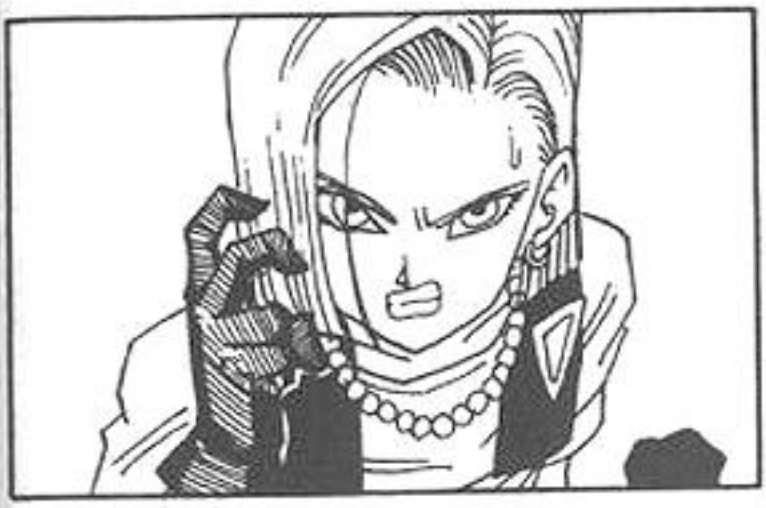
쿠아아아아아

운 좋게 여기 인조인간이 있었다니….
그랬었군….


방해 하지 마, 트랭크스!

scanned by raprnb

ドカ



너…,
너 이 자식…!

제… 제길.
베지터
자식…!

베지터도
내가 완전체가
되는 걸
도와준다고
했다구.
후후후….
무리하지 마라,
16호.
넌 이제
정지되기
직전이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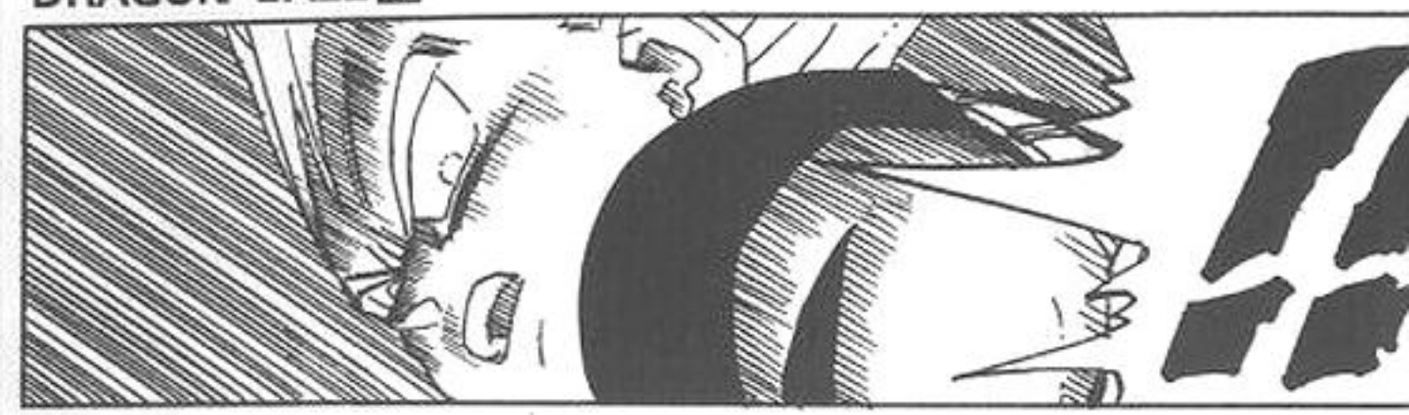
잘 가!
투우우우…

만약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다면 어떡하란 말야!?
아버지, 잘못 판단해선 안 돼! 저 녀석을 완전체로 만들어주면 큰일난다구!

난 그딴 거 흥미 없어…!
지옥 같은 미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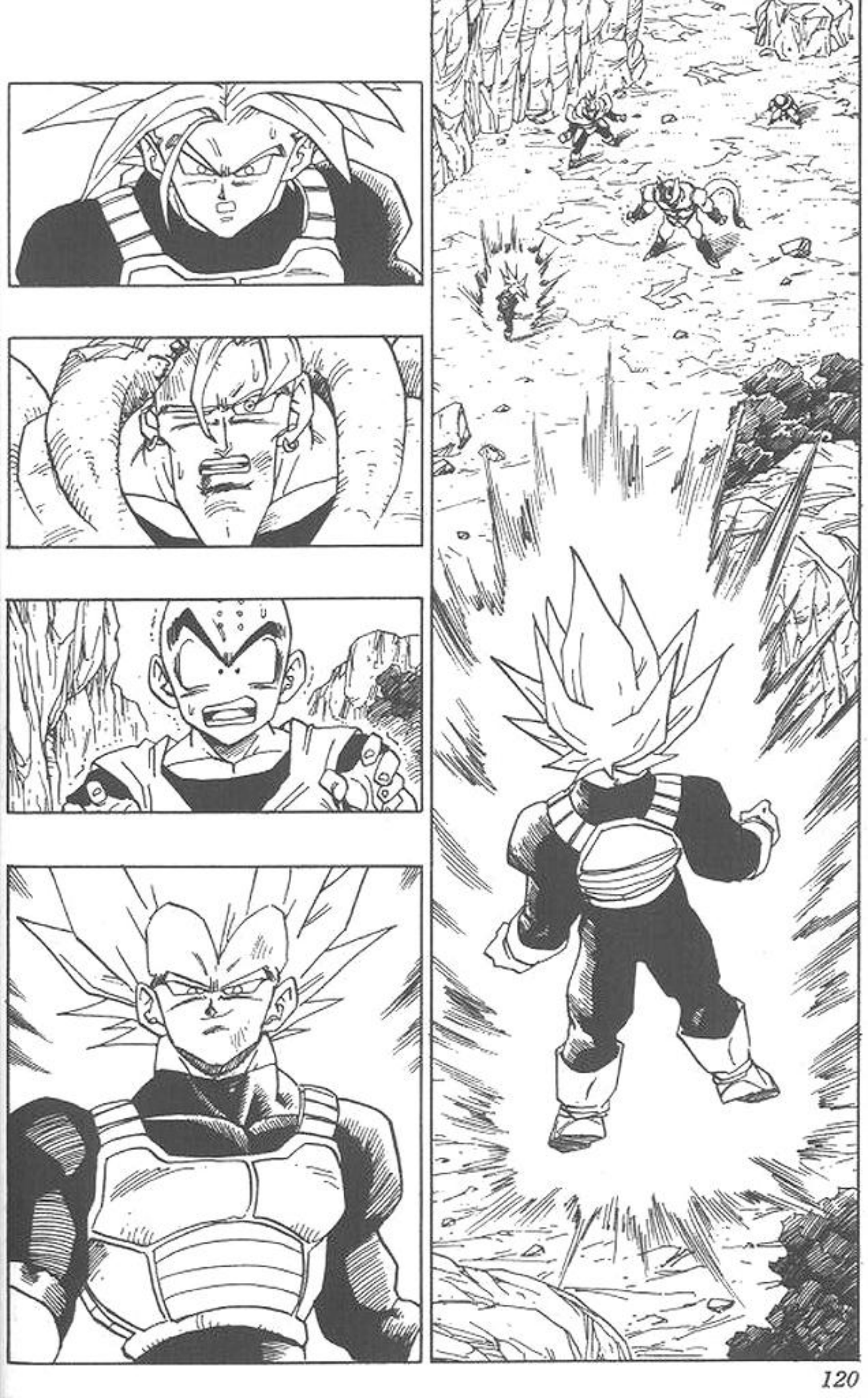
불쌍한 녀석…. 얼마나 강해지는가 보고 싶지도 않은가 보지.
흥….

날 쓰러 뜨린다고? 후후후….
네 녀석이 아버지인 날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난 셀이 완전체가 되는 걸 막겠어!!
아버지를 쓰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태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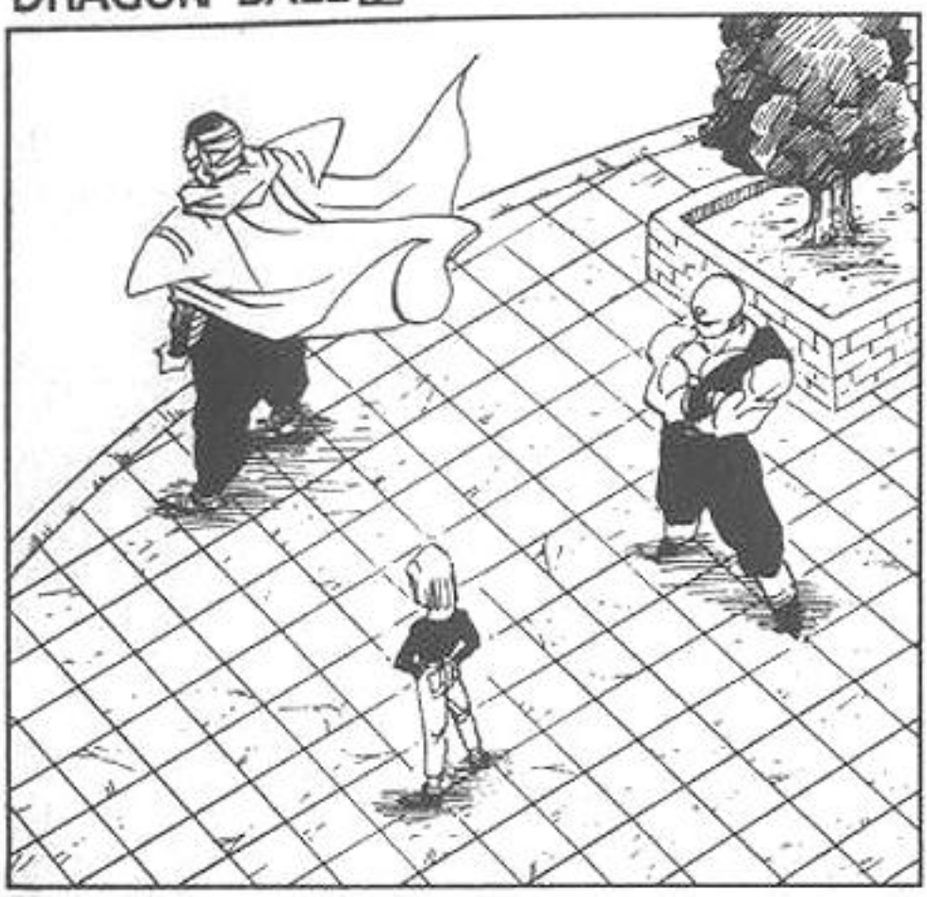
다음은, 제382화 완전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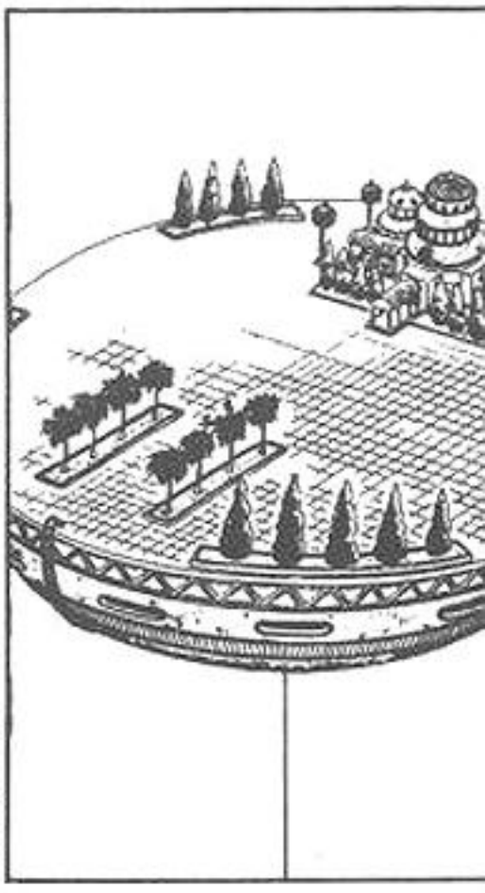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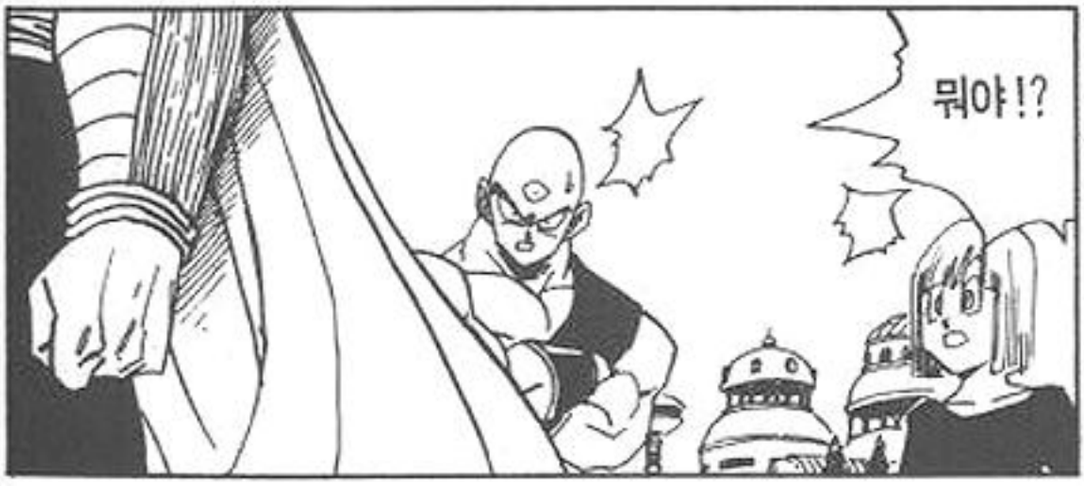
이…
이 자식
~!
지금 즉시
박살내
주마!
드디어
완전체로
변신하는군…
이번엔
진짜 날
실망시키지
마….

타앗!!
큭!
으윽!
제…
제길…!

드디어
완성
이신가…






뭐야!?

셀이 완전체가 됐어….

컨트롤러는 크리링 자신이 부숴 버렸다….

그럼 크리링은 내가 만든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은 거야!?

다 니
책임이야….

베지터
녀석…!

나도
몰라.

뭐?
왜
그랬지!?

하아아
아아…!!

으…으그그
그극…!!

잘한다,
오반아!
대단한걸!

이렇게 빨리
초사이어인이
되다니!

헉!

헉!

하앗
!!

조금씩!
조금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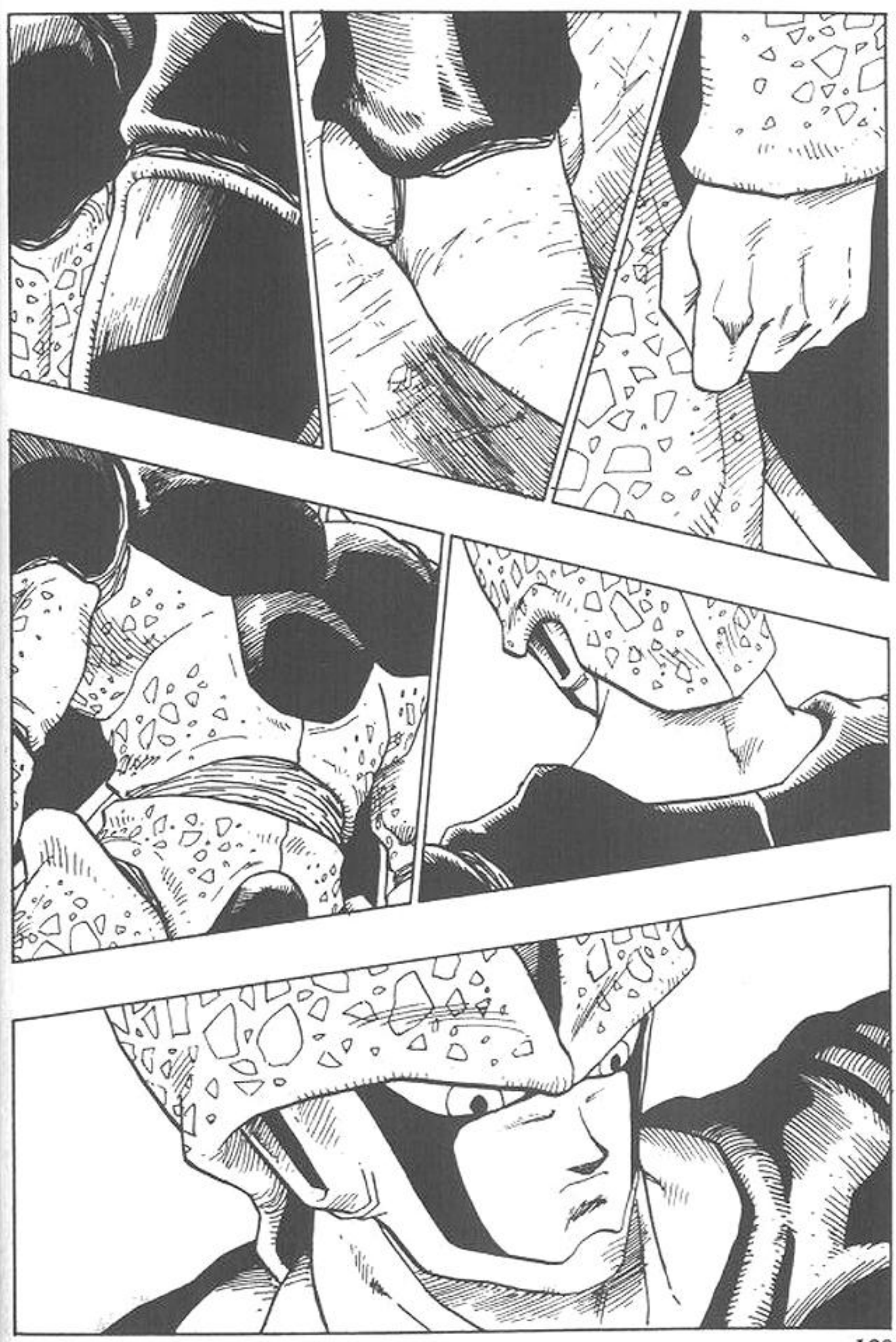
그대로!
이번엔
그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혀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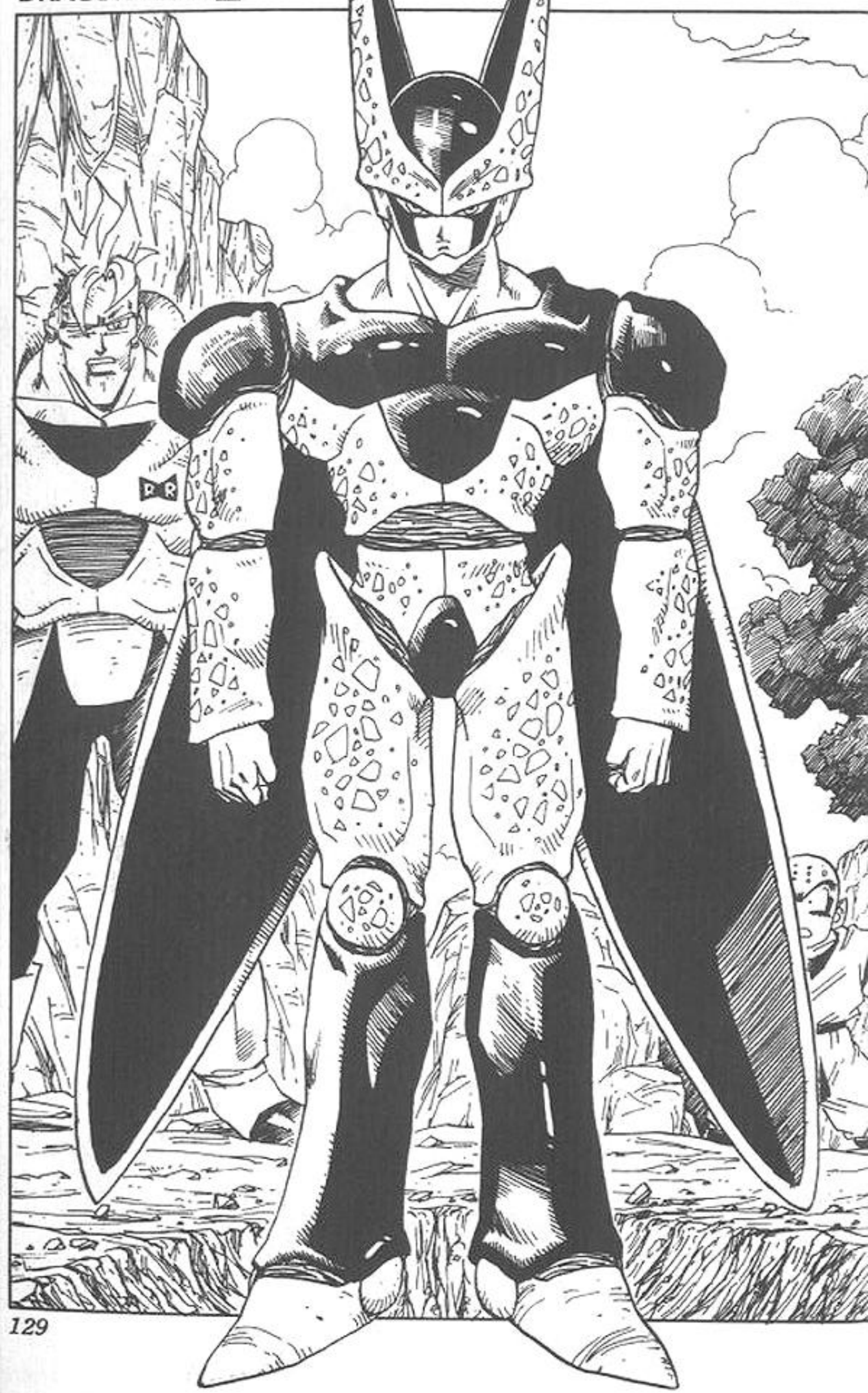
으으으…!

무쓴 소리!
조금씩 완성해
가면 돼.

잠깐 쉬자.
머리가 좀 긴데,
잘라줄까?

아…
아빠…,
너무
어려워…!





체격도 전보다 작아졌잖아.
키키킥…. 역시 완전체라고 해봤자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

크… 크리링 아저씨…!

가…, 감히 네가 18호를…!
제… 제기랄!!

이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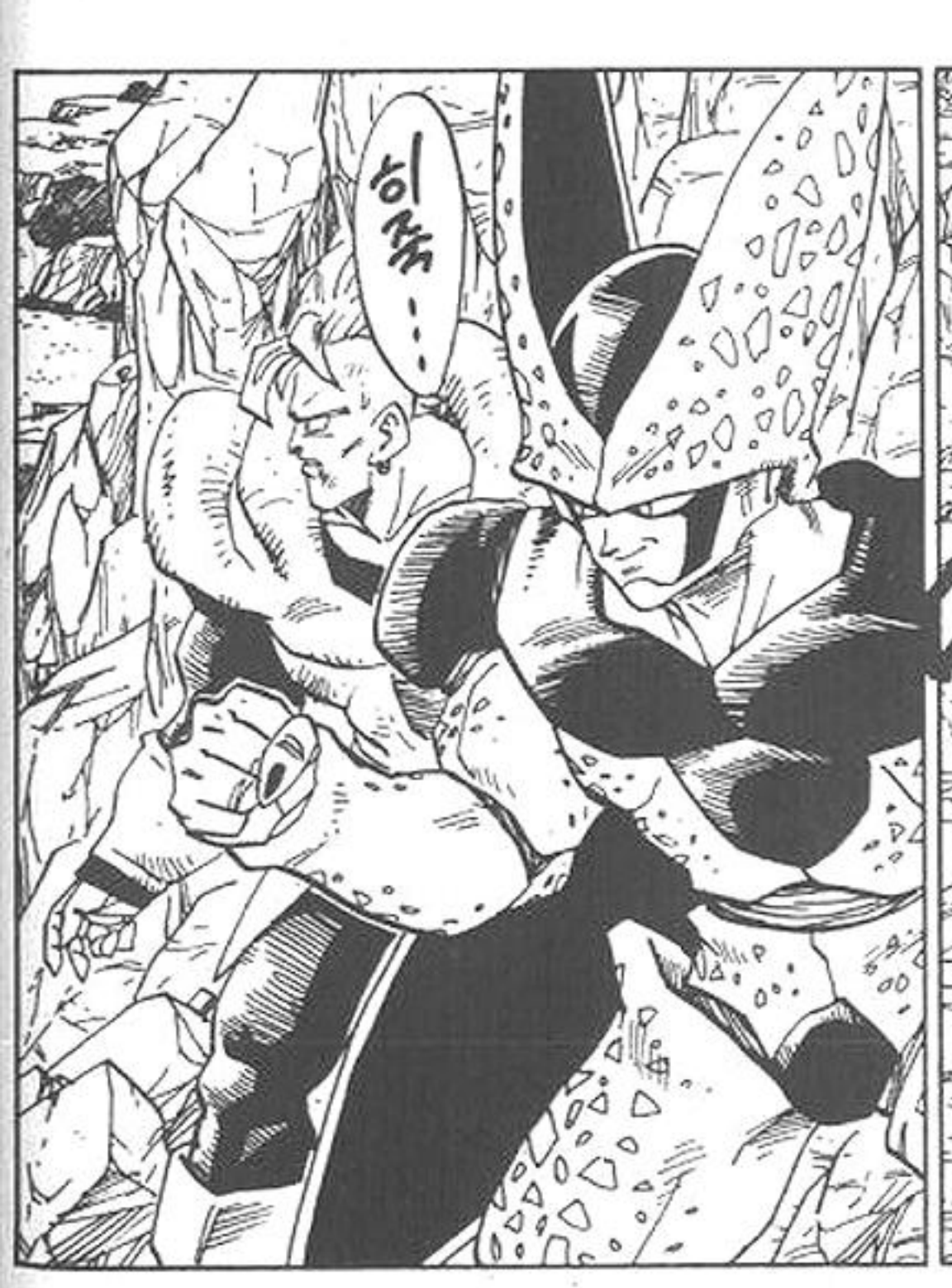
……
죽어라!!
이…
이럴 수가…

하앗!!

다음은, 제383화 전세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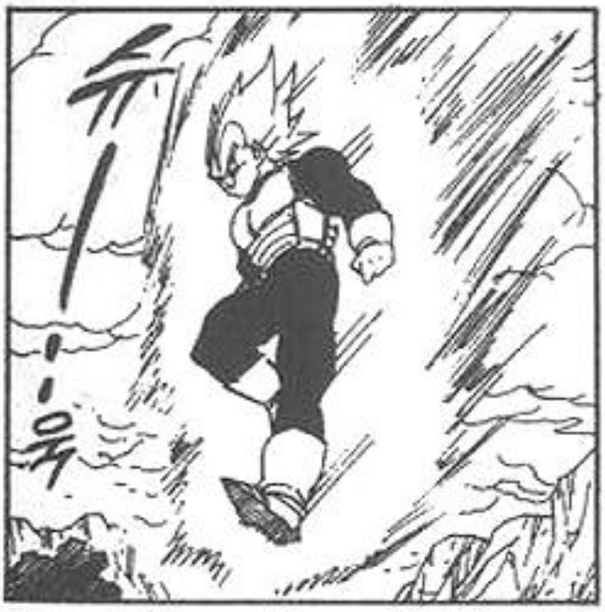
크리링
아저씨!!

크리링
크리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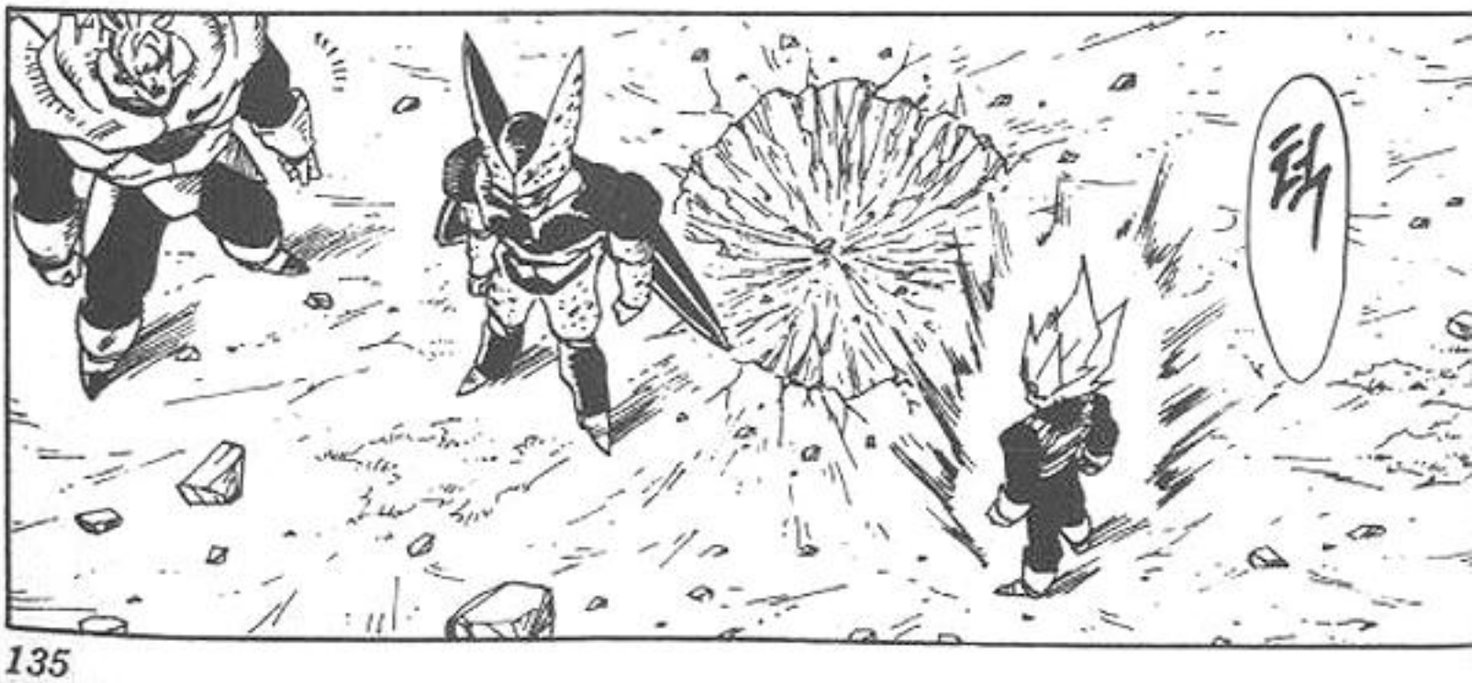

히익--

이거 선두야! 먹을 수 있겠어!?
어떻게든 삼켜봐!

정신 차려!
크리링 아저씨!


슈-우욱

흠…


퍽

역시
내 생각대로
완전체가 돼도
별로 쓸모는
없는 것
같군.

저런
허약한 애랑
장난치는 게
재밌냐?

이거
내가
실례했네….

그럼
네가 나의
준비운동을 좀
도와줄래?

잘
부탁한다.

물론
좋지…!
준비운동과
동시에
넌 끝이야.

큰일날
현했어,
모든 게
끝장인 줄
알고….

허억!
허억!
다행
이다,
크리링
아저씨!
허억!

하악!

나…, 난 분명
너희 사이어인들과
비교하면 전혀
쩝도 안 된다….

뭐!?

자칫하면
베지터는
죽는다구…!
크…
큰일났네…

저… 저 녀석에게는
내 공격이 모기에 살짝
물린 정도였겠지만,
그… 그 파워는
두려울 정도였다…!!
그… 그러나 상대의
강력한 파워 정도는
대강 느낄 수 있어….
세…, 셀 녀석의
파워는 무시무시했어….

저… 저 녀석은 더욱 엄청난 파워를 숨기고 있다구…!
지… 지금 겉으로 느껴지는 기 따위로 녀석을 평가해선 안 돼….

아…, 알고 있어…?

!

너처럼…!
마치 트랭크스….

내 말이 맞지?
넌 베지터가 넘지 못한 장벽을 넘어버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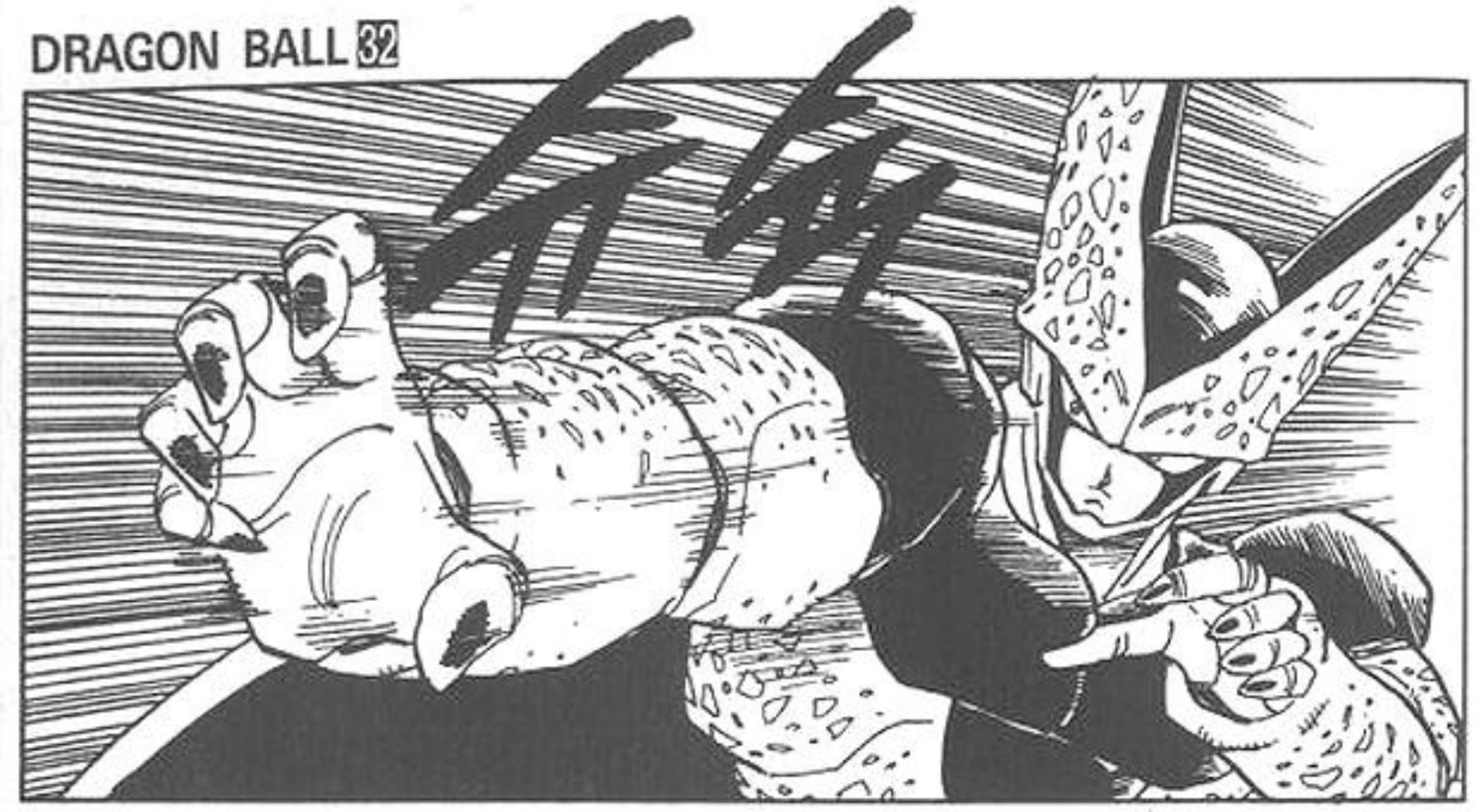
베지터는 원래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쩐지 알 것 같아….
네가 베지터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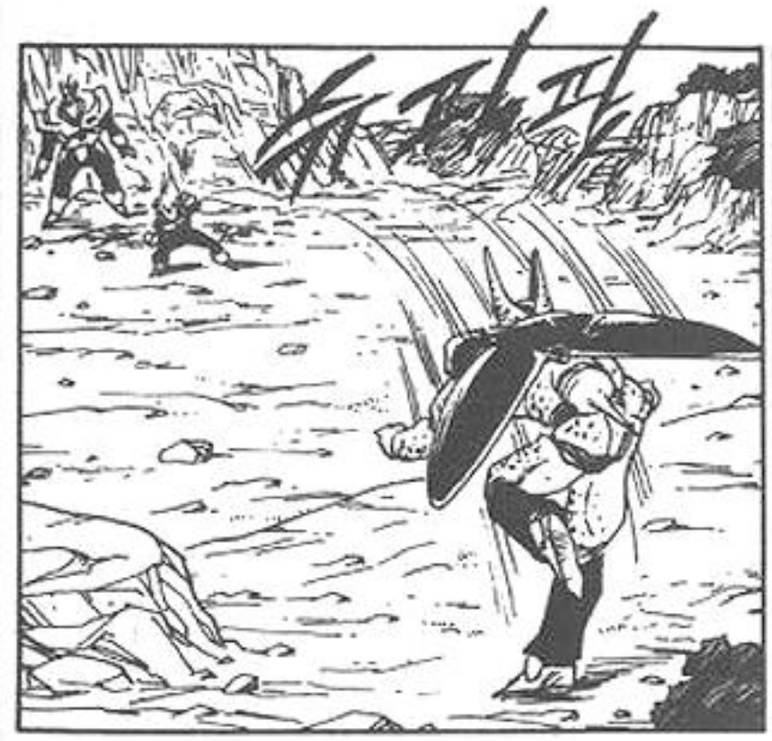
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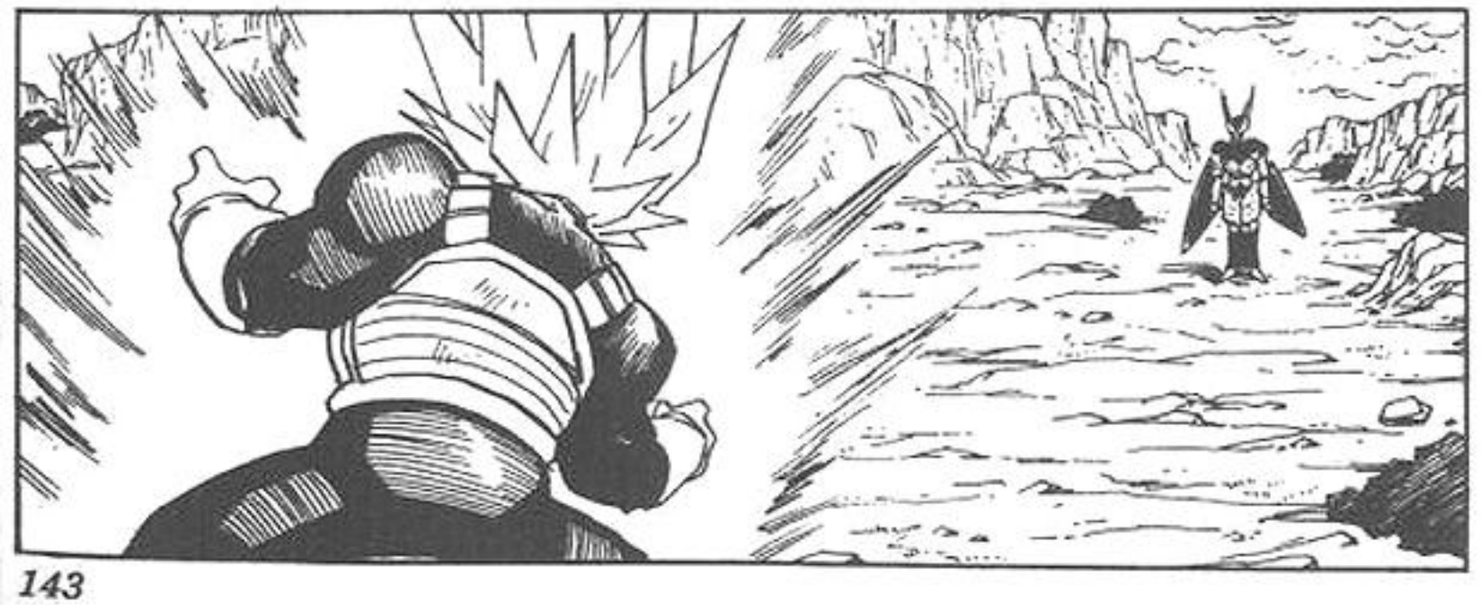
FOLO
FOLO

지금 저 모습처럼 엄청난 파워를 손에 넣은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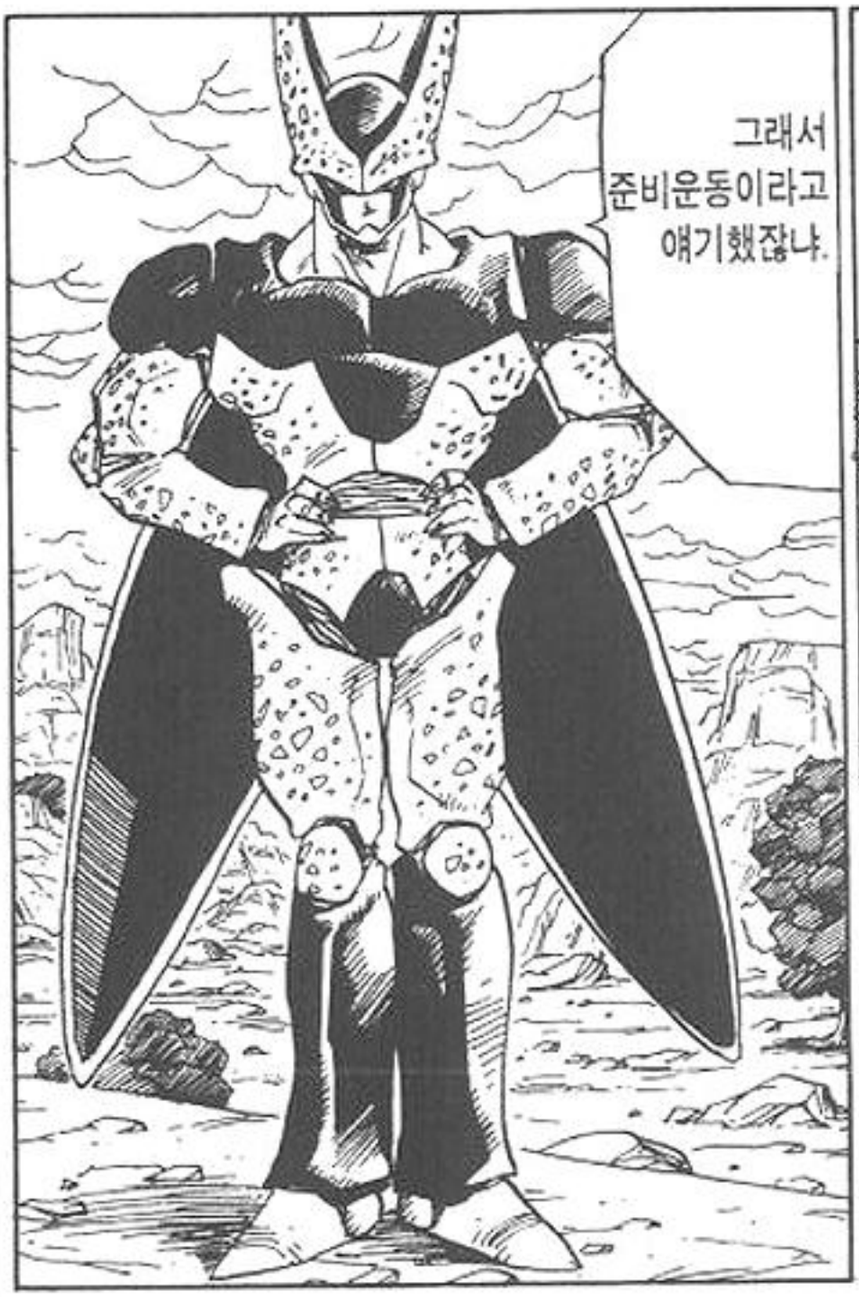
아버지는 분명 초사이어인의 한계를 넘었어….







그러나…. 베지터 쪽이 아직 모든 점에서 셀을 압도하고 있어….
세…. 셀은 확실히 꽤 강해지긴 했다….


그래서 준비운동이라고 얘기했잖냐.

이… 이 빌어먹을 자식….
너, 이 자식. 진짜 싸우는 게 아니잖아….

뭐라고…!?
!!

그럼 약간 힘을 써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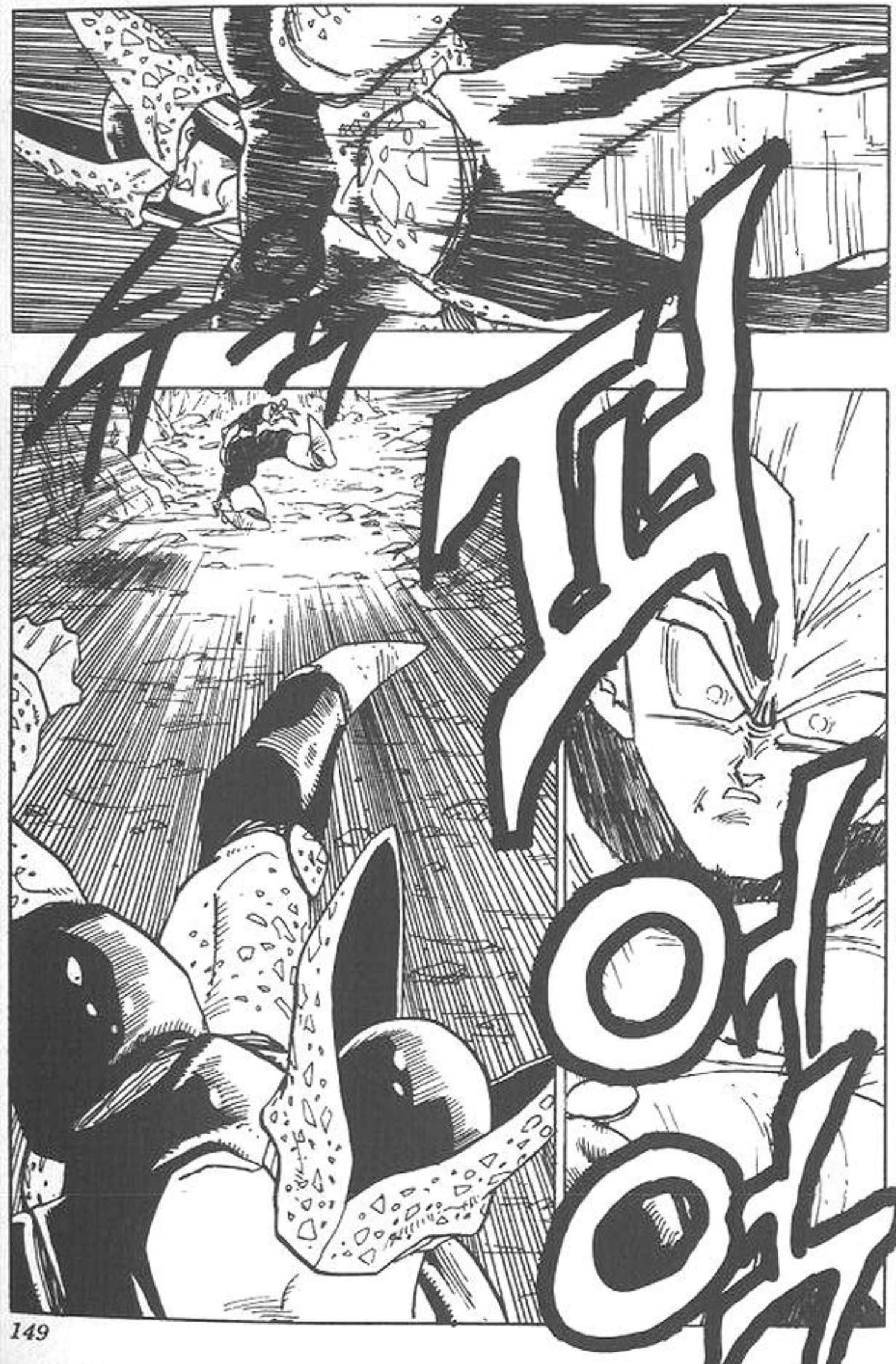
나에게 열나게 당했던 게 억울하지도 않냐, 셀…!?
진짜로 싸워라!

아니!?
퍽
퍽

다음은, 제384화 베지터, 집념의 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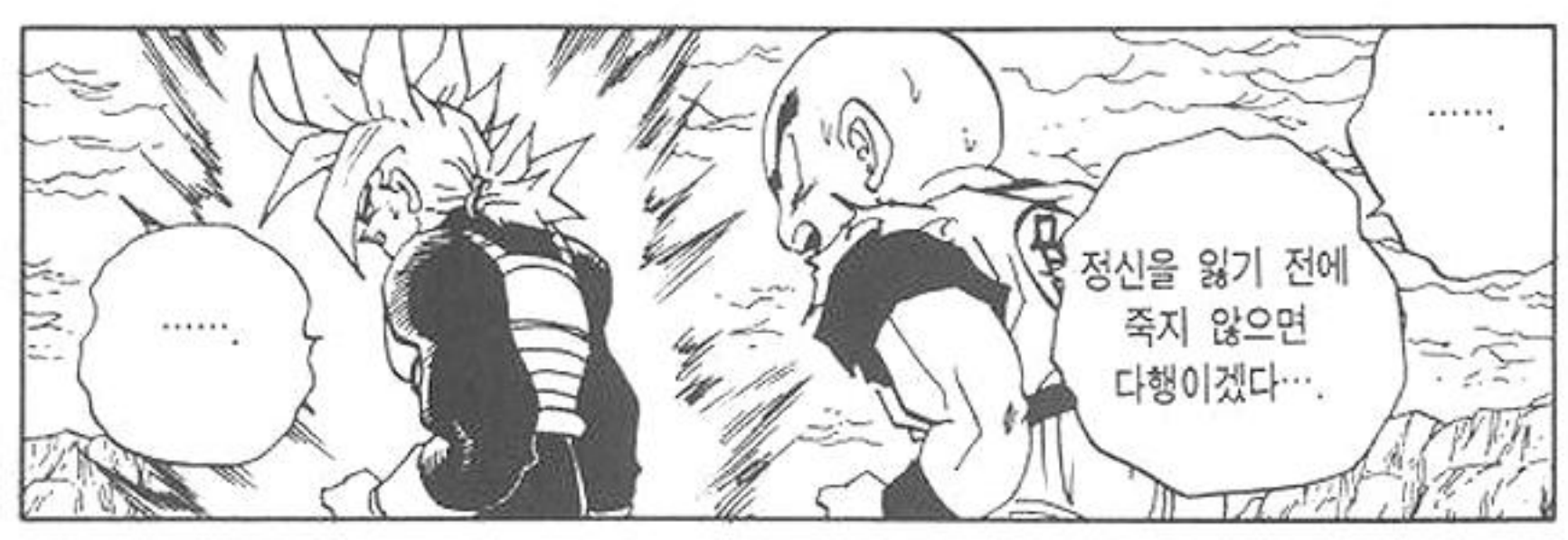
웃어봐, 베지터.

표정이 왜 그래? 방금 전까진 기세등등 하더니….


OH
OH

크헉…
헉!
헉…

이런, 이런….
실력차가 너무 커서 전투가 따분하단 소리는 오히려 내가 할 얘기 같은데?
뭐 해, 트랭크스! 빨리 베지터를 돕지 않으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구!
아… 아버지가 셀과의 전투에서 정신을 잃으면 나서겠어….
저…, 정신을 잃으면 아버지를 뛰어넘어버린 나를 보지 못하니까….


……
정신을 잃기 전에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

덤비면
결과가 어떤지
아는 주제에
쓸데없는 힘은
쓰지 마,
16호.

허억
…
허억
…

넌 지금
아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야.

우오오
오오
…!!

파팟

빠 빠 빠 빠
주오오오
빠 빠 빠 빠
아…
아버지…!
베… 베지터 녀석…!
도… 도대체
무슨 짓을 할
생각이지…!

아무리
네 녀석이
완전체가
됐다 해도
이 공격을
정면으로
막아낼 용기가
있을까나－!!

셀－－!!

하하－!
안 될걸!
넌 사실
겁쟁이니까－!

꾸아아---
트랭크스, 빨리 피해!!
지, 지구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 그만 중지해….
싸---!
파이널 프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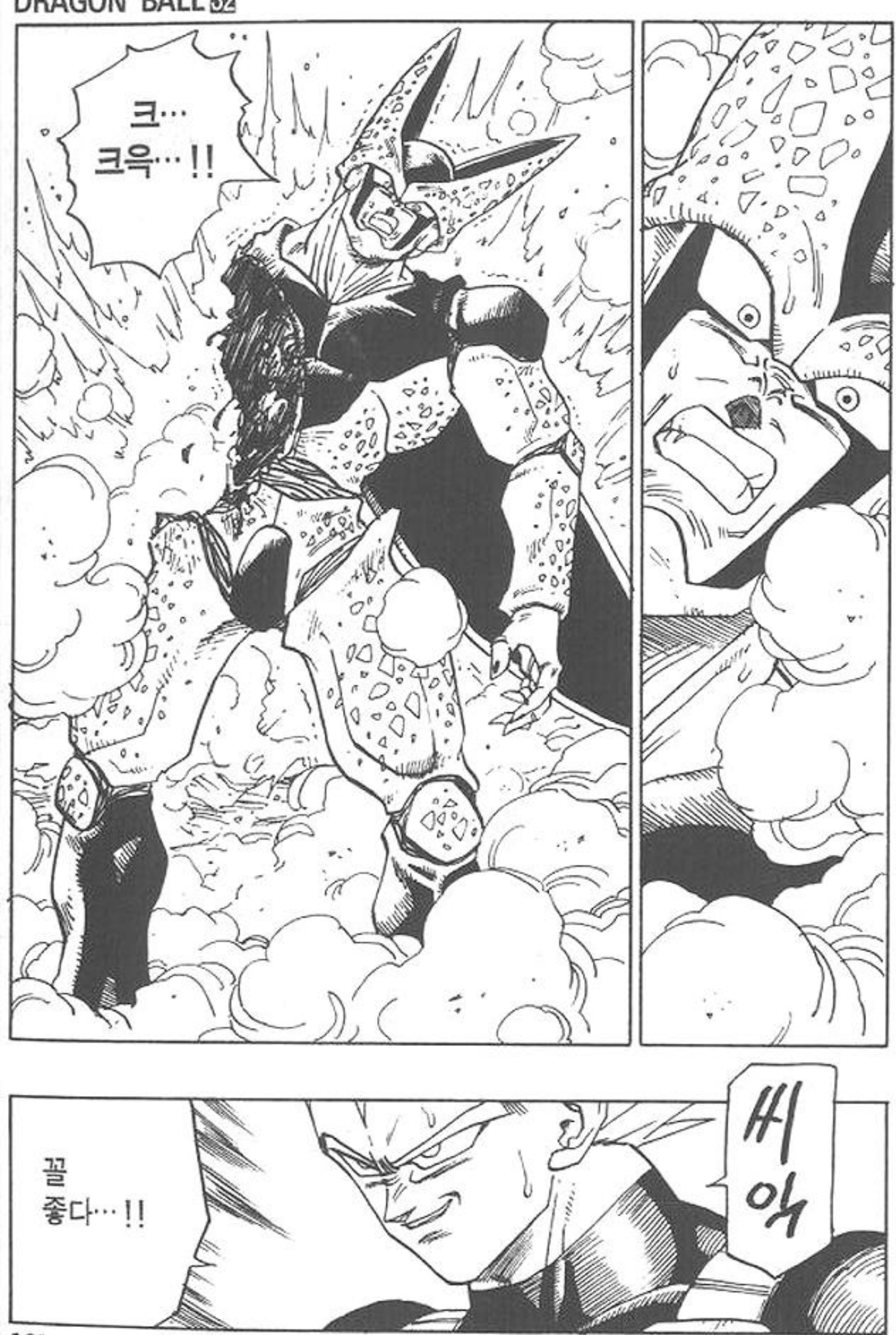
이…
이럴…!

사…, 살았다…!

아버지는 정확한 계산으로 기술 범위를 최소한으로 작게 축소시켰어…!

허억 허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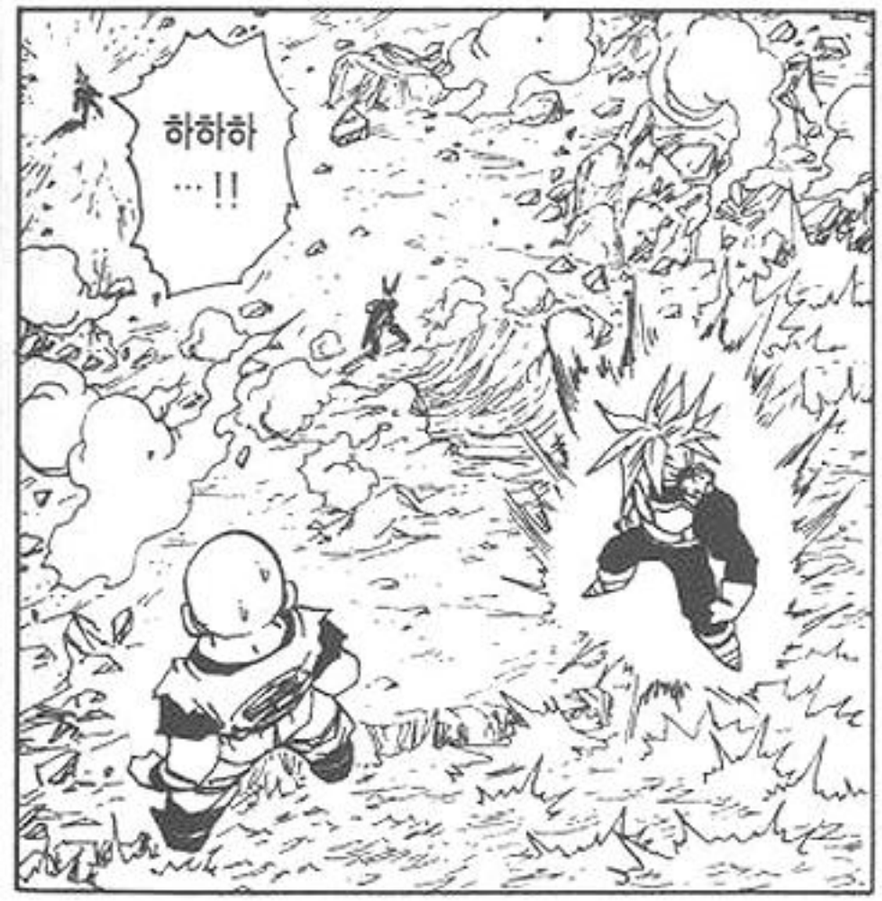
꽤 반응은 있네….



다음은, 제385화 트랭크스 시동

우가가…
아가각…!!

이…
이럴
수가…!!


하하하
…!!

하하하
하하…
크크큭…

베지터가
해치웠다!
해…
해냈어…!

서…,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설마 완전체인 내가…!!

이아…

제… 제기랄…!

으하하 하하— 하하!!

녀석, 좋아하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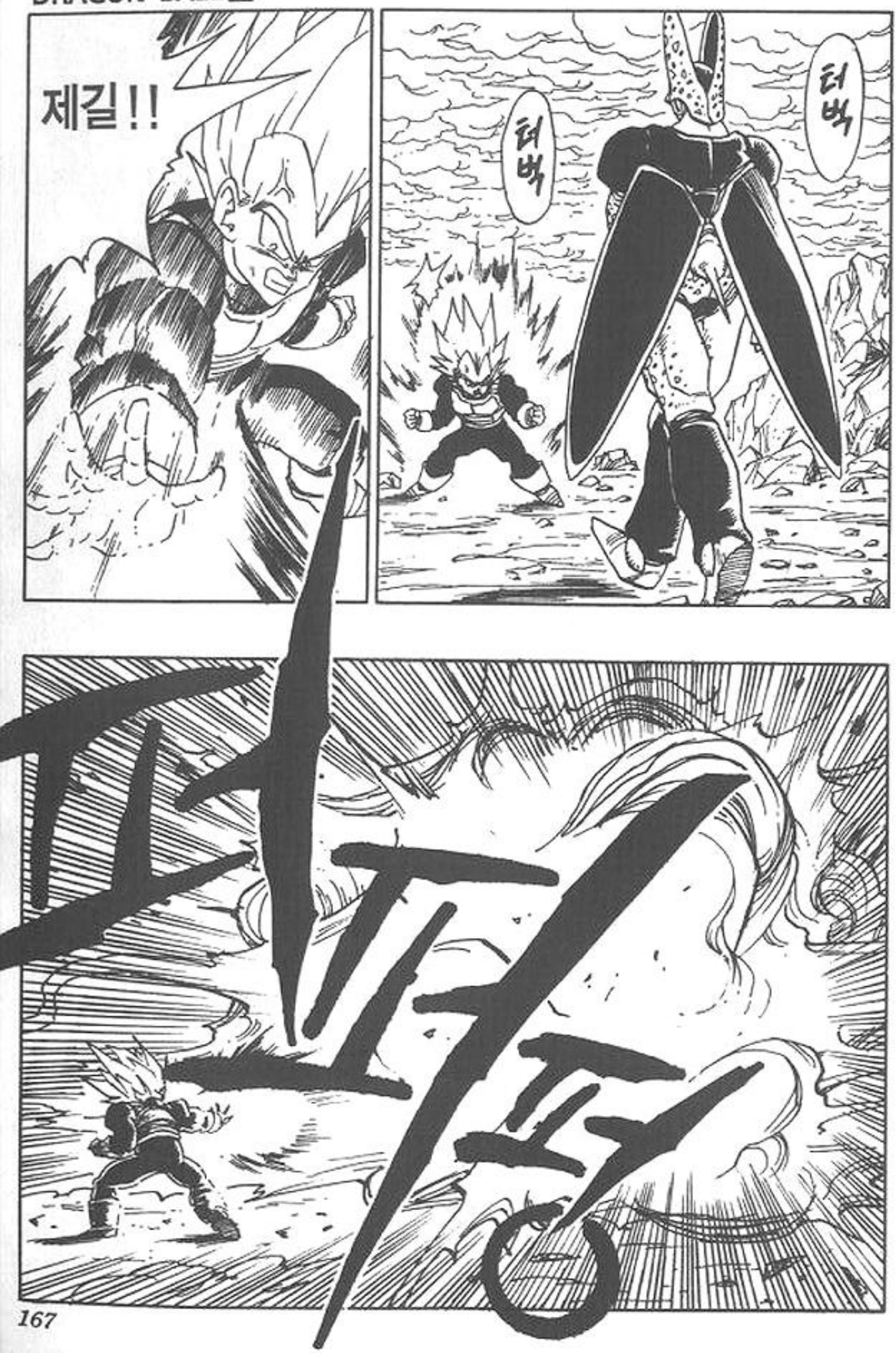
내겐 피콜로의 피도 흐른다는 사실을 잊었냐?
떨떨한 녀석!

구구!
구구

으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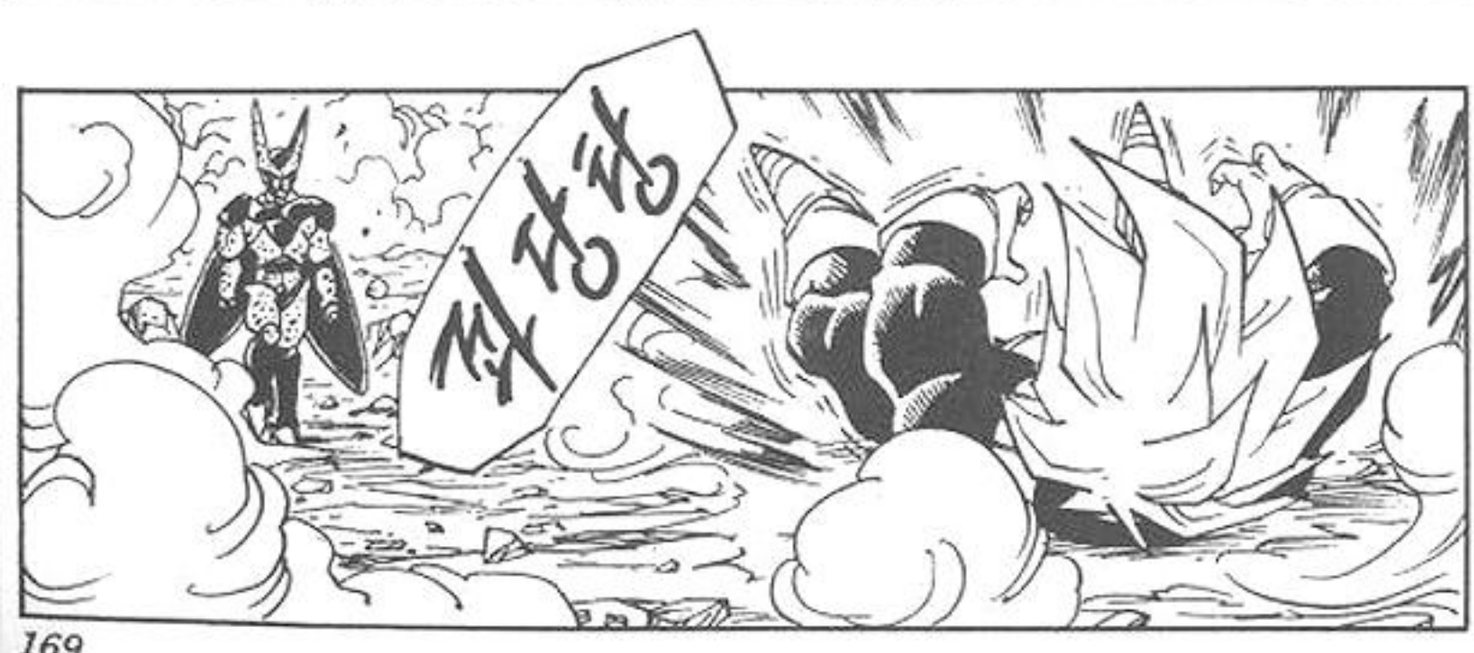
파슈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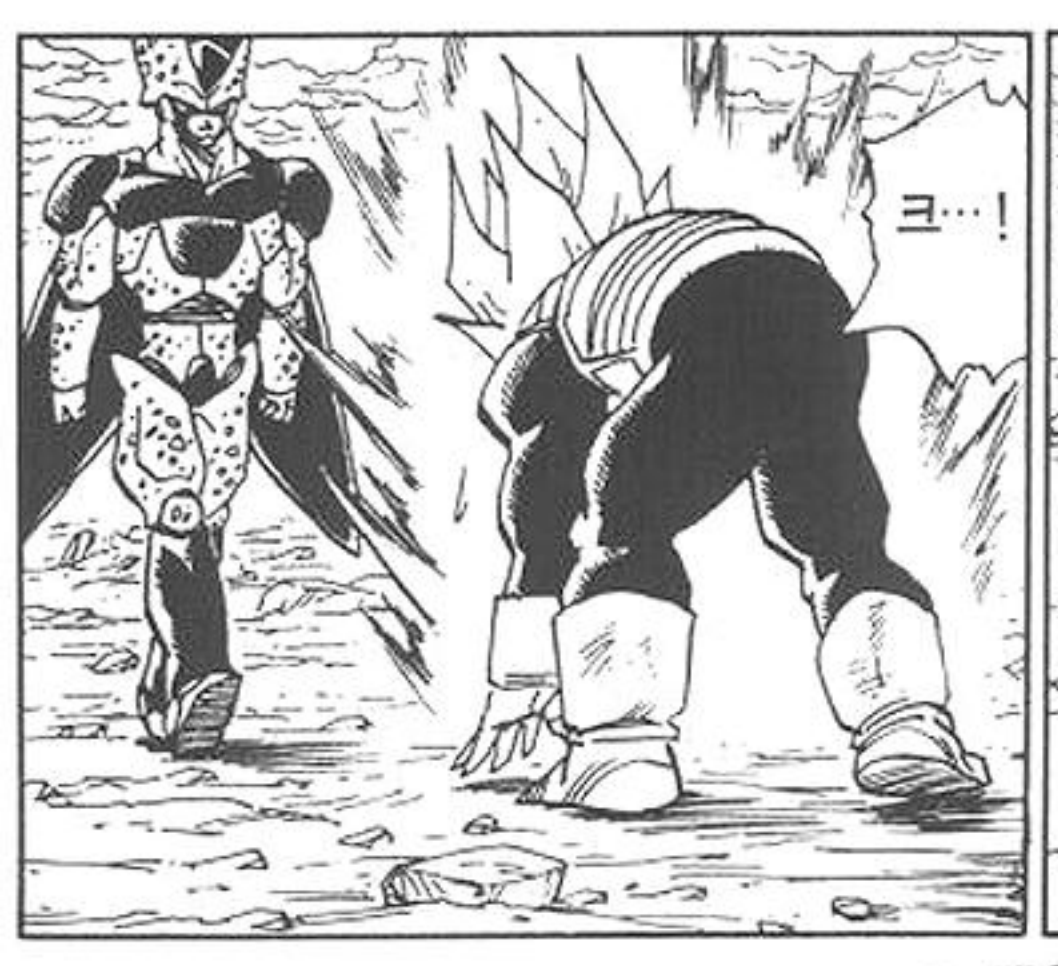
……
저… 저럴 수가…!!
부들부들…
물론 실망이겠지?
슬슬 죽여 드릴까…?
이제….


제길!!
터벅
터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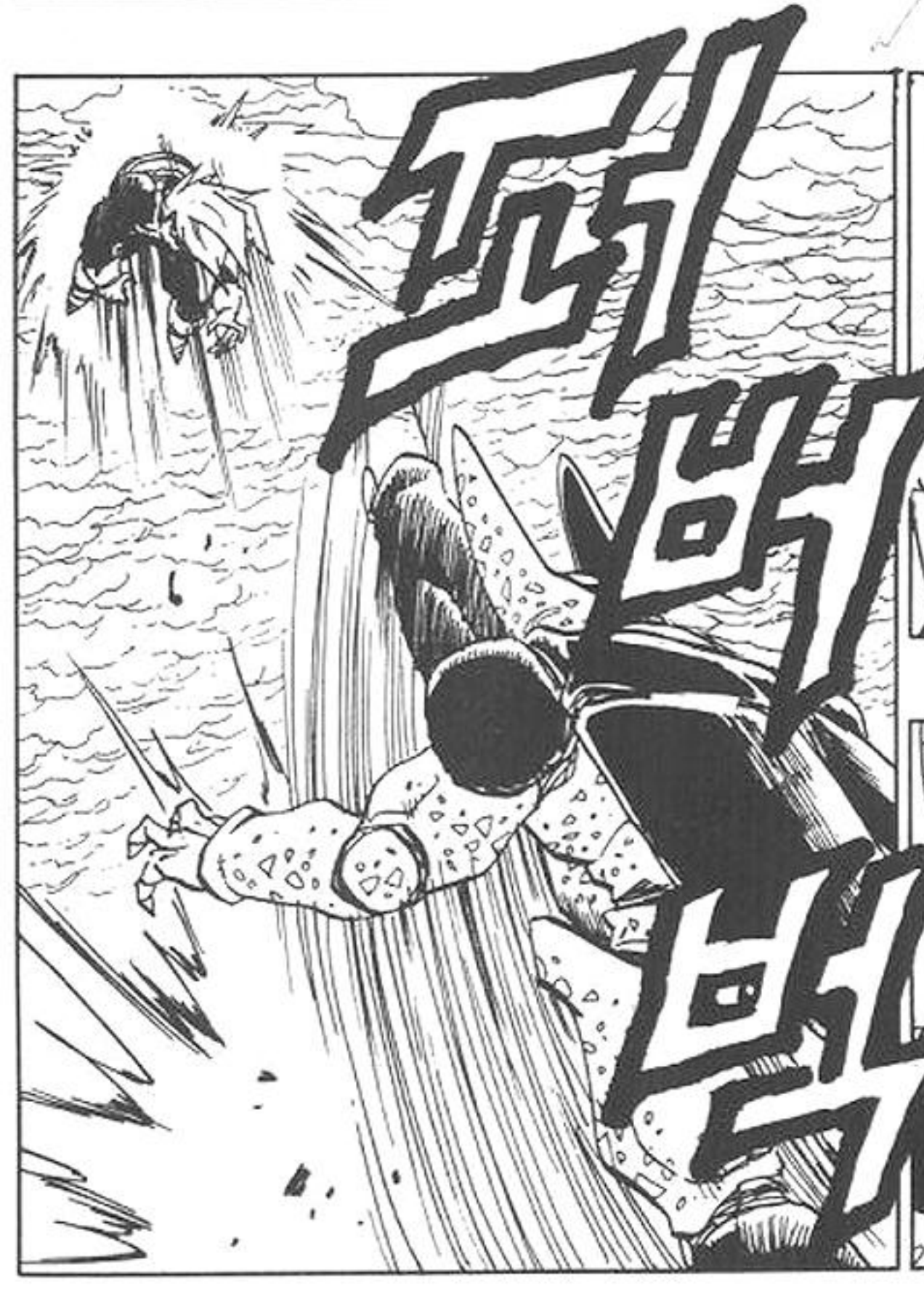
우와앗!!

!!
불쌍하군


역시 강하군


크…!

아으…
으헉…!


쾅
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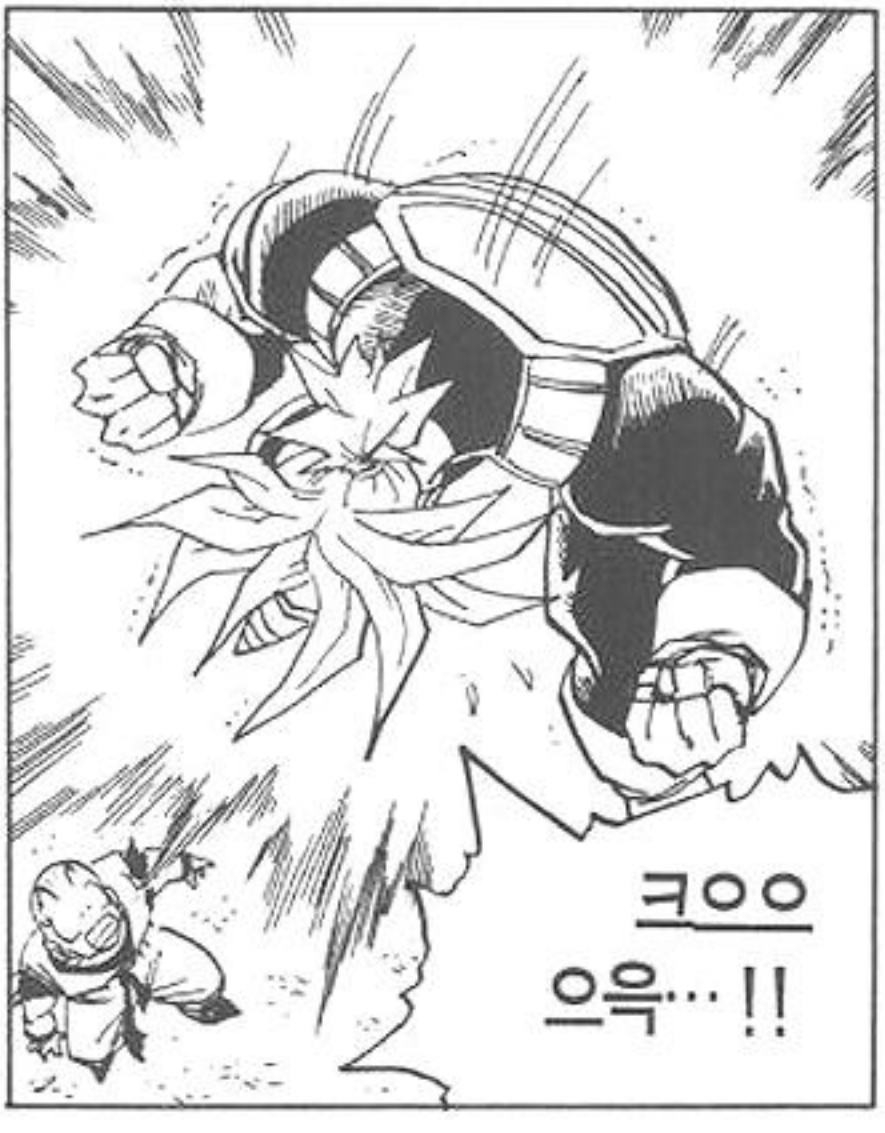
!!

훼 앗
하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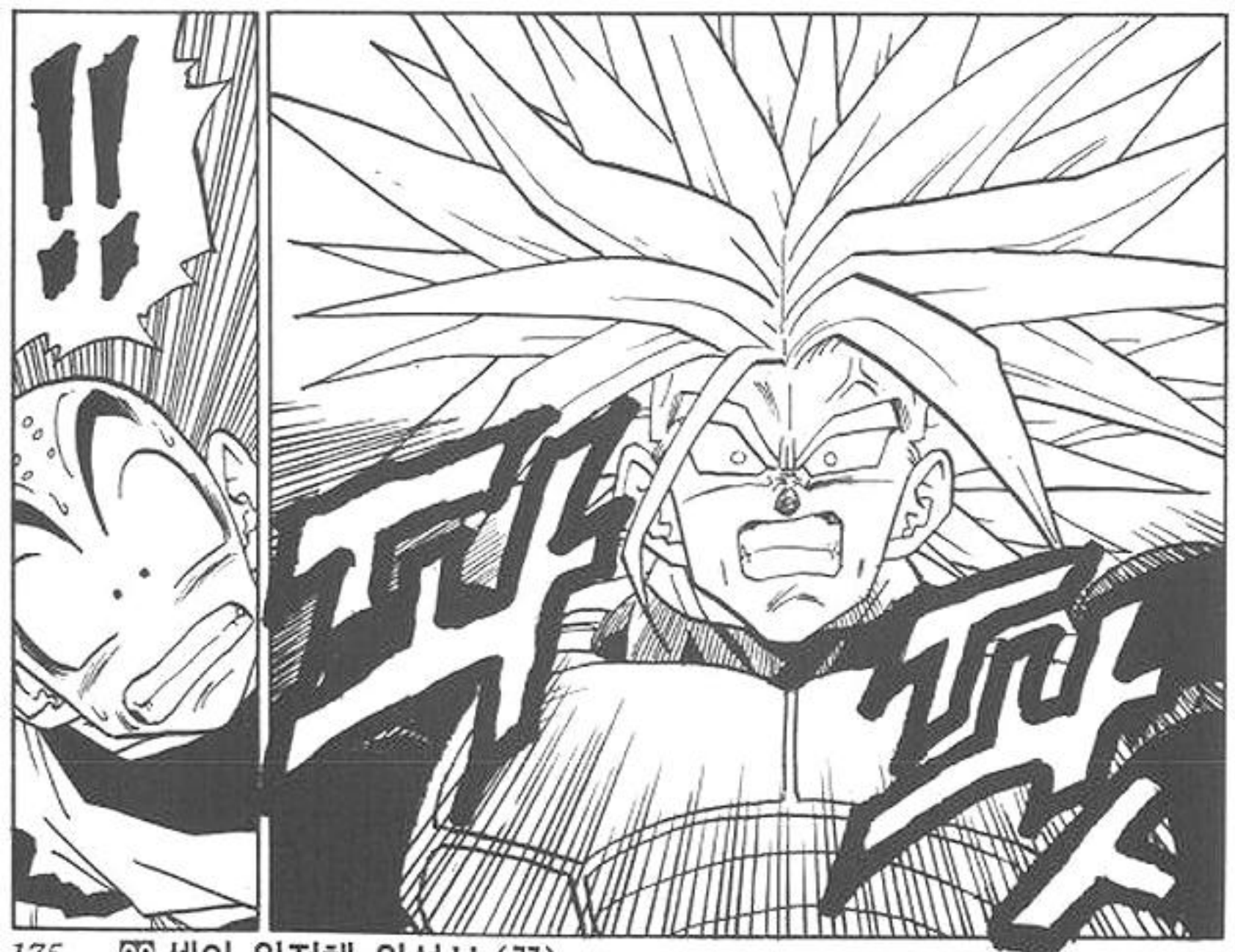
저… 저런! 초사이어인이 풀렸어….
의… 의식을 잃었다! 서…, 설마 죽은 건…!
꽈앙…!

지금이 바로 그 엄청난 초사이어인이 될 때라구!
트랭크스! 기회는 지금이다!
후후후. 끈질긴 놈. 아직도 겨우겨우 목숨이 붙어있다니.
베지터, 지금 바로 편안히 잠들게 해주마.
이 봐…
알고 있어…
우오오 오옷…!!

부르르…


크으으
으윽…!!

퍼
엉


!!

표지 페이지 대특집XXXI

초베지터조차 무너뜨린 완전체 셀.
지금이야말로 아버지 베지터를 초월하는 초전사 트랭크스 탄생의 찬스다!! 필사적인 격전이 벌어지는 다음 권을 참고 기다릴 수 없는 당신!! 주간 IQ점프에 실린 그대로의 표지 페이지 대특집으로 준비운동을 해두자!!!

DRAGON BALL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제376화 베지터의 자신만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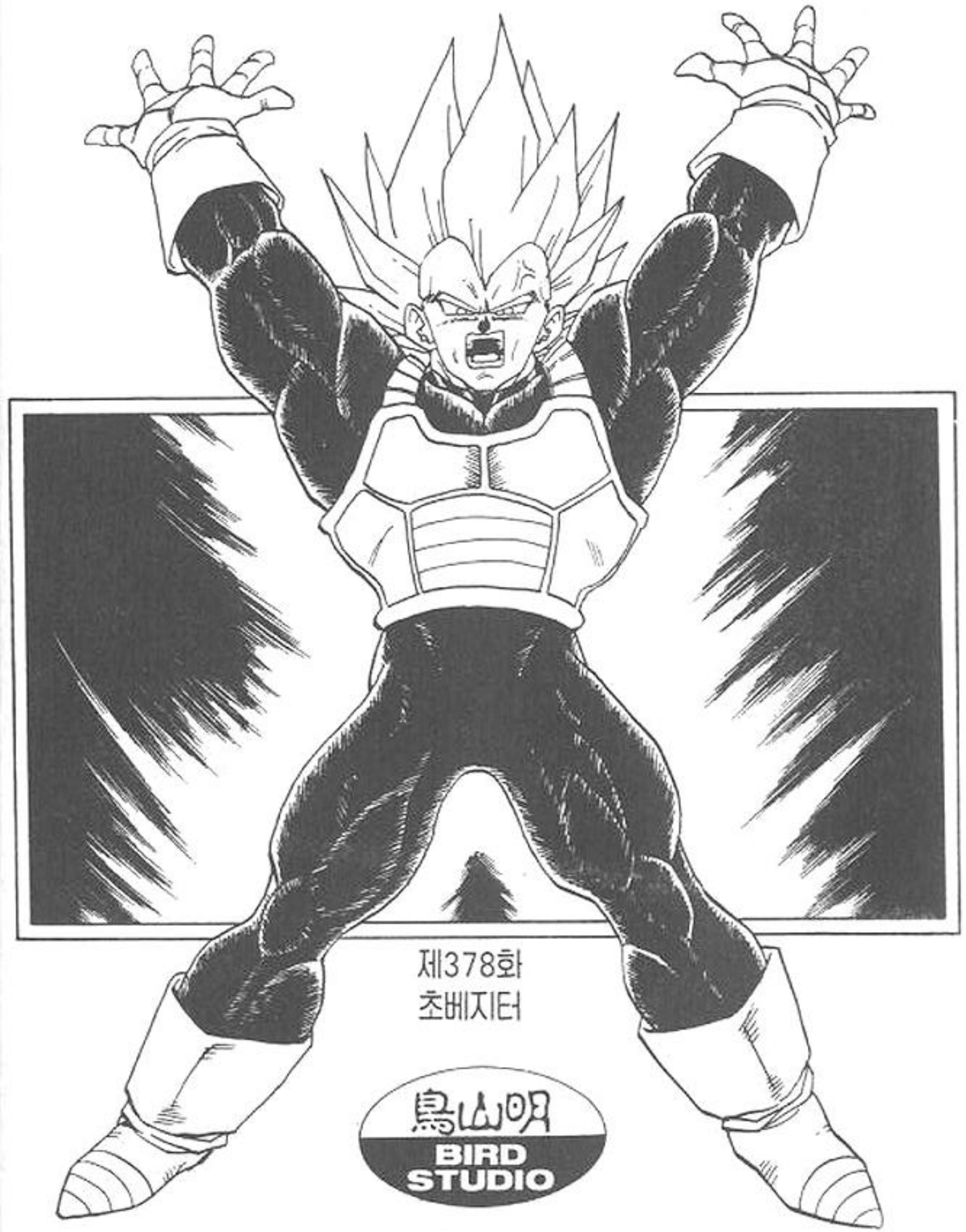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77화 손오공과 손오반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78화
초베지터

DRAGON BALL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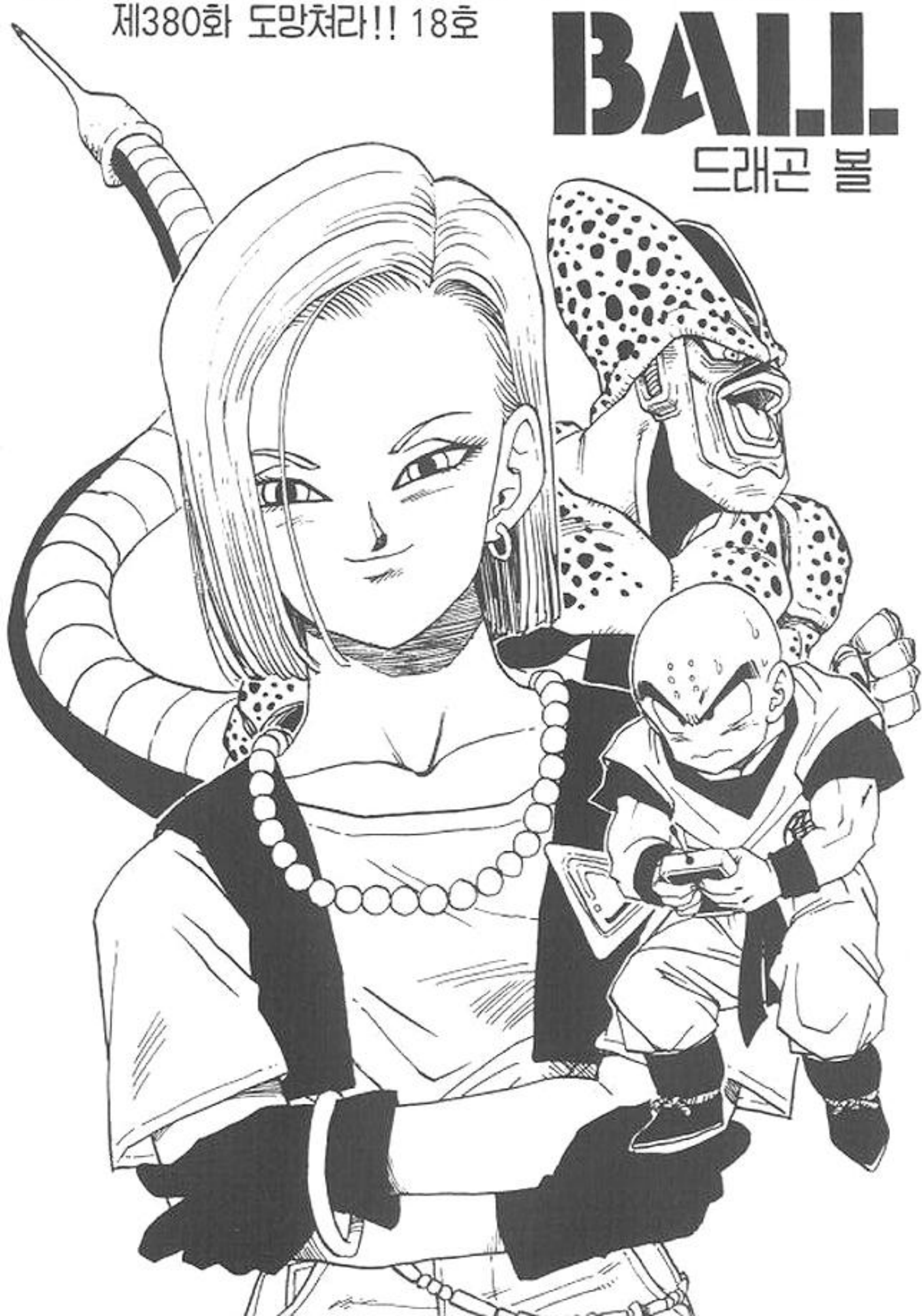
379화 셀의 완전체 실패!?

DRAGON BALL

鳥山明
BIRD STUDIO

제380화 도망쳐라!! 18호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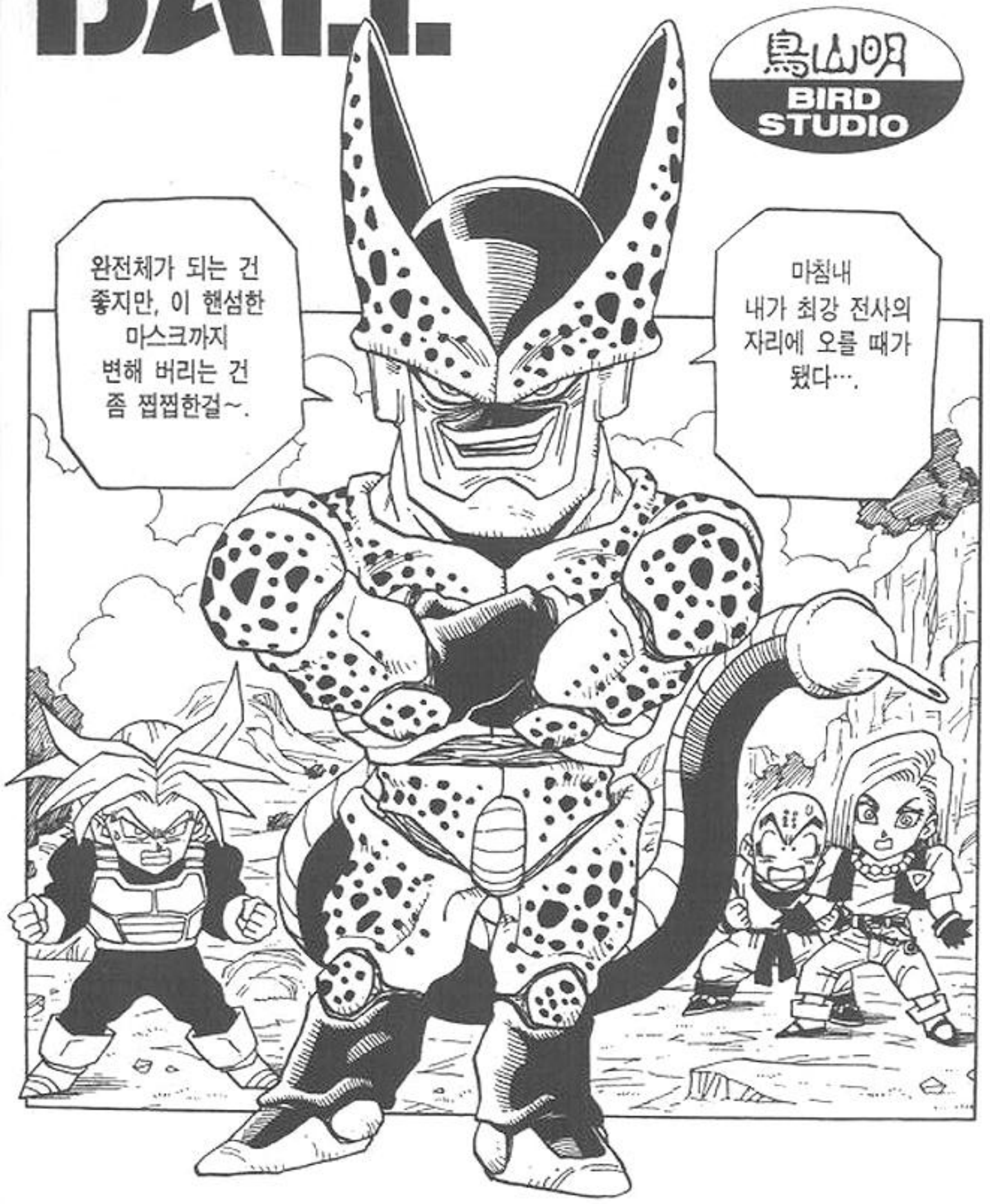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81화
베지터의 호기심이 셀을 구하다

鳥山明
BIRD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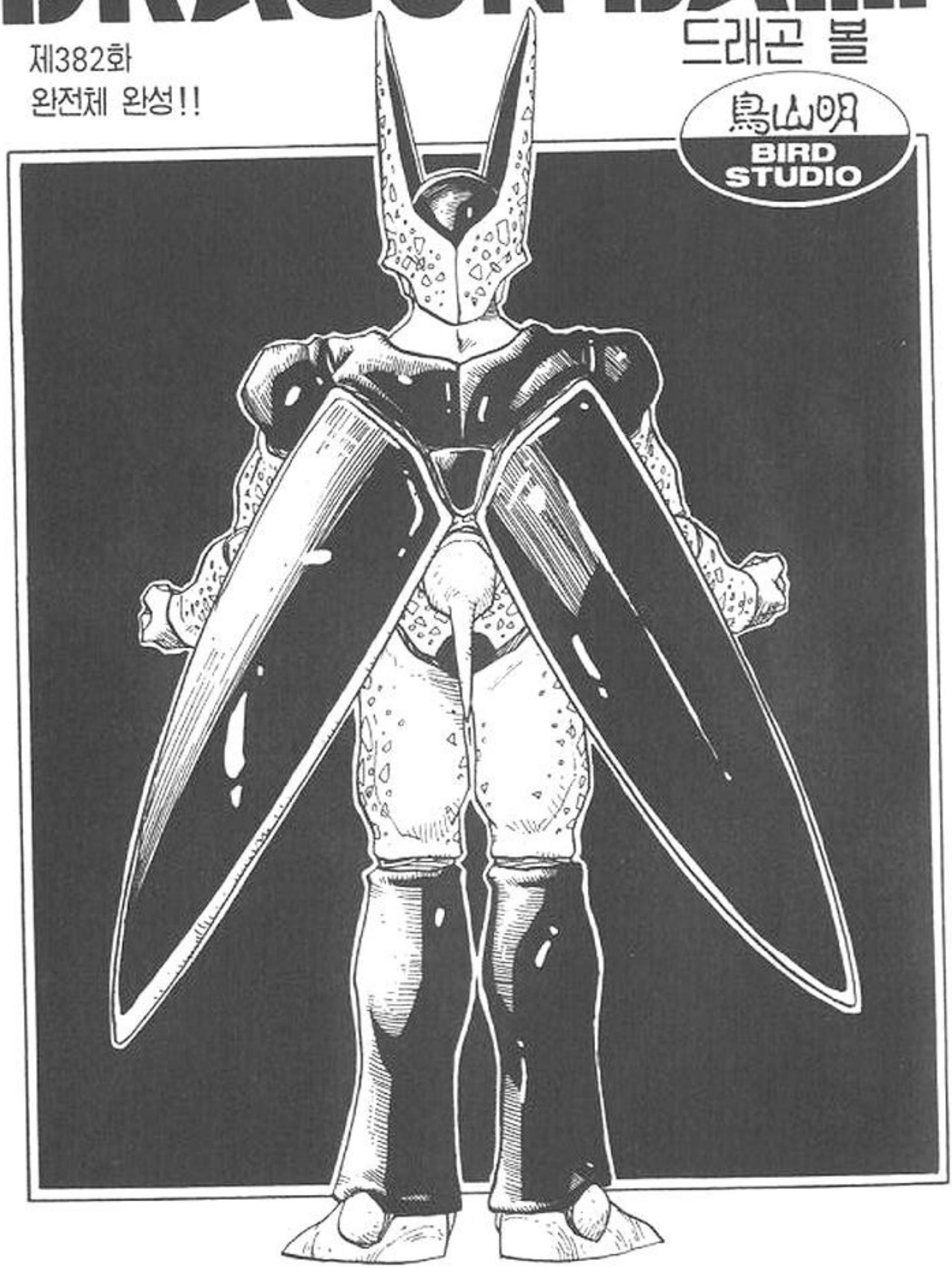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82화
완전체 완성!!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鳥山明
BIRD STUDIO

드래곤 볼

제383화
전세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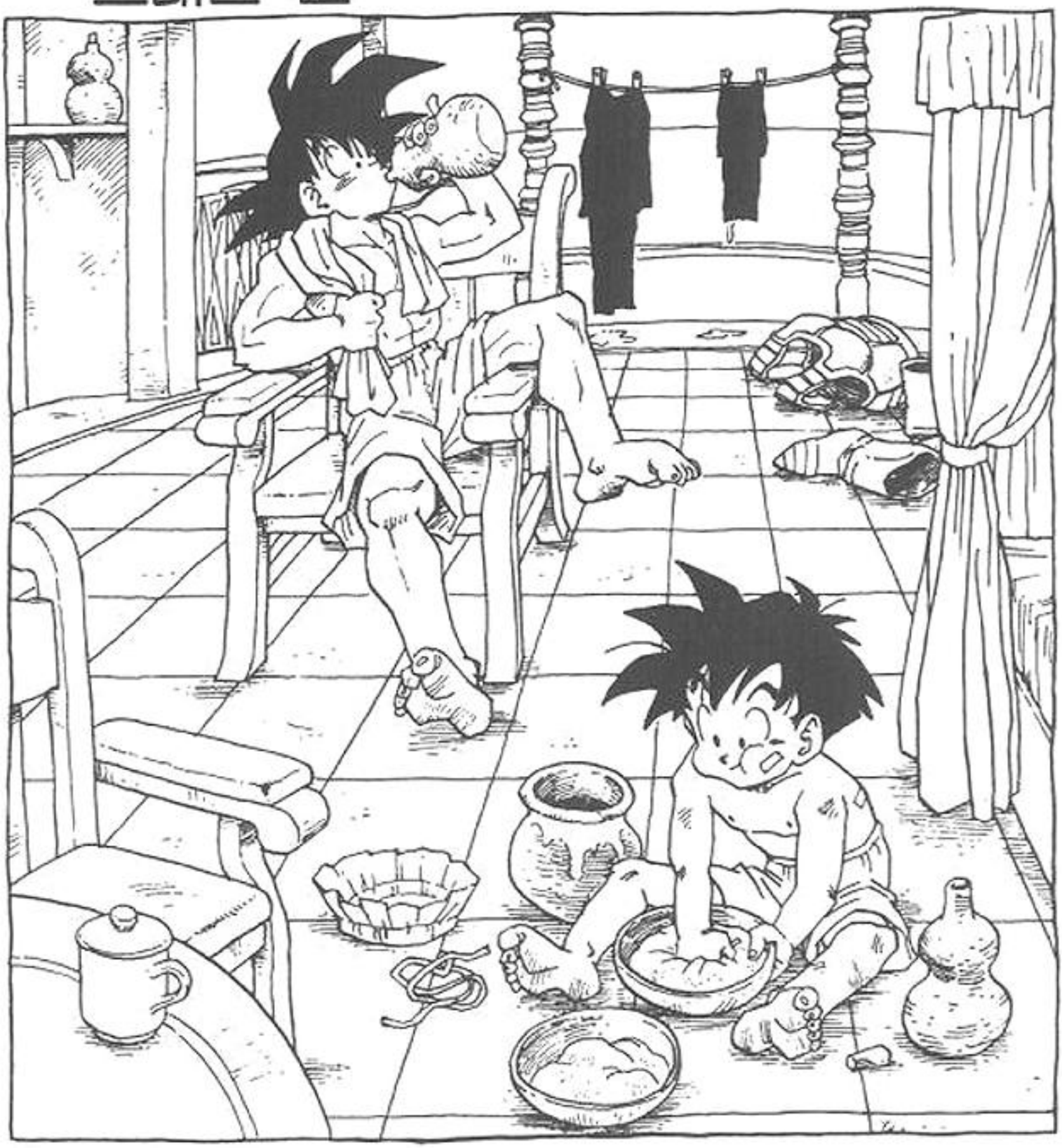
scanned by raprnb

DRAGON BALL

제384화 베지터, 집념의 비책

鳥山明
BIRD STUDIO

드래곤 볼



DRAGON BALL

제385화 트랭크스 시동

드래곤 볼